



시흥월미농악

제12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출전 대상 수상

파도칠러배치기수리듬빛하늘식양이긴다
어살에밀물들면스평의은 遠浦歸帆
뒷산의봉은밤하늘만행는이별이응대

정원철님의 시발간등대를쓰다 은현이인숙



발강등대

시흥문화 21호 출판에 즈음하여



안녕하세요? 시흥시민 여러분. 창립 20주년이 되던 지난해에는 시흥문화원의 지역사적 의미를 찾기에 골몰하였으나, 올해는 다가올 20년의 초석을 닦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시흥문화원 회원과 관계자들의 노력을 ‘시흥문화’ 21호에 담았습니다. 시민의 협조 덕으로 한 해를 무난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시·군 단위 문화 활동을 중앙의 문화와 비교하여 지방문화라고 하는데, 근래는 지역문화라는 말을 선호합니다. 지역문화란 큰 권역의 일부를 이루는 작은 지역에 사는 사람 사는 생활을 이르는 말로서, 여타 지역과 다른 변별성을 필요로 하며, 지역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배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편 시민사회는 시민의 자유와 권익이 살아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시민이 직접 나서 지역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대안을 찾는데 여러 부문에서 민·관 거버넌스를 이루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지역문화 창달을 목표로 하는 시흥문화원은 일찌감치 민·관 거버넌스를 이루어 관민이 협치하는 단체입니다. 문화에 관심을 둔 시민은 누구나 가입하여, 회비로 지역문화 활동을 돕거나, 직접 문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비 지출과 봉사에 대한 반대 급부는 정신적 만족뿐이지만, 모두들 자신의 존재가 지역 사회에 유용하게 쓰임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시흥문화원은 지역의 인문정신문화 계발과,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을 통하여 지역문화 창달에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함께 해주신 문화가족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흥문화원은 주민이 참여하여, 다른 주민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진실한 문화활동가의 길을 닦아가겠습니다. 더욱 많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시흥문화원장 정 원 철

시흥문화원이 전통문화의 보전계승은 물론 시흥시의 문화 발전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2018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나누는 시기에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시흥문화』 제21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시흥이라는 공동체에서 한해동안 수고하신 시민여러분과, 『시흥문화』 21호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정원철 원장님을 비롯한 시흥문화원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흘러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물질적 가치에 빠져 정작 지켜내야 할 우리 고유한 전통문화와 그 정신을 잊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전통문화는 물론 우리 지역에 대한 역사를 재조명하고 계승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시민의 애향심, 자긍심 고취가 그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 한해 시흥문화원은 철학하는 도시 시흥이라는 목표 아래 시흥에서 20여년을 기거하신 추곡 정제두 선생의 발자취를 발굴하고, 한국양명학의 정신과 사상을 우리 도시의 정신적 가치로 삼는 사업들을 지속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쉽게 전통문화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전통문화 강좌, 전통문화축제인 연성문화제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흥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시흥문화원이 전통문화의 보전계승은 물론 시흥시의 문화 발전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시흥문화』가 그러한 활동의 기초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시흥문화』 제21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시흥시장 임병택

시민들의 삶에 작은 쉼표가 되어 주길 소망하며



아쉬운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계절에 우리 시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고 행사 이야기를 담은 시흥문화 제21호 책자가 발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시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지역발전에 애쓰고 계신 정원철 시흥문화원장님을 비롯한 시흥문화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시흥문화』에는 문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선 시흥문화원의 구슬땀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아울러, 시간이 지나서도 세대를 뛰어넘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되어줄 『시흥문화』는 우리 시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후대에 전하는 소중한 사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후대가 우리 시 문화유산을 통해 우리 조상의 숨결을 느끼고 발자취를 쫓으며 함께 호흡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건강한 가지가 솟아나기 위해 기둥이 바로서야 하듯 시흥문화원을 비롯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문화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인들의 힘을 한데 모아 지역문화 창달에 애써주시고 우리의 뿌리를 찾는 일에 더욱 힘써주시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시흥문화원이 다양한 문화 활동과 그 결실들로 하여금 시민들의 삶에 작은 쉼표가 되어 주길 소망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발전하는 『시흥문화』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시흥시의회 의장 김태경

차 례

사진으로 보는 시흥문화

시흥문화연보

문화사업	생활문화플랫폼사업	20
	내가그린기린그림시흥그림	24
	인문활동가 양성·파견 사업	26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연수	28

문화의 현장	신천보편지 주민해설사	32
	소담소담 군자 옛 이야기	34
	꿈은 열 두 줄 선물을 타고 온다	38
	중국산동성 유가문화답사	40
	사랑의 선물 편지글 공모전	44
	제2회 연성음풍 시회를 개최하고	46
	〈시흥사랑 글사랑 전시회〉를 함께 하고	51
	대의원 워크숍(상반기/하반기)	54
	제8회 시흥지역문화세미나	60

문화초점	시흥정책 플러스	64
	감동적인 순간, 행복한 2018학술심포지엄	73

시흥의 문화유산	양명학자 정제두 '잠든 300년을 깨우다'	77
-----------------	-------------------------	----

문화진단-눈	양명학적 인성교육	80
	제2회 하곡학 국제학술대회 인터뷰	95

시흥의 인물	애국지사 윤동욱	98
	시흥 교육의 선구자 최금렬	
	빈민운동가 제정구	

사진으로 보는 시흥문화



새해맞이 시낭송회

시흥문화원 신년회로 문화가족, 시민, 지역 인사를 초청해 새해 희망의 메시지와 삶의 교훈, 시흥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 낭송회



정책플러스

(4. 3일까지 7회, 춘천문화원 견학 등)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시흥시와 시흥문화원이 함께 추진한 시흥문화원 정책 플러스 학습모임 2월부터 4월까지 시흥시민, 시흥문화원 및 시흥시청 관계자, 문화 전문가가 참여하여 진행



99주년 3·1절 기념식 및 군자면 만세운동 재현 거리 걷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을 시흥시 3.1독립운동기념비 (군자초등학교 운동장) 앞에서 개최하여 애국, 애족, 애향의 시흥 3·1운동의 역사성을 되새기고 정신을 기리며, 군자면 3·1운동을 재현하는 거리 걷기를 진행



사랑의 선물 편지글 공모전

글 쓰는 시흥시 캠페인의 시작으로 “사랑의 선물 편지글 말로 다 전하지 못한 마음 글로 적어 보내요!”를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해 수상작을 선정하고 캘리그래피로 작성해 연꽃갤러리에서 전시 함



2018년 지역공동체 혁신프로젝트 달에 “꽃”이 피다(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시흥시 관내 청소년들과 어머니들이 시흥문화원에 모여 재봉틀을 배우고, 직접 재단하고 천을 골라 면생리대를 만들어 사)시흥여성의 전화에 기증



제2회 하곡학 국제학술대회

'철학하는 지역사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6월 27일(시흥시청 글로벌센터) 개최. 발제는 세 개의 분과로 나누어 보다 체계적으로 학술발표를 진행. 하곡학 연구(한국양명학회 협력)와 중국 귀양학원 검학연구소와 산둥성 사회과학원 유학연구소와 양명학 연구 교류



2018 지역문화전문인력배치 및 활용프로젝트 / 소통합시흥II

성인과 청소년 등이 지역문화를 탐방하고 수채화 드로잉 작품을 만들어 시흥시청 전시관에서 '내가그린기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전시





2018생활문화플랫폼사업 (경기문화재단)

작년에 이어 '수다장이'라는 이름으로 신현동 학미소품에서
미싱유 프로그램과 아바 목공소 프로그램으로 진행. 미싱과 목공소 작품은
학미소품에 기증하고 축제를 통해 문화공간으로의 학미소품을 홍보함



제4회 연성음풍(蓮城吟風) 전시회

연성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제4회 전통문화교실 전시회를 개최
(7. 25~31)하여 전통문화교실의 수준 높은 작품들을 전시

2018인문활동가 양성·파견 사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문활동가의
인문강의 및 인문학습 동아리 운영
관내 도서관 지역 아동센터 등
강사 파견함





양명학적 인성교육

정제두 선생의 사상과 현대 양명학의 가치를 시흥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및 사회단체 등의 강의 진행, 양명학회 연구회원을 추가 배치해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



제27회 연성문화제

'시흥의 역사와 문화를 이어가는 전통문화축제' 연성문화제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7월 28일~29일 2일간 연꽃테마파크와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





제8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

7월 29일(일)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3.1 독립 정신의 계승-시흥지역의 민족해방운동'을 주제로 관련 분야의 연구자와 시민들이 모여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시흥지역이 민족해방운동에 있어서의 역할과 의미를 살펴봄



해외교류 중국산둥성 탐방 (산둥 사회과학원 유학연구소)

제2회 하곡학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한 중국 산둥사회과학원 국제유학연구과 교류중심의 손취우 주임의 참여를 계기로 우호협력관계 및 학술문화합작 교류를 위해 협의서를 작성하고 교육교류 전개



제2회 연성음풍시회(蓮城吟風詩會)

오이도선사유적공원에서 한국시조시인협회 경기지역 31개 시·군 시인들을 초청해 오이도의 정취를 담은 시조를 빨강등대, 황새바위, 오이도 패총,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등을 주제로 시조를 제출하고 낭송하는 시간으로 진행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탐방 2018인문프로젝트사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유교문화권의 중심도시 안동의 도산선비수련원에서 유학의 현대적의
등에 대해 공부하고, 철학하는 도시 시흥과 유학의 현대화에 대해
고찰해보고 전문가와 참가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세미나 개최



시흥사랑 글사랑 전시회

11월 28일~12월 4일까지 진행된 2017년 관객지와 2018년 오이도선사유적공원에서 진행된 연성음품 시회 1,2회의 작품을
서예가와 캘리그래피로 연꽃갤러리에서 전시



경기향토문화연구소 2018 학술심포지엄 개최

‘경기유학과 양명학’, ‘경기지역 3.1운동
의의와 현상 및 현대화 방안’을 시흥문화원과
경기향토문화연구소(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설)에서 공동 주관





제12회 경기도청소년 민속예술제 출전

9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 동두천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에 시흥월미농악이 출전하여 대상을 수상하였다. 26개 시군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팀들이 농악, 민속극, 민속놀이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민속예술로 참가. 지도자상도 함께 수상

문화의 날 행사 추곡서원 행사 및 제5회 시흥문화림이 시상식

2018문화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양명학의 대종사 추곡 정제두 선생을 시민에게 알리는 추곡서원 행사를 거행하고 시흥 지역문화 창달에 수고하신 분을 격려하는 제5회 시흥문화지킴이 시상식을 정제두 선생 유허비에서 진행



시흥역사문화학교 6기 개강

시흥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며, 시흥시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문화 활동가를 양성하는 『시흥역사문화학교』 6기 수료



2018 인문학교실 ‘인문정신문화’

상반기에는 시 쓰는 시흥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인의 향기로 강연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유학과 역학, 한민족의 해양활동, 연해주와 간도 독립운동의 역사적의의 등으로 진행



대의원 워크숍 개최

1,2차로 진행된 워크숍은
1차로 5월 17일 안동 도산서원, 유교문화박물관, 영주 소수서원
2차는 10월 25일 충남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탐방하며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임



문화원 연혁

- 1996. 1. 31. 시흥문화원 설립총회 개최 -초대원장 정학진 선임
- 1996.12. 10.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문화체육부장관)
- 1997. 9. 12. 시흥문화원 개원식(대야동 시흥시 구청사)
- 2002.12. 5. 능곡동 45번지로 시흥문화원사 이전(구 연성동주민센터)
- 2003. 5. 27. 시흥역사자료전시관 개관
- 2009. 8. 28. 하중동 875-1번지 조은프라자로 시흥문화원 및 시흥역사자료전시관 이전
- 2012. 2. 7. '시흥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시흥시)
- 2013. 6. 21. 제7대 정원철 원장 선출
- 2014. 2. 21. 부설 시흥향토문화연구소 설립(초대 전남훈 소장)
- 2015. 2. 25. 제8대 현 정원철 원장 선출
- 2016. 2. 4. 부설 추곡서원 설립(초대 전남훈 원장)

2018 연보(무술년)

- 2018. 1. 3. 제1차 이사회의 / 새해맞이 시낭송회 공지 등
- 2018. 1. 9. 새해맞이 시낭송회 / 시흥시청 늬내홀
- 2018. 1. 19. 문화원 감사(안준상, 신호철)
- 2018. 1. 24. 제2차 이사회 / 예결산 심의 등
- 2018. 1. 31. 제31차 정기총회 / 예결산 심의 등
- 2018. 2. 1. 우리 전통문화예절 강연 / 유한형 시흥향토문화연구소장 / 시설관리공단임직원
- 2018. 2. 12. 문화원 정책플러스 개최 / 4.3일까지 7회차 진행, 춘천문화원 견학 등
- 2018. 3. 1. 99주년 3·1절 기념식 및 군자면 만세운동 재현 거리 걷기
- 2018. 3. 16. 시흥역사문화학교 6기 개강 / 6.8일까지 12강, 2회 답사 진행
- 2018. 4.13.~ 5.18. 상반기 인문학산책 / 문화원 추곡재
- 2018. 4. 19. 제3차 이사회 / 정책플러스 결과 보고 논의 등
- 2018. 4. 26.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설 경기도향토문화연구소장 정원철 원장 선임
- 2018. 5. 14. ~ 31. 사랑의 선물 편지글 공모전
- 2018. 5. 17. 상반기 대의원 워크숍 / 영주 소수서원, 안동 도산서원, 유교문화박물관
- 2018. 6. 20. 『시흥 오이도와 인근 어촌민속』 발간 모임
- 2018. 6. 27. 제2회 하곡학 국제학술대회 '철학하는 지역사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초청 중국 연구자 국내 탐방 / 시흥시청 글로벌센터

2018. 7. 20. 독립지사 김천복 기념비 제막식 / 생금어린이공원
2018. 7. 23.~ 25. 달에 꽃이 피다(오가닉 면생리대 만들기)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8. 7. 25.~ 31. 제4회 연성음풍(蓮城吟風) 전시회
2018. 7. 28.~ 29. 제27회 연성문화제(연꽃테마파크,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제8차 시흥지역문화세미나 개최 '3.1독립 정신의 계승'
2018. 8.~ 2019. 1. 2018인문활동가 양성 파견사업(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8. 8. ~ 11. 경기도 우수전통민속보존단체지원사업(경기도문화원연합회)/시흥향토민요보존회
2018. 8. 12.~ 15. 해외교류 '산동사회과학원 유학연구소' / 중국 산동성 탐방 등
2018. 8. 17. 제4차 이사회 / 연성문화제 평가 및 글쓰기 사생대회 시상 등
2018. 8. 20.~ 10. 13 수다장이 두 번째 마을 'MISSING YOU 프로젝트' / 경기문화재단
2018. 8. 26. 2018 지역문화전문인력배치 및 활용프로젝트 / 소통합시흥II
2018. 8.29.~11.28.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시흥시)' / 시흥역사자료전시관
2018. 9. 5.~11. 21. '시흥창의체험학교(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 시흥역사자료전시관
2018. 9. 13. ~ 14. 제12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출전 / 시흥월미농악 대상(경기도지사상) / 동두천시
2018. 9. 14. ~ 17. 중국 귀주성 귀양학원 양명학과 검학연구원 학술대회 참가
(정원철 원장, 유한형 향토연구소장 등)
2018. 9. 20. 제32차 임시총회 / 시흥향토문화연구소장 선임(유한형) 등
2018. 10.2.~11.20. 하반기 인문학산책 '인문학과 함께 가을을 거닐다' / 문화원 추곡재
2018. 10. 3. 정원철 원장 경기도민상 수상 / 시민의 날(갯골생태공원)
2018. 10. 4. 달의 꽃이 피다 '면생리대 전달식(시흥여성의전화)' / 문화원 추곡재
2018. 8.20.~10.13. 'MISSING YOU 프로젝트 작은 축제' / 신현동 학미소풍
2018. 8.26.~10.14. 소통합시흥 내가그린기린그림시흥그림 드로잉 교육 / 시흥문화원
2018. 10. 19. 2018 추곡서원 향사(추곡 정제두 선생 추모제향) / 화정동 유허비 앞
2018 문화의 날 기념식 및 제5회 시흥문화지킴이시상식
2018. 10. 25. 하반기 대의원 워크숍 / 예산 매헌 윤봉길 기념관, 추사고택, 예산장터 등
2018. 10.21~ 29. 소통합시흥 내가그린기린그림시흥그림전시회 / 시흥시청 지하1층
2018. 10. 30. 제2회 연성음풍 시회 /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2018. 11.5.~ 6. 2018인문프로젝트지원사업(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선비문화체험수련
2018. 11. 28.~12.4. 제1회 시흥사랑 글사랑 전시회 / 생명농업기술센터 연꽃갤러리
2018. 12. 7. 공동주관 '경기향토문화연구소 2018 학술심포지엄' 개최. '경기유학과 양명학', '경기지역 3.1운동 의의와 현황 및 현대화 방안' / 시흥시청 글로벌센터
2018. 12.10.~13. 시흥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연속토론회 / 정원철 문화원장, 김영기 부원장 참가 / 시흥시청 문화예술과
2018. 12. 18. 교육선구자 최금렬 흉상부조 제막식 / 군자도서관
2018. 12. 31. 시흥문화 21호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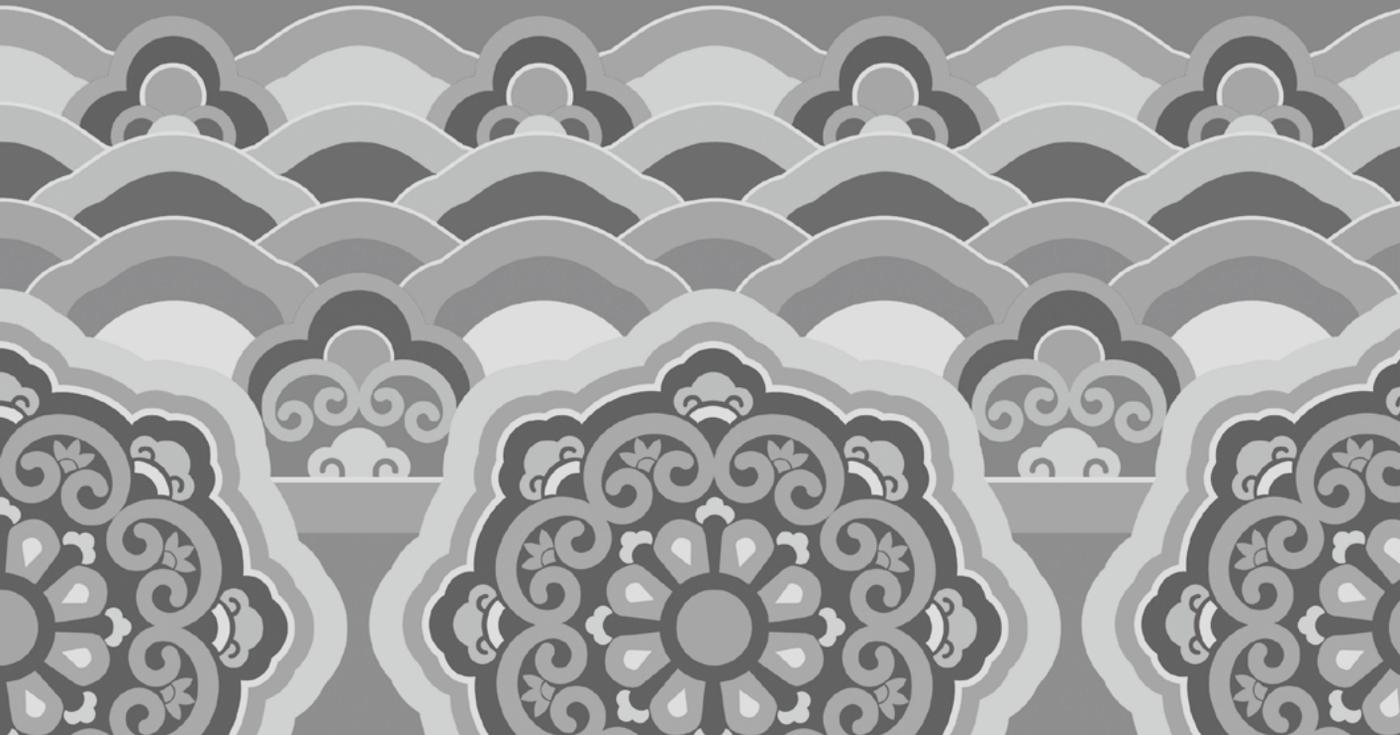
문화사업

생활문화플랫폼사업 - 편집부

내가그린기린그림시흥그림 - 박한샘

인문활동가 양성·파견 사업 - 한봉선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연수 - 우성숙



생활이 문화가 되고, 마을이 무대가 되다

● 편집부 ●

우리 주변에는 손재주가 많은 사람, 남의 고민을 잘 들어주는 사람, 특별한 살림 노하우를 가진 사람, 장을 잘 담그는 사람, 꽃을 잘 가꾸는 사람 등 다양한 이웃들이 있다. 그러한 개성들이 서로 손을 잡으면 어느새 마을의 문화가 만들어진다.

그것이 생활문화다. 따라서 생활 문화는 본인이 선택해서 듣는 강좌 수강이나 관람 위주의 소위 '문화생활'과는 구별이 된다. 기능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다. 그렇기에 문화예술 활동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의 변화로 부터 시작하여 주민들의 역할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이 지역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들이 서로의 능력과 공동의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마을의 특성을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 '생활문화플랫폼'이다.

생활문화의 사전적 정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만들어 내는 문화를 통틀어 이르는 말.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 내지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뜻한다.

시흥문화원은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6년부터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3년차 진행으로 첫해는 문화원으로 주민들이 찾아와 생활문화를 접하고 이웃에게 나누었다면, 2년차부터는 마을로 직접 찾아가 그 곳의 공간을 활용하고 사업 후에도 주민들이 직접 공간을 이용해 우리 마을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수다장이(秀多張里)_ 생활문화를 베푸는 마을' (2017년)

'수다장이(秀多張里)_ 생활문화를 베푸는 마을'을 장곡동과 하중동에서 6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였다. 장곡동 삼환·한진아파트(수방)와 하중동 참이슬아파트(다방)에서 각각 진행했다. 수방(手房)은 매주 화요일에 운영되었으며, 성인은 손뜨개와 냅킨아트 등, 손으로 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아이들은 보드게임과 인형극을 진행하였다. 다방(茶房)은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였다.

시흥지역 특산물(연 등)을 이용한 차 만들기



피클, 그리고 차를 마시며 시낭송과 영화감상 등으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차 등은 주민들과 함께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확장으로 축제를 진행하였다. 수수방관(手手芳關) 프리마켓(수방), 수수방관(다방)으로 진행된 축제는 사업의 참여자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것들을 공유하고 나눔을 갖는 시간으로 진행하였다.

♣ 참여자 후기

수 방

참여자1 : 난 8월 후반에 들어와서 늦게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아쉬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꼭 또 하고 싶어요. 제일 먼저 알려주세요!

참여자2 : 전 특히 이번 한지공예가 제일 좋았어요. 난 목공이나 한지공예 좋아요. 다음번에는 연속해서 할 수 있는 좀 더 큰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평소에는 할 수 없던 DIY 목공 이런 거요. 내년엔 만약 수방하게 되면 이걸로 한 번 기획해보세요. 이거 내가 아이디어 준거예요!(웃음) 내년엔 수방 또 하게 되면 꼭 연락 주셔야

해요!

참여자3 : 재미있었고요, 생활 속에 즐길 수 있는 소소한 문화 활동이라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만든 작품들을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엄청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하면 안 될까요?

참여자4 : 수다방..... 그런데 의미 있는 수다가 있는 방이었어요. 편한 분위기에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뜨개질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왜냐하면 제일 막막했거든요(웃음). 그런데 몇 번 해보니까 재밌어서 실을 더 사서 20개 정도 더 만들었어요. 옆집 언니랑 아들 친구 엄마들이랑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어요.

참여자5 : 지역주민들하고 친해져서 좋았고요,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았어요. 여가시간을 즐겁게 보내게 된 것도 좋았습니다. 리본공예로 만든 머리장식으로 아이 머리도 해주고요, 지난 번 만든 비누도 거의 다 써가요. 내가 만든 작품을 생활 속에서 쓸 수 있어 좋습니다. 정말 생활 속에 문화가 들어왔어요.

다 방 (茶房)

참여자6 : 사실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나오기가 싫어요. 그런데도 매주 다방에 나오게 되는 건 함께 하는 사람들 속에서 힐링 되고 의미를 찾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방 끝나고 그 다음 수요일이 됐는데 조금 이상했어요. 매주 수요일 저녁은 다방에서 함께 했었는데 말이죠.

참여자7 : 전 수방이랑 다방 둘 다 했었는데요, 수방이나 다방을 통해 좋은 분들 많이 알게 되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딱 마흔 중반입니다. 아이 셋 키우고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녁시간에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참여자8 : 차를 마셔만 봤지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보는 과정도 즐겁고 차 맛도 좋았어요. 차 맛도 좋았지만 친구(박현정 님)와 함께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더 좋았습니다.

'수다장이(秀多張里)_ 생활문화를 베푸는 마을' 두 번째 (2018년)

올해는 생활문화플랫폼사업 두 번째 마을 'Missing U 프로젝트를 신현동 태산아파트 상



가 지하에 위치한 학미소풍에서 진행했다.

지역의 거점에 활동 공간(플랫폼)을 마련하고 주민들 삶에 생활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학미소풍은 신현동 태산아파트 입구의 지하에 위치해 있으며 시에서 공간을 만들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하는 곳으로 주민들이 위원회를 정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많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공간을 친근감 있게 만들어 항상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Missing U 프로젝트'는 아빠 목공소와 재봉틀을 이용한 홈리빙 패션으로 진행하였다. 아빠 목공소는 성인 남성과 아이들이 함께 DIY목공예(책상, 의자 등)를 만들었고, 엄마들은 재봉틀을 배우고 쿠션, 방석, 앞치마 등을 만들어 보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작품들을 학미소풍에 기증하여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하는데 기여하였다.

올해도 그간의 활동을 보여주는 '학미소풍 작은 축제'를 진행하였다.

재봉틀과 목공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식탁보와 탁자를 학미소풍(신현동장 조혜옥)에 기증하는 전달식과 더불어 생활예술문화동호회의 공연과 생활예술 체험부스, 작품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축제에는 신현동 일대 주민들과 그간 사업의 참여자와 가족들이 참가하여 의미 있는 마을 축제가 되었다.

♣ 참여자 후기

참여자1 : 모든 것을 준비해주셔서 편하고 재미있게 배웠고 끝나서 많이 아쉽다.

저는 말 안 듣는 학생이었다. 선생님이 알려주시



는 대로 하지 않고 내 스타일 대로 만들었다. 틀에 박히지 않고 응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더 이 수업이 재미있었다.

참여자2 : 오래전부터 재봉을 좋아했고 재봉틀도 구입했었다. 그러나 독학으로 배우려다 보니 너무 어렵고해서 동생에게 재봉틀을 줬다.

정말 좋은 이번 기회를 꼭 이용하고 싶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접고 참여를 했다. 정말 잘한 것 같다. 시작을 하면서 나의 목표는 바늘을 부러트리지 말자였다.

처음 독학을 할 때 바늘을 너무 부러트려서 그렇게 정하고 시작을 했다.

목표를 달성했고 끝난 지금은 겨울동안 집에서 차분히 연습을 해서 기회가 되면 혼자도 좋고 여기에 마음 맞는 사람들과 배운 것으로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싶다. 즐거웠고 앞으로 잘 활용하겠다.

참여자3 : 저도 이 수업이 너무 좋았지만 아이가 더욱 좋아했다.

축제를 통해 엄마 작품이 전시가 된단니까 너무 기다렸다. 축제가 끝난 뒤 수업을 가는데 엄마 작품 또 전시하는 거야라고 묻는 아이를 보며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뿌듯했다.

참여자4 : 저는 재봉 초보자. 처음 직선박기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는 아이들 소품을 만들어 줄 정도는 된다.

그리고 끝까지 했다는 성취감도 느끼며 정말 많이 도와준 보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엄마는 재봉을 참 잘하신다. 한복을 만드는 정도의 실력자다. 그동안은 엄마와 대화를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엄마 나 이거 만들었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그 점도 너무 좋다. 정말 듣길 잘한 것 같다.

참여자5 : 목공예에 관심이 많아서 기회가 되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공고를 보고 빨리 접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 호기심을 갖고 참여했고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꼼꼼히 순서도 잘 알려주셔서 열심히 따라 했다. 나의 바람은 이 수업이 1기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 섬세하게 예쁘게 하는 게 중요해서 힘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만큼 보람 있었고 좋은 경험이었다.

참여자6 : 여기 모인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쉽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커리큘럼이 너무 좋고 가르침도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짧아서 많이 아쉬웠다. 좀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아쉽고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 시흥 그림

● 박한샘 ●

10월 29일 전시회 철거를 끝으로 지역문화인력 프로젝트가 마무리됐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프로젝트였다.

지역문화인력은 지역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지자체가 매칭을 통해서 시설에 인력을 배치하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흥문화원에 배치되어 약 2년 간 근무를 해왔다. 지역문화인력 프로젝트는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프로젝트는 일회용 카메라를 이용해 시흥 전역을 사진에 담은 활동을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활동사진으로 만들어 상영하는 작업으로 풀어냈다. 요즘에는 보기 드문 번사를 등장시켜 시흥지역의 잊혀져가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을 추억하는 프로젝트였다.

올해는 작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작년과 비슷한 결을 가지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탄생한 것이 이번 <내가그린기린그림시흥그림>프로

젝트였다. 시민들과 지역예술인이 함께 지역을 탐방하고 사진을 찍어, 그것을 수채화 드로잉으로 표현해내는 활동이었다. 지역과 문화예술 활동이 연결되는 접점을 찾은 셈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 먼저 프로그램을 담당해줄 청년 예술인을 찾았다. 캘리그래피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 다재다능한 박경민 작가를 섭외했다. 그리고 지역탐방을 해줄 단체로는 공정여행 '동네봄'팀이 함께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함께 할 시민들을 모집했다. 초등학교 어린이와 어머니, 20대 청년들, 직장인 등 정말 다양한 6명의 참가자들이 모였다.

무더운 8월 말에서 10월까지 약 2개월 동안 길지 않은 호흡으로 진행됐다. 더운 여름날 함께 모여 스케치와 수채화 기초부터 배우고 연습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 함께 월곳을 걸어봤다. 지역의 명소가 아닌 잊혀져가는 곳을 걸었고, 활발함 대신 멈춰져있는 순간들을 보았다. 지역의 어두운 면을 보았고 그것을 각자의 시선에서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글로도 담아봤다. 우리 모두가 예술가였다.

함께 월곳 해안가를 걸으며 사진을 찍었지만



참여자 작품: 김형석 <물구나무 휴식>

제각각 바라보는 방향과 순간이 달랐다. 걸음이 멈춰진 공간도, 시선이 꽂힌 순간도 모두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재미나고 개성 넘치는 시선이 담긴 작품들이 탄생하였다. 일상 속 포착이 예술로 이어지는 순간의 발견이었다.

거꾸로 매달린 고무장갑을 그린 <물구나무 휴식>과 쌓여진 박스들을 그린 <박스는 차곡차곡> 등 다양한 작품들이 나왔다. 단순히 그림만 그린 것이 아니라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들도 글



참여자 작품: 박연경 <박스는 차곡차곡>

로 풀어내 덧붙였다. 일상과 지역이 담긴 예술 작품이었다. 이것들을 다 한데 모아 시흥시청 지하 갤러리에서 약 열흘 간 작은 전시회를 진행하였다.

<내가그린기린그림시흥그림> 프로젝트를 통해 내가 배운 점은 누구나 안에 예술가가 있다는 거, 모두의 일상에 작은 문화씨앗이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 문화예술이 지역이슈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것들을 환기시켜줄 수 있다는 것, 관계는 늘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 문화는 사람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그 관계에서 내가 힘을 얻는다는 것이다.

지역문화인력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흥에서의 마지막 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시흥에서 보낸 2년은 다사다난하기도, 즐겁기도 했다. 문화 속에서 함께할 수 있었고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도 했다. 결국 문화는 사람 속에서 피어나고, 사람은 문화 속에서 자라났다. 앞으로 나의 지역문화인력으로서의 성장 역시 사람 속에서 피어나 문화 속에서 잘 자라길 바란다.

2018년 인문활동가 양성·파견 사업

한봉선

‘인문활동가 파견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이다. 사업의 목적은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이며 지역 친화적 인문 활동의 모델을 구축해서 인문학의 선순환적 생태계를 조성하고자하는 취지이다. 이 사업의 기간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이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모집 양성 파견한 교육·강연형, 기획·운영형 인문활동가가 직접 지역거점으로 찾아가서 인문 활동을 펼친다. 인문활동의 구심점은 지역의 문화기반시설로써 사업의 진행을 돕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시흥문화원은 ‘철학하는 도시 시흥’ 콘셉트로 지난 6월 사업에 공모하였고 8월부터 인문활동가를 파견했다. 주요 파견지는 관내 도서관, 시흥희망복지의료사회적협동조합, 신천동네관리소, 인문학동아리, 평생학습센터, 한울지역아동센터 등이다.

‘철학하는 도시 시흥’

교육·강연형 인문활동

교육·강연형 인문활동가는 ‘나로 살기 위한 8가지 질문’과 ‘철학 본능-당신도 이미 철학자’라는 강연주제를 가지고 관내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시설에서 강의를 했다. 강연은 동양철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재해석해 보자는 소주제를 담고 있고, 대상은 노년층을 포함한 중장년층이었다.

한편 강연을 들은 수강자의 요청으로



<시흥희망복지의료사회적협동조합 강연>

고전 철학 강독을 이어나가기도 했는데, 한 인문학동아리 회원은 어려워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마쳤던 '논어'를 인문학강사와 함께 다시 강독하니 그 깊은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는 후기를 내놓기도 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던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이 한자어에 대한 관심과 언어적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는 태도가 생겼으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획·운영형 인문학활동

기획·운영형 인문 활동가는 '동화읽기의 즐거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기획해 성인 대상 동화수업을 시작하였다. '동화읽기의 즐거움'은 주요 독자층이 아동이라고 여기는 성인들에게 동화라는 장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내 안의 아이'를 들여다보는 독서심리프로그램이다. 수업 내용은 아동문학의 장르적 특성 이해 및 주요작가의 작품분석, 주요 장면에 따른 각자의 경험담 쓰기 등으로 채워져 있다. 수업 과정에서 수강자들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동화에 대한 편견이 불식되었다는 의견을 내어놓았으며, 동화가 가진 문학으로써의 우수성과 철학적인 면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한편 이외의 인문 활동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프로그램 운영과 인문학동아리의 비전을 제시하는 기획·운영 활동을 했다.



<평생학습센터 인문학활동>

한국양명학의 고장 시흥

시흥문화원은 이번 인문학활동이 자신의 삶을 통찰하고 개인의 잠재적 콘텐츠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시흥의 문화적 자산인 '한국양명학'을 알리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유학의 한 갈래인 '한국양명학'은 추곡 정제두 선생이 시흥의 가래울 마을에서 20년 동안 수학하여 기초를 세운 학문이다. 양명학은 유학의 한 갈래로 기본 사상은 '심즉리'이다.

모든 현상은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으니 마음이 곧 이치라는 심즉리(心卽理)의 정신은 우리의 삶을 깊게 통찰하게 하는 마음공부이다. 마음공부는 공감능력을 수반한다. 한편 공감능력은 21세기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가 꼭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꼽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전반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고리가 공감능력의 부족 때문이라는 걸 모두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공감능력을 키워주고 살기 좋은 세상을 열어 줄 마음공부의 고장이 바로 시흥이다. '한국양명학'의 다른 이름 마음공부를 지역민에게 알릴 계기를 마련해 시흥이 인문학도시라는 걸 더욱 공고히 하자는 게 본 사업에 참여한 시흥문화원의 취지였음을 밝힌다.

과거와 현재의 만남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우성숙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2018년 11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2일 동안 안동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서 시흥문화원 2018 인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출발 당일 아침, 시흥역사자료전시관 앞에 연수를 함께할 참가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몇 번 만나 봐서 익숙한 분들도 있고 처음 보는 분들도 보인다. 시흥을 출발하여 안동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는 정원철 문화원장님의 인사말과 사무국장의 일정소개, 함께 연수에 참가한 구성원들의 간단한 자기소개가 있었다. 이번 연수는 유학의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를 심화하기 위하여 유학의 현대적의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관련된 장소들을 답사하며, 수련원 활동을 통해 철학하는 도시 시흥과 유학의 현대화에 대한 고찰을 해보고 참가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연수 목적으로 두었다.

처음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으로 연수를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의 선입견이 있었다. 다소 고리타분할 것이라는 예상과 요즘 시대에 유학이라는 주제가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였다. 일정표를 받고 보니 꽤 빠빠한 스케줄이다. 어쨌든 달리고 달리다보니

아주 깊고 깊은 산속에 있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우리 일행을 기다리던 담당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수련복이라 부르는 조끼를 하나씩 받아 입고서 명찰을 목에 걸고 입교식에 참석했다. 수련원에서의 일정을 듣고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일정을 함께할 지도위원들의 소개를 받았다.

2001년 11월 퇴계 선생 탄신 500주년을 맞아 설립된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은 개인의 바른 인성과 선진 도덕사회구현, 지(智)와 덕(德)을 겸비한 인재(오늘의 선비)를 육성하고자 설립되었다고 한다. 퇴계 종택에서 1억을 기부하고 수련시설을 임차 사용하는 소규모 민간 활동으로 출범한 수련원은 2011년 4월에 1원사 준공, 2016년 6월에 2원사가 준공되어 총 150~200명이 숙박가능한 시설이다. 2002년부터 참여한 인원은 2018년 15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지도위원들이 아닌가 한다. 대부분 교직은 퇴자로 구성된 지도위원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낮추고 말 그대로 술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버스에 올라 도산서원으로 향했다. 버스가 이동하는 동안 지도위원의 해설이 이어진다. 퇴계 선생의 사사로운 에피소드를 전해줄 때도 있었고, 풍경처럼 지나치는 건물이나 동네의 이야기가 함께 곁들여 지기도 했다. 계상서당은 1558년 율곡이 이곳을 찾아 3일간 머물렀던 곳이며, 특히 퇴계 선생은 도산서당을 세운 이후에도 이곳에 연거(燕居)하였으며 1570년 계상서당에서 서거하셨다고 한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선명한 붉은빛의 단풍들이 정답게 느껴졌다. 한 달만 일찍 왔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운 마음을 모두들 가져 보았다. 천천히 걸으며 틈틈이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해설도 함께했다. 이곳은 안동댐이 생기면서 마을이 물에 잠긴 곳이고 천 원짜리 지폐 뒷면의 배경이 된 장소이기도 하다. 도산서원 입구에 도착하니 안동호 내에 높은 단을 쌓고 지은 작은 건물 한 채(비각)가 보였는데 이것이 시사단(試士壇)이다. 조선 정조 16년(1792)에 대궐이 아닌 지방에서 과거시험을 치렀는데 이 시험이 도산별과(陶山別科)이며, 이를 기념하는 유적이 시사단으로 안동댐 수몰에 대비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단을 쌓고 높였다고 한다.

퇴계 선생이 서거하시고 4년 뒤 제자들과 유림에서 퇴계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웠다는 도산서원은 퇴계 선생이 직접 입지를 정한 곳으로 공부하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그 풍경은 참으로 고요했다. 그것은 평소 검소하고 청렴했던 퇴계의 모습과 닮았다는 느낌이기도 했다. 선조 임금으로부터 석봉(石峯) 한호(韓濩)가 쓴 '도산서원'의 편액을 하사 받았으며, 매년 봄, 가을 향사하고 있다고 한다. 퇴계

선생이 생전에 계시던 도산서당 마루인 암서헌(巖栖軒)에 앉아 잠시 지도위원의 강의를 듣고 장소를 이동하여 퇴계 선생의 위패를 직접 뵈고 인사를 드리는 알묘례 체험을 하였다.

퇴계 종택을 방문하여 종손과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기도 했다. 연로하신 퇴계 종손은 귀가 잘 안 들리신다고 했고 그저 자신이 하는 얘기의 높낮이 정도만 구분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 분께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님을 맞이하고 준비하신 말씀과 더불어 추천도서 세권을 소개하셨고, 손수 쓴 글씨를 선물로 나누어주셨다. 종택을 나오는 대문에서 일일이 모든 사람의 손을 잡으시며 의재정아(義在正我)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고 참가자들은 각자 자기가 선택한 한 가지 구절을 말하며 화답하였다.

이후에는 '21세기 전통문화의 중요성과 퇴계의 선비정신'이라는 주제로 선비문화수련원 김병일 이사장의 강연이 있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는 한류라는 문화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통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전통정신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원 회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셨고, 선비정신에 담긴 인성교육의 내용과 함께 실천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 퇴계 선생의 삶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애



기들을 통해 전통정신의 부활이 절실하며 선비정신의 확산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하였다.

저녁식사 후 '퇴계 선생의 삶과 선비정신'이라는 동영상 시청하고 난 뒤, 퇴계 명상길 산책에 나섰다. 모두들 손에 등불 하나씩을 들고 정상까지 오롯이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길을 걸었다. 어쩌면 오래전 퇴계 선생도 이 길을 걸어가셨을까? 어떤 생각을 하며 걸으셨을까? 처음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었다가 나중에는 밤하늘에 가득 찬 별들을 바라보느라 잡생각들이 사라졌다. 정상에 도착해서 잠시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들어 쏟아질 듯 한 별을 감상한 뒤 다시 걸어온 길을 되돌아 내려왔다. 지도위원의 진행 아래 산책길에서 들었던 생각들을 발표하고 나 자신에 대해 느낀 점들을 공유했다.

둘째 날 아침, 아침식사를 마치고 버스에 올라 퇴계 선생의 묘소로 향했다. 퇴계 선생의 묘소는 꽤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계단을 오르고 올라 헉헉거리던 숨을 고르고 조용히 묘소를 둘러보았다. 묘소 주위에 있는 소나무들이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 퇴계 선생의 비석 앞면에는 관직을 쓰지 않고 '퇴도만은진성이공지묘(退陶晩隱眞城李公之墓)'라고 간결하게 적혀 있는데, 이는 선생의 유계(遺戒)를 따른 것이라고 한다. 퇴계 선생의 묘소 아래에 만며느리의 묘소가 있는데 만며느리는 퇴계 선생 장례기간 중에 돌아가셨고 "살아생전에 아버님께 효도를 다하지 못하였으니 죽어서라도 효도를 할 수 있도록 아버님 묘 아래에 묻어 달라"고 유언하여 이곳에 묘를 썼다고 한다. 지도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박일엽 선생님께서 손수 시조창을 해주셨다 하셔서 칭해들었다. '칭산은 어찌 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굶디 아니는

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만고상청 호리라' 어디서도 듣기 힘든 멋진 소리 덕분에 귀가 호사를 누렸다.

하계마을은 퇴계 선생 후손들의 집성촌으로 1975년 안동댐 건설로 인하여 마을은 수몰되고 100여 호 마을이 20여 호만 남아있다. 이 마을은 3대에 걸쳐 독립 운동가를 배출시킨 가문을 비롯해 25명의 독립운동가와 15명의 조선조 문과급제자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이자 선비정신의 산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선비정신과 애국 애족정신을 받들어 2004년 독립운동기적비가 세워졌다.

이어서 '유교문화와 선비정신'이라는 주제로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김종길 원장의 강의가 이어졌다. 학봉 종택의 15대 종손으로서 곁에서 보아온 퇴계 종택과 종손에 대한 얘기도 들려주셨고, 유교문화, 서원, 향교, 종가, 종손에 대한 설명과 함께 퇴계 선생의 삶에서 배워야 할 점들을 비롯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한 말씀도 전해주셨다.

수료식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끝으로 수련원에서의 1박2일을 마무리했다. 버스에 오른 우리 일행들에게 마지막까지 진심을 다해 인사를 하던 지도위원들의 모습을 뒤로하고 시흥으로 향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1박 2일의 일정 동안 느낀 점들을 비롯해서 각자의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는 철학하는 도시 시흥을 만들어 가기 위해 앞으로 시흥문화원에서 해야 할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시흥의 양명학에 대한 연구와 양명학의 대중화를 통해 시흥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문화원이 되는 것, 그 과정을 문화원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해본다.

문화의 현장

신천史편지 주민해설사 - 우성숙

소담소담 군자 옛 이야기 - 허정임

꿈은 열 두 줄 선율을 타고 온다 - 장유경

중국산동성 유가문화답사 - 김충기

사랑의 선물 편지글 공모전 - 류홍숙

제2회 연성음풍 시회를 개최하고 - 정원철

<시흥사랑 글사랑 전시회>를 함께 하고 - 박일엽

대의원 워크숍(상반기) - 이종순

(하반기) - 박일엽

제8회 시흥지역문화세미나 - 안준상

신천史편지 주민해설사

| 우성숙 |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으로 시작되는 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주소이다. 시흥에 이사 온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 우연히 택시를 탈 일이 있었다.

“아저씨 신천동으로 가주세요~”

“아~신천리요?”

“아니요, 신천동이요...제 목적지는 삼미시장 쪽인데...신천동 아닌가요?”

“그러니까 신천리 맞잖아요!”

신천동이 예전에 신천리였다는 것은 알리 없었던 나는 이런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2017년 6월 신천동 주민센터는 아주 특별한 책 한권을 발간하게 된다. 이름하야 ‘뱀내 따라 흐르는 신천史편지’가 그 책의 제목이다. 신천동 사람들이 띄우는 그 때의 기억과 기록을 알 수 있는 이 책은 신천동의 옛이야기를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가한 편집위원 중에는 신천동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토박이도 있고, 나처럼 이사 와서 살아가는 주민들도 있고 각자의 사는 모습이 다르다. 이 책이 발간된 이후 주민센터에서는 신천동의 주민을 대상으로 신천동의 역사, 문화, 생태, 자연 등을 교육하여, 우리 동네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체험학습, 성인의 문화관광 등에서 우리 동네를 안내할 수 있는 주민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모집하였고 그렇게 지금의 ‘신천史편지 주민해설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2017년 7월 3일부터 8월 25일까지 6주에 걸쳐 주2회, 1회 3시간, 총12회, 36시간의 일정이

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주민해설사 양성과정 일정은 실내교육과 현장교육이 병행되었고 신천동 이름의 유래부터 시작되어 자연환경, 재미있는 신천동의 이야기까지 하루도 지루할 날이 없었다. 각각의 교육 내용에 맞는 마을 이야기 발굴, 현장 답사 및 교육, 신천동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강의 시연 실습 및 평가, 안전교육 등 꼭찬 일정들이었다.

교육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나니 처음 20여명으로 시작한 인원은 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양성과정 수료이후 주민해설사 이름을 걸고 처음 맞이한 데뷔무대는 9월 27일 주민센터 뒷마당 신천뜰에서 개최된 ‘신천史편지’ 발간식이었다. 비록 우리가 기대했던 해설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주민들에게 마을해설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처음 발표하는 자리였고, 그 곳에서 북음자리에 관한 짤막한 이야기를 전하고,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하연선생과 회나무 전설’이라는 연극을 선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주던 덕분에 무사히 공연을 끝낼 수 있었다.

이후로 소래중 학부모회, 의료생협 관계자분들에게 해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주민해설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다. 다문화가정 주부들을 대상으로 삼미시장을 해설하고 김장체험을 하는 것으로 2017년을 마무리했다. 2018년이 시작되면서 계란마을 현장학습을 가고, 5차시에 걸친 심화학습을 통해 역량강화에 힘썼다. 동대문으로 해설 견학도 다녀오고 소래산 현장 학습도 다녀왔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학교로부터 해설 의뢰가 들



어왔다. 소래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소래산 해설을 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준비했던 해설 시나리오를 다시 점검하고 해설동선을 점검하기 위해 또 다시 소래산에 올랐다. 드디어 해설 당일 날 미세먼지로 인해 수업시간에 약간의 변동이 생기기도 했지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별다른 사고 없이 해설을 마칠 수 있었다. 그렇게 한바탕 해설을 마치고 나니 분위기가 돈독해졌다.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나 능력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힘을 모으다보니 할수 있다는 자신감도 더욱 커졌다. 이후로는 주민해설사를 알릴 수 있는 동영상도 제작하고, 각종 축제나 행사에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래산마애보살입상과 삼미시장 캐릭터 우드아트를 제작하여 홍보작업을 해나갔다. 10월부터는 시니어 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학습을 진행하였고, 대야초등학교 3학년들과 소래산을 함께 오르며 해설을 하게 되었다. 정신없이 바빴던 10월을 보내고 11월이 되어서야 드디어 학습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서로를 격려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2018년을 정리하며 그동안 주민해설사가 해왔던 일들을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 자축하는 자리를 가져보는 것이 어떠한 의견이 나왔고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으며 12월 7일 활동 공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처음 공유회를 준비하다보니 이것저것 신경 쓰이는 게 많았고 특히 초대장만큼은 직접 만들어서 보내는 게 좋겠

다는 의견이 모여져서 오랜시간을 투자해서 핸드메이드로 초대장을 완성했다. 신천 동장님을 비롯한 신천동 유관단체장들, 시의원, 관내 교장선생님과 학부모회 회장님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신천동 주민해설사를 위해 특강까지 해주신 시흥문화원 원장님께도 초대장을 발송했다. 행사 당일 연말에 각자 일정이 바쁘신 분들이라 초대한 인원보다는 조금 적은 인원이 참석하셨다. 식전공연으로 오카리나, 우쿨렐레 연주가 있었고 주민해설사 경과보고, 활동 동영상 상영, 간단한 퀴즈, 하연선생전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분들과 얼굴배지 만들기도 하고 간단한 경품추첨도 있었다.

지금 현재 신천동 주민해설사는 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 회비로 식대를 충당하고 각자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을 쪼개가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주 금요일 10시가 되면 우리는 주민센터 2층 회의실로 모인다. 화려하지 않아도 거창하지 않아도 해설이 잡히면 시나리오 작업부터 준비물체크, 해설 동선 등을 준비하고, 특별한 일정이 없을 때는 간단히 회의를 하고 신천동 행사의 부스운영을 준비하면서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흘러갔다.

신천동에는 내가 좋아하는 소래산이 있다. 먹을거리가 가득한 삼미시장도 있다. 재미있는 전설을 가진 하연선생 묘와 소산서원도 있고 소래포구까지 연결되는 뱀내도 흐르고 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 신천동 주민해설사들이 있다. 그들은 이번 주 금요일 10시에도 신천동 주민센터에 모여서 신천동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소담소담 군자 옛이야기

| 허정임 |

인류의 역사는 다양한 형태의 흔적에서 드러난다. 유물, 화석, 사진, 벽화, 글 등등 살아보지 않은 그 시대의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기록'이다. 지금이 중요하다하지만 역사의 존재가 있기에 '지금의 가치가 있는 것이며 또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래서 기록가들은 아주 사소한 하나의 흐름이라도 기록하기 위해 발품을 팔고, 들으며, 기록하고, 또 보관한다.

기록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으나 기록을 하고자 하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왜 그럴까? 힘들어서? 돈이 안돼서? 생색내기가 되지 않아서? 맞다. 기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흔히 접하는 SNS에 올려지는 글과 사진들도 기록의 한 부분이기도 하겠으나 큰 흐름의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와 가치부여의 기록물이 되기에 아무나 덤벼들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미쳐야한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닌 것처럼 기록화작업이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뜻 있는 자들에 의해 시흥의 기록물은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훗날 시흥 역사의 한 기록물로 귀한 대접을 받을 것이라 믿는다. 지금 우리가 역사의 기록 한 줄, 사진 한 장에 목말라하고 있는 것처럼, 시흥은 권역별로 각기 다른 성향의 마을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고유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꼬집어내어 기록화 할 것인가 하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1914년 시흥군 군자면 시절부터 숨 가쁜 변화

를 겪고 있는 시흥은 1989년 시흥시로 승격되면서 2018년인 지금까지도 격동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불과 30여 년 전의 모습과 지금이 과거와 현재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달라져 시흥의 풍경은 역사라는 이름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그 흐름 속에 군자동은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시흥 100년의 뿌리로 군자답게 시흥의 든든한 중심이 되어주고 있다.

군자동이 왜 시흥 100년의 뿌리라고 일컫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2016년 '군자동지'를 발간했다. 매우 훌륭한 기록물이 지역구 의원과 시흥문화원의 일치된 가치매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군자의 역사가 학술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소소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도 작게나마 담았다. 군자동의 깊은 역사를 알기 위해 읽으면 좋을 책이다. 그런데 학술적으로 만들어진 군자동지는 연구용으로는 좋으나 일반 주민들이 읽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평이 있었다. 그래서 군자동지를 만들기 위해 예산 책정을 해 준 장재철 전 시의원은 이번에는 주민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군자이야기책을 만들고 싶어 했다.

애초의 주문은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만화로 제작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만화책으로 만들어내기에는 답아야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 무리가 있겠다 싶었다. 만화 대신 삽화를 넣자는 제안을 하고, 군자면의 기록사진과 현재의 사진을



비교하는 쪽지와 군자면민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더 많이 넣자고 설득했다.

군자동 토박이인 장재철 전 시의원의 군지역사 바로 알기와 군자사랑은 지역 내에서도 유명해서 군자의 이야기가 많이 실리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예산이 책정되고 바로 팀을 구성했다. 장재철 시의원을 비롯한 3명의 필진, 1명의 녹취기록가, 인물사진작가, 풍경사진작가, 화가, 시인, 운문, 자문위원, 영상, 드론, 디자인편집, 관계공무원 19명의 제작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소담소담 군자 옛이야기」를 완성해내었다. 그리고 도일장년 회모임 포함한 20인의 인터뷰와 30쪽지의 이야기, 군자역사기록사진, 군자초 역사, 군자생활문화 등을 담았다. '소담소담 군자 옛 이야기' 제목도 제작팀들이 공모하여 가장 투표수가 많은 것으로 정한 것이다.

소담소담 군자 옛 이야기는 시흥군 군자면 시절, 그 시대를 살았던 이들의 평범한 이야기다. 긴긴 겨울밤, 방 안 화롯가 앞에 웅기종기 모여 앉은 손주들에게 “옛날 옛날에...”하며 운을 띄우며 시작되는 할머니의 구수한 옛날이야기처럼 소담스런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군자면민들을 찾았다.

군자마을을 돌아보고 지역의 큰 어른인 이형수 면장님(군자면 마지막 면장이자 군자동 초대동장)에게 군자의 역사를 배우며 지식을 쌓고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군자이야기 책을 만들어나갔다.

군자동 토박이들의 공통된 기억 속에서 그 시절을 살아 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 마을의 풍경, 역사적 사실, 이웃사람, 도일시장, 코흘리개 시절의 에피소드 등을 들으며 이야기의 분류와 이야기를 해 줄 인터뷰 자들을 선정하는데는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되었다. ‘과거를 먹으며 지금을 사는 인생 후반길’에 들어섰기에 그때의 이야기는 해도 해도 질리지 않는 그들만의 추억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어깨가 스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꿩장했던’ 도일 5일장, 그 안에서 뛰어놀던 아이들, 노천극장의 추억과 황해옥에서 짜장면 먹던 어린 시절, 또 고된 염전 일을 마치고 막걸리 한잔 하던 염부 사람들, 군자염전을 누비던 가시명차 운전수,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을 외치며 ‘벼슬이 뭐가 중요해?’

못생긴 소나무가 산을 지키는 거야 봐! 나 하나 남았잖아!라고 자랑스럽게 외쳐대는 청주한씨의 후손 한상소 통장,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100여년 된 새미마을의 초가지붕 아래서 홀로 살고 있는 양태환씨, 미군부대 주둔으로 서양문물을 접하며 살던 새미마을 사람들 이야기, 풍수지리학자로 유명했던 지창용씨의 흔적과 그의 집 앞 마당에 있던 지식묘를 산들공원으로 이전 시킨 기록들, 구준물, 아홉 개의 우물 중 하나 남은 우물이 아직도 산에서 흘러 내려와 이를 보존하기 위해 작은 연못을 만든 난곡재의 우물, 죽률리 출신 독립운동가인 김천복의 직계 후손인 김화진씨의 한 많은 유공자 가족의 눈

물, 군자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과 함께 한 역대 동장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공통된 것은 ‘군자동사람’이라는 자부심과 ‘군자동의 깊은 정’을 그리워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시흥 문화의 바람을 일으킨 군자동 산들공원과 곧 사라져 갈 새미마을, 시흥의 명산 군자봉, 옥녀봉, 그리고 도농 복합지역인 군자마을 등을 드론으로 찍어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런 모든 제작과정은 시민 VJ가 영상으로 남겨 영상기록물로 남겼다.

군자라는 지명의 유래에서도 보듯이 군자라는 이름은 오래 전부터 불리어왔다. 행정명의 변동으로 군자면이 군자동으로 바뀌고 군자면에 속했던 것들이 독립된 동으로 각각 분리되면서 군자동은 본가로서의 위엄은 있되 종가로서의 쓸쓸함을 동시에 안게 되었다. 군자권이 아닌 정왕권이라 불리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그래서 더욱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묻힐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어 기록화하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군자면민들은 그렇게 시흥 10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시흥 미래 100년을 그려가고 있다.

기록은 기록하는 자의 몫이다. 그러나 왜곡된 역사의 기록은 혼란과 오류를 가져다준다. 공신력 있는 기록이 없을 경우, 여러 사람의 일치된 기억으로 증언한 구술에 대한 사실을 판단하여 인정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그런데 그 일치된 기억에 의한 구술 증언도 기록화 작업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 예를 들자면 ‘도일시장 개장시기’였다. 필자가 군자동행정복지센터에 마을계획가로 첫 출근을 했을 때 센터 안 벽에 붙어있던 도일시장의 역사 개요를 읽게 되었다. 도일시장은 1953년에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1959년에 만들어졌



다고 써있었다. 정정해서 바로잡았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했다. 1959년, 1953년 두 개의 연도가 기사화 되어있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발췌문을 사전 검열 없이 기사화하는 언론도 문제지만 잘못된 정보를 인터뷰하는 것도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대표적 사례였다. 보다 확실한 바른 검증을 위해 그 당시 군자면민들을 다시 찾아다녔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된 기억의 구술 증언을 확보하여 1953년이라 확신했다. 그런데 모 언론사에서 도일시장을 취재하면서 ‘1959년에 형성된...’이라고 표기를 한 것이다. 바로 정정요구를 하였으나 구술에 의한 증언은 신뢰할 수 없으며, 활자로 기록된 것이 있기에 그것에 따라 기재한 것이므로 정정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 바로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해당 언론사가 발췌했다는 1959년이라 표기된 기록물에는 같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장에서 두 개의 연도가 기재되어 있었다. 시흥문화원을 찾아갔다. 1953년 8월 29일자 경향신문에 군자시장 개장기사가 실린 기록을 찾아냈다. 당시 장순봉 면장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오일장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는 기사 내용이었다. 군자시장이라는 이름은 사진에서도 나타나 있다. 해당 언론사는 바로 정정 보도를 내

었고 1959년이라고 주장하던 이들도 1953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2018년 1월 9일, 도일시장은 시흥에서 가장 오래된 65년 전통의 재래시장으로 전통시장 등록에 이르게 되었다. 이 건으로 인해서 기록의 신뢰성은 어디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지 느끼게 되었고,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점점 사라져가는 마을, 마을을 떠나고 또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는 사이 잊혀져가는 우리 삶의 역사.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세상에 묻혀 우리가 있고 사는 건 무엇인지 한번쯤은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모든 기록의 중심에는 생명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존귀한 '사람'이 있다. 사람으로 인해 존재하는 역사, 기록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리하는 의미가 있지만, 가치는 결국 사람과 삶에 있지 않을까? 사람들의 가치를 담기 위해 소담소담

군자 옛 이야기가 집필되었고 1년여 만에 완성되었다. 이 책은 많은 군자주민들에게 읽히게 하기 위해 2000부가 발행됐다.

“그래, 그때 그랬어.”라는 공감과 “그땐 이랬구나”하는 반응이 나와 준다면 책을 만든 뿌듯함이 생길 것 같다. 그것은 한 시대를 함께 산 사람들의 기억이 살아있음이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와 다른 삶이 존재했었던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이랄까.

지난 12월 6일에 있었던 소담소담 군자 옛 이야기 출판기념회에는 기록의 중요성을 아는 이들, 소수만 초청하여 개최하였다. 소소하지만 감동이 있는 출판기념회였다는 평을 받으며, 출판기념회 이후 시흥군 죽물리 출신의 김천복 독립지사의 조카인 김윤진님의 소감문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려한다. 그리고 165쪽에 다 담아내지 못한 더 많은 이야기들에 아쉬움을 남겨둔다.



소담소담 군자 옛 이야기 독후감

먼저 소담소담 군자 옛 이야기 출판기념회에 초대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김천복 독립운동가의 지면을 많이 할애하여 주시고 독립운동가의 독립운동 실상을 소상하게 기술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왜 소담소담일까 약간의 의문도 생겼으나 책을 다 읽고 나서야 의문이 풀렸으며 책의 주제를 잘 선정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자동을 중심으로 변천의 역사인 생활의 역사, 삶의 역사 등을 지역 발전의 선구자들로부터 지나 온 옛 이야기를 가감 없이 소상하게 털어놓는 재미있고도 우스운(소담) 이야기를 그저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사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책에서 특별히 관심이 가는 분은 군자면장과 초대동장을 역임하신 이형수님의 지역의 역사적인 문헌들을 찾아내신 공이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시절 군자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여 배움의 길을 열어준 최극렬 선생이 돋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군자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의 애환이 담긴 이야기들에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발간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군자동의 지원과 여러 집필진의 노고 없이는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동 단위의 유익한 산 역사를 창출해 냈다는 위대한 정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8. 12. 7. 죽물동 출신 김윤진 드림

꿈은 열 두 줄 선율을 타고 온다

| 장유경 |

방과후 학교에서 가야금을 만난다

일상에서 '문화생활'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까운 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보거나, 취미 생활로 악기 연주나 그림 그리기를 배울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 주체가 초등학생이라면 필수 코스처럼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방과후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과목들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야금을 문화생활로 접하는 것은 일상에서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다. 특히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가야금 연주와 소리는 전통문화로서 멀게만 느껴질 것이다.

장곡동 진말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어떨까? 아이들이 방과후 수업 목록에서 처음 가야금을 보았을 때는 호기심에 관심을 보인다.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니지 않은가. 그러나 이제는 가야금을 들고 한복 자락을 휘날리는 친구들의 모습이 익숙한 풍경이다. 크고 작은 학교 행사에서 가야금 공연은 필수이다. 장기자랑 시간에 우쿨렐레나 피아노를 연주하듯 가야금 연주도 아이들의 문화생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승승장구의 비결은 뭘까

진말초등학교 가야금부는 특성화 교육으로부터 시작해 지금은 방과후 교실로 이어져 오고 있다. 방과후 수업이기에 어른들도 평생 한번 접해보기 힘든 전통악기를 늘 가까이에 두고 있을 수 있다.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꿈꾸기란 쉽지 않은 법이다. 가야금을 접하고 숨어있는 재능을 발견한 아이들에게 연습은 즐겁고 무대는 설렌다. 훌륭한 선례를 보여준 선배들 덕분에 동아리에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도 꾸준히 있었다. 선배들이 졸업한 후에도 따라와 주는 후배들이 있어 오랜 기간 가야금 명문으로서의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다.

현재는 일주일에 두 번 방과후 교실에서 가야금 산조와 병창을 연습한다. 다른 학원에 가는 시간에 비하면 아주 많은 시간을 연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야금이 좋아 모인 아이들의 실력은 일취월장을 거듭해 자부심을 가지기에 부족함이 없다. 학교 방과후 활동으로 지원을 받다보니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그저 특별한 경험 삼아 시작했다가 가야금에 푹 빠진 아이들 덕분에 학부모들이 분주할 뿐이다.

아이들이 취미생활처럼 부담 없이 즐기기 때문일까. 진말초등학교 가야금부는 대회에 나가서 언제나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돌아오기로 유명하다. 올해만 해도 2018년 시흥시 청소년종합예술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시흥시 대표로 제26회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가야금 병창)에 참가하여 성악독창, 기악독주 부문에서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그 뿐 아니라 대한민국 어린이 국악큰잔치, 제15회 대한민국 가야금 병창 대제전에서도 많은 상들을 수상해 가야금 명문 동아리로 명성을 떨쳤다.

비단 대회뿐만이 아니다. 다양한 행사에 찬조 공연도 열심히 참가했다. 본교 축제를 비롯해 장곡동 노루마루축제, 인선왕후축제, 시흥시 국악협회 정기공연, 시흥시 청소년국악한마당 등 다양한 무대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했다. 고운 한복을 맞춰 입고 가야금을 타는 아이들은 어디서나 환영받았다.

보통 대회를 나가면 경연 시간 보다는 대기하는 시간이 훨씬 길기 마련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생각보다 침착하다고 한다. 그저 무대를 즐기고, 가야금을 타는 순간만큼은 긴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기에 결과도 좋다. 오랜 시간 같이 연습하고 유대감을 쌓은 아이들은 친구들을 챙기고, 아직 어리지만 진로도 함께 고민해준다. 평생토록 함께 하고 싶은 친구이자 경쟁자로 서로를 격려하고 아낀다. 상을 받는 것도 좋고 관중의 박수를 받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그렇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무엇보다 큰 것이다. 요즘 아이들에게 전보다 일찍 찾아오는 사춘기도 한결 수월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인성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내년엔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진학하는 설서연 학생의 초등학교 생활도 내내 가야금과 함께였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야금이 더 좋아졌고, 덕분에 누구보다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장래 희망을 묻자 “초심을 잃지 않는 국악인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동경하



는 선배들을 따라 꿈을 향해 한발 먼저 나아가는 모습이 대견하고 아름다웠다.

호기심이 꿈이 되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교라도 막상 우리 동네 학교면 그 유명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진말초등학교 가야금부도 일반 학부모들에겐 방과 후 교실의 연장으로 느껴질 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의 꿈을 향해 일찌감치 진로를 결정한 아이들의 이야기는 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진말초 출신으로 국립예술고등학교나 예술중학교 등으로 진학한 졸업생이나 국악 관련 선생님이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예다.

가야금부의 어린 후배들은 그런 선배들을 보며 꿈을 키워간다. 꼭 진로만을 위해서는 아니다. 그 아이들이 자신의 흥미를 통해 재능을 발견하고 나아가 인생의 큰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저 남다른 취미로 남아도 즐거운 건 물론이다.

작은 호기심이 큰 꿈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에서 배운 전통 악기 하나가 꿈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전통 공연도 영화나 대중 가수 콘서트처럼 일상적인 문화생활이 되기를. 그래서 가야금을 타는 아이들의 무대가 더 많아진다면 그 아이들의 행복한 꿈도 더 큰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이다.



중국산동성 유가문화답사

| 김충기 |

지난 8월 12일부터 8월 15일까지 시흥문화원에서 주최한 산동성 유가문화답사에 동행하였다. 인류문명 4대 발상지 중의 하나인 중국 황하문명과 함께 2500여년 유구하게 이어져 온 유학의 본향인 산동성 일대를 돌아보며, 공·맹의 사상과 그 발자취를 쫓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출발부터 무척 가슴 설레었다. 또한 이번 행사일정의 가장 큰 의의 중 하나는 시흥문화원과 중국 산동성 사회과학원간에 문화학술교류 협의서를 원만히 체결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었다. 이번 문화학술교류협의회 행사에 참여하는 우리 측 일행은 정원철 문화원장님과 전남훈 부원장, 김영기 부원장, 채형석 이사를 비롯한 유학연구회 회원들과 월곶 문학회의 몇 분이 동행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산동성과의 문화교류협약서 MOU체결을 비롯하여 공자와 맹자, 제자백가 등 중국유가문화답사에 한국효문화진흥센터의 김덕균 박사가 동행하여 도움을 주셨다.



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공자의 고향이며 유학의 본향답게 전체적으로 도심 곳곳에 옛 중화문명의 정취가 차분히 배어있음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1DAY
첫째 날

서울의 찌는 듯한 삼복더위를 뒤로 하고 한 시간 반의 짧은 비행으로 우리 일행은 산동성의 수도 제남시에 도착했다. 중국 22개성과 5개 자치구를 합한 27개의 성중에서 하남성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산동성은 인구 9850만 명으로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많고 면적은 남한의 약 1.5배이며, 기후는 우리나라와 매우 흡사하다. 산동성사회과학원이 위치한 제남시는 중국 전체 성중에서 GDP 2위를 자랑하는 산동성의 수도로서 곳곳에서 ‘중화굴기(中華崛起)’ 경제개

입국수속을 마치고 제남공항을 나와 대기하고 있던 버스로 이동하여, 산동성사회과학원에 도착하였다. 휴일인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청사 1층에서 기다리고 있던 산동성사회과학원 고위 관리들의 환대를 받으며 대회의실에 들어가 본격적인 양국 간 회의를 시작하였다. 사회과학원 총책임자인 손취우 주임의 인사와 사회과학원 참석 간부들의 소개에 이어서 정원철 시흥문화원장의 인사와 한국 측 참석인사의 소개를 마친 후, 산동성 사회과학원과 시흥문화원간의 학술문화교류협약서 체결의 의의와 발전 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었다. 향후 지속적이고 활발한 학술교류 및 문화 활동과 정보교환을 촉진

하는 내용의 국제유학연구소와의 문화학술교류 협의서에 서명하고, 협의서를 상호 교환하였다.

시흥문화원은 지난 해, 중국 귀주성 '귀양학원 양명학 및 검학 연구원'과 학술문화교류를 체결한 바 있다. 이후 두 번의 하곡학 국제 학술대회를 치루면서 귀양학원의 학자를 초청하여 심포지엄을 열어 공동 발전을 꾀하였는데, 이번에 산둥성 사회과학원과 또 학술문화교류를 체결하였다. 정원철 문화원장은 귀주성과의 학술문화교류는 양명학의 발상지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한다. 왕수인이 귀주성 용장오도(龍場悟道)의 깨달음으로 양명학을 일구었듯이, 정제두가 시흥시에서 학변(學辨)과 존언(存言)을 저술한 것은 한국양명학의 발상지라는 의의를 지니며, 그러한 면에서 두 지역이 양명학의 공동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한다.

금번 산둥성 사회과학원과 학술교류는 산둥성이 공·맹 시원유학의 발상지이자, 중국에서의 유학연구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흥시와 한국에서 유학에 활기를 불어 넣는데 도움이 클 것이라고 한다. 유학을 생활 속에서 새롭게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시흥시와 산둥성 사회과학원 '국제유학연구와 교류센터'와의 학술교류는 '철학하는 도시, 시흥'을 일으키는데 유학의 현대적, 그리고 국제적 교류의 근원이 될 것이다. 유학의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양명학적 방법을 엮고, 다시금 현대의 제철학과의 상호 소통은 시흥문화원이 추구하는 지역문화창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화교류협약 체결을 마치고 사회과학원 주임과 간부의 환송을 받으며 우리 일행은 곡부로 출발하였다. 버스는 공자의 고향 곡부를 향하여 2시간여를 달리니 어느덧 해는 저물었고, 일행은 태산기슭의 태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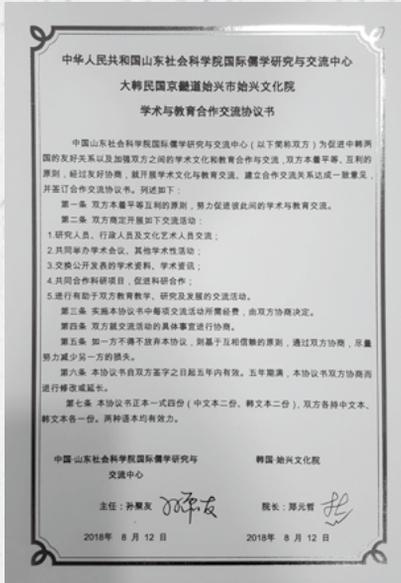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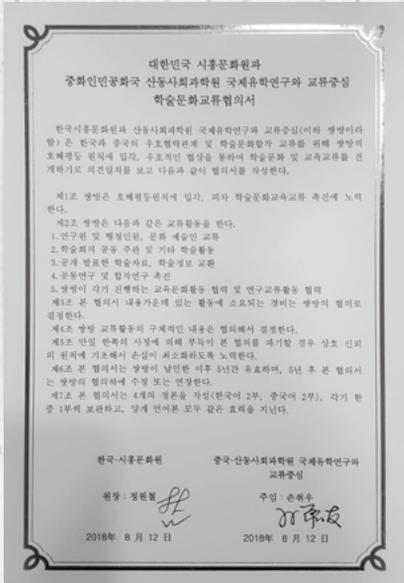


보성호텔에 첫날 여장을 풀었다.



날씨는 아침부터 많이 흐리고 금새 소나기라도 한바탕 퍼부을 듯하다. 태안시에는 중국 5대 약산 중 으뜸인 동악의 태산(1545m)이 있는데, 산 정상에는 공자사당과 중국 역대황제들이 하늘에 제사지내는 대묘가 있다. 태산의 대묘는 북경 자금성과 곡부의 대성전과 더불어 중국고대 3대 건축물로도 유명하다. 태산으로 오르는 여정의 절반은 케이블카 신세를 지긴 했지만, 태산 정상에 오르고 보니 “태산에 오르니 천하가 작아 보인다”는 공자님 말씀이 한 나그네의 마음에 와 닿는다. 그 숨결을 느껴지는 듯하여 감개무량하다. 중국인에게 태산은 도교의 성지로 알려져 있다. 지명을 붙인 것이 모두 옥황상제가 있는 도교의 지명으로 곳곳에 붙어 있고, 도교의 승려들이 절을 지키고 있었다.

태산을 뒤로하고 우리 일행은 남쪽으로 2시간여 버스를 달렸다. 중도에 점심으로 중국 만두와 국수를 여러 종류대로 시켜 나눠서 먹어보았는데 음식들 맛도 무척 다양했고 식당도 깨끗하였다. 종업원들도 통상의 관광지에 비해 제법 친절하여서 중국식당들이 청결하게 많이 개선되



두 하곡 정제두 선생님의 치양지설(致良知說), 지행합일의 사상에 정신적 일체감을 더하여 벽찬 감동마저 느낄 수 있었다. 정원철 문화원장과 김덕근 교수가 여행을 기획한 목적이 산동성 사회과학원과 학술문화교류 협의서 교환과 더불어, 유학의 본고장 산동성 곡부에 왕양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느새 공자의 고향 곡부에 도착하였다. 먼저 공자에게 제사를 올리는 공묘에 입성하였는데, 공묘는 그 규모가 남북으로 1km, 약22만평의 넓이다. 공자 사후에 당·송 양 대에 걸쳐 증, 개축을 여러 번 하였다. 현 건물은 명·청시대의 것으로, 아름답리 향나무의 600여년 용터울림은 세속의 무상함과 속절없음을 일깨워준다.

만인궁장, 금성옥진방, 영성문, 성시문, 호도문, 동문문, 규문각 등의 고대건물들을 차례로 거치고 드디어 공자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을 만난다. 중앙에 마주한 대성지성 공자와 그 좌우로 4대성현인 복성 안연, 술성 자사, 종성 증자, 그리고 아성 맹자는 그 위패와 더불어 성화로 모셔져 있다. 이번 공모답사에서 놀라웠던 것은 대성전 동·서쪽에 선현 선유 134명의 위패를 모신 양무 건물이 있었는데 평소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전혀 미치지 않는 그 건물에서 양명학의 체계를 세운신 양명 왕수인의 위패를 발견한 것이다. 그 순간 일행 모두는 한국양명학의 태

명이 공자를 모신 대성전에 함께 배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자 함이었다고 한다. 조선과 중국이 공맹의 유학을 추구하면서도 같은 유학의 사상을 경배하였지만, 조선이 성리학 일변도로 지속하여 경직된 문화가 쇠국으로 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 든다. 공모에서는 마지막으로 진시항의 분서갱유에서 공자후손이 벽에 유학서적들을 감춰 화를 면했다는 ‘노벽(魯壁)’ 비를 눈에 담았다. 공모를 나서는 것이 아쉬웠다. 오후부터 곡부에는 계속 비가 내리지만 예상했던 태풍의 영향은 미미하다. 북상하던 태풍 ‘야기’가 상해를 거쳐 올라오는 동안 소태풍으로 바뀌고 위력도 거의 소멸된 듯하다. 그 덕분에 비는 내리고 있지만 바람도 견딜 만하고 다행히 빗줄기도 점점 잦아들고 있다.

공묘 옆 역대 공자 후손들이 모여 살던 저택과 관공서가 있던 공부로 들어가니 그 넓이가 18만평에 청조시대에 지은 그 건물 방의 개수만 436개라 한다. 그 규모가 대강 짐작이 되면서 오후 5시가 넘으면 입장을 못한다고 하니 서

둘러 공림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둘러 보았다. 공자와 공자후손들만의 묘지로 조성된 공림은 그 규모가 200만평이니 가히 세계최대의 가족묘이다. 전기차를 타고 20여 분간 계속 숲 속묘지를 달려가고 있는데, 비는 죽죽 내리고, 어둠이 어슴푸레 깔리기 시작하고, 공동묘지 한 가운데를 헤쳐 나가는데... 이상하게도 누구하나 두려움이 없다. 드디어 공자의 묘에 도착하였다. 일행은 대성지성 공자의 묘에서 일동 묵념의 예를 올린 후 아쉬운 발길을 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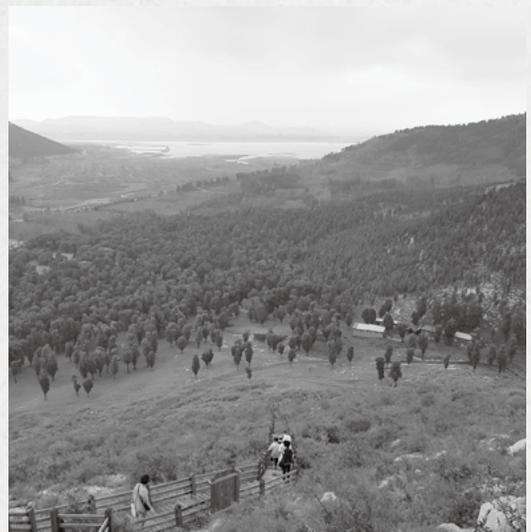


밤새 내리던 빗줄기는 새벽이 되자 푹 그치고 호텔을 나설 때엔 청량한 바람마저 불기 시작한다. 공자 출생지인 '니산'의 사당이 9시 되어서야 개장한다 하여 출발을 30분 늦추기로 했다. 전날 곡부에서 걸음을 많이 한 탓에 모두들 지쳐보였는데, 나부터 '오히려 다행이다' 싶다.

곡부에서 동쪽으로 약30km, 버스로 40여분 달려가니 공자의 출생지인 '尼山', '부자동'에 이르렀다. 니산서원과 관천정, 부자상을 둘러보고 공자가 어린 시절 뛰어다니며 올랐을 그 '니산'에 일행 모두가 함께 올랐다. 니산을 오르며 가쁜 숨을 몰아 내릴 때, 2500년 전 당시에도 '니산'을 올랐을 공자의 숨결을 생각하였다. 공자가 오르던 산을 뒤이어 오르는 후손의 땀과 숨결은 역사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공자의 눈으로 이 시대를 더불어 살펴보고자 하는 의지로 발동하였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이는 드넓은 평야와, 그 너머 호수로 변해버린 니산천을 공자의 시선으로 한참을 내려다보며 앉아 있었다. 공자 어머니의 기도처인 부자동(夫子洞)을 마지막으로 '니산'을 뒤로하고 아성 맹자를 만나러 추성

으로 향하였다. 곡부 남쪽에 위치한 맹묘, 맹부, 맹림을 돌아보면서 짧지만 강렬한 제남 곡부 니산 일정을 마쳤다.

현대의 복잡다단한 물질문명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문화적 결핍과 정신적 공백을 유교문화가 현대인들의 마음을 정신적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위해 이번에 유교의 본향인 중국산동성 사회과학원과 시흥문화원간의 문화학술교류협약서 체결은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인간의 평등과 직업의 소명의식을 일깨우고 치양지설과 지행합일을 일찍이 주창한 한국양명학의 태두이신 하곡 정제두선생의 사상과 학문을 현대에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우리 시흥문화원과 함께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의 계기가 된 것이 이번 문화답사에서 얻은 또 다른 의미요 큰 수확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2500년 전 시간여행을 하며 공자, 맹자님을 만나고 그림턴 집으로 들어서니 아직도 뒤뜰 숲속은 무덥기만 하고, 옛그제 그 매미울음도 여전하니 가히 한 여름 밤의 꿈을 꾸 듯하다.





사랑이 담긴 글의 향기,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오다

| 류홍숙 |

차마 말로 다 전하지 못한 마음을 글로 전한다는 것은 진정 행복한 일이다.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 사랑의 선물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에 무한한 감동으로 다가가기 때문이다.

시흥문화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제1회 사랑의 선물 편지글 공모전이 올해에 있었다. 2018년 5월 14일~5월 31일까지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마음을 전하는 편지글을 이메일이나 내원 및 우편접수로 받았다. 그러자 아름답고 가슴을 울리는 많은 편지글들이 우수수 쏟아졌다.

이번 편지글 공모는 과거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내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 고마운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주제였다. 애절하고 진심어린 마음들이 가득 담긴 사랑의 편지글이었다. 내가 느끼기에 사연마다 전해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애뜻한 마음이 들어있었다. 딸이 아버지께, 부모님께 그리고 엄마가 딸에게, 다섯 살 아이에게, 아기에게, 군대 간 아들이 부모님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마음을 전하는 대상도 다양했다. 특히 글마다 보내는 사람의 애절하고 진심어린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사랑의 선물 편지글 공모전 시상식이 2018년 8월 17일(금)에 있었다. 금상으로 정미숙의 <그리운 아버지>, 은상으로 현진의 <자랑스러운 나의 부모님께>, 동상으로 정경희의 <경희에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특별상으로는 정은미의 <딸 수민이에게>, 엄마가 아이에게 쓴 <다섯 짝, 연우에게>가 수상했고 장려상으로는 박은현의 <내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 청원이의 <사랑하는 부모님께> 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글들마다 사람의 진심이 들어있기에 사랑의 생명력을 불러일으켰다. 진심 어린 마음들은 더욱 빛을 발산했다. 차마 말로 다 전하지 못한 마음을 글로 쓴다는 것은 보내는 사람의 아름다운 용기가 담겨져 있는 듯 했다.

금상을 수상한 <그리운 아버지> 편지글은 아버지에게 딸이 말하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애뜻한 마음이 묻어나 있었다. 힘들게 살아온 아버지의 삶을 자식의 눈으로 따뜻하게 바라보며 아버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절절하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은상을 수상한 <자랑스러운 나의 부모님께> 편지



글은 용기를 내어 마음을 전하는 딸에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이 편지를 받은 부모님은 딸의 마음을 알고 얼마나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을까? 동상을 수상한 <경희에게> 편지글은 자신이 자신에게 쓰는 편지글이다. 속으로 꺾꺾 눌렀던 자신의 아팠던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온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편지글로 솔직하게 담았다. 또 특별상을 수상한 편지글은 엄마가 청소년인 딸에게 보내는 편지와 엄마가 다섯 살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엄마가 딸에게 하지 못했던 미안한 말들과 다섯 살 아이의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 들어있었다. 이 편지글은 아이를 가진 엄마로 내 마음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게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장려상을 수상한 편지글에는 엄마가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글과 군대를 간 대학생 아들이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글이었다. 아이에게 더욱 잘해주고 싶은데 부족했던 엄마의 미안한 마음이다. 아이를 키운 부모라면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그리고 20대 청년이 군대에서 부모님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아들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

이런 편지글들은 잔잔한 미소를 짓게 만드는 아름다운 글들이다. 사람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마음을 꺼내는 사랑의 표현이다. 편지글마다 사랑이 담긴 진솔한 마음의 표현! 낯을 잃고 빠져들게 만들었다. 잔잔한 감동으로 밀려왔다. 읽는 이에게 크나큰 감동을 주었다. 읽는 이의 마음으로 살포시 날아들었다.

편지글 문구 하나하나에는 특별하고 아름다운 날갯짓이 들어있다. 갓 깨어난 나비의 날갯짓처럼 처음에는 서툴게 다가가는 마음이었지만 용기 있는 날갯짓으로 글마다 진정성이 가득 느껴졌다. 하나의 편지글이 완성되었을 때는 큰 감동으로 와 닿았다. 글에 담기고자 했던 보내는 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절절하게 느껴지는 진솔한 마음이 담긴 편지글! 살아가는 우리에게 크나큰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준다. 삭막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게 만든다. 글을 읽는 매순간마다 느꼈던 편지글의 감동은 다시 글속으로 담겨지는 듯 했다. 사랑이 담긴 글의 향기,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왔다.

제2회 연성음풍 시회를 개최하고

| 정원철 |

지난 해에 제1회 연성음풍 시회(詩會)를 개최하고, 연꽃을 소재로 한 좋은 시를 기증받았지만, 차년의 2회 개최를 약속하지는 못했다. 연꽃을 소재로 한 시회를 매년 개최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이 서지 않은 때문이었다. 물론 그러한 고민의 근저에는 예산확보가 안 된 사업인 것도 있다. 2018년 들어서 <글 쓰는 시흥시> 운동을 전개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니, 연꽃 외에도 대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시흥시 유적을 돌아가며 초대하여 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그 곳의 하나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이다. 국가 사적 441호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려니와, 시흥의 바닷가 문화를 살필 수 있는 곳이다. 마침 금년 초에 공원 개장식을 하였기에 시회(詩會)를 갖기에 적절하다 생각하였다.

제1회 시회(詩會)는 연꽃이 유래한 관곡지에서 (사)한국시조협회 이석규 이사장과 임원을 초청하여 시행하였는데, 예상보다 좋은 시를 기증받았다. 수십 년 문필 활동을 한 시인이기에 시흥의 연꽃에 관한 좋은 시(詩)를 써 주어 금년 연성문화제와 겸한 제3회 연성음풍 전시회에 족자로 만들어 10점을 전시하였었다. 의외로 전시회를 다녀간 시민의 격려와 칭찬이 적지 않았다. 숙고 끝에 2회 역시 한국 전통문화의 자랑인 시조시 형식으로 정하고,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시조시인을 초청하기로 하였다. 시조시인 140여 명에게 우편을 보내 시회(詩會) 개최를 알리고,

직접 참가 신청을 받았다. 시흥의 자연경관과 문화를 소재로 한 시창작은 내외로 시흥시의 문화를 알리기에 좋다고 관계자들도 입을 모은다.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측에서도 적극 협조하였다.

10월30일 오전 10시에 오이도 유적공원 선사 공원 내 움집 모형의 교육장에서 제2회 연성음풍 시회를 개최하였다. 시흥시 문인협회 초철형 회장이 축하차 참석하였다. 초청에 응한 신청자들이 속속 도착하였다. 도내 곳곳에서 22명의 시조시인이 참석하였다. 포천, 동두천, 의정부, 성남, 광주, 수원, 광명, 안양, 김포, 고양 등지에서 찾아오셨다. 시흥문화자원봉사단이 오이도 역에 도착한 시인을 선사유적공원으로 이동하는 교통봉사를 하였다. 꽤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인원 모두가 모였다. 시회는 식전 공연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식전 공연으로 경기민요를 듣고, 문화원장의 인사와, 시흥문인협회장의 환영사, 고두석 전 한국시조시인협회 사무총장의 답사로 진행하였다. 고두석 시인께선 80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한시 7언 율시로 축시를 지어 오시어 창으로 직접 불러 격려하셨다. 또한 축하 공연으로 시흥의 박일엽 시인이 시조창을 한 수 부르는 등, 시회라는 흔치 않은 모임이며, 처음 만나는 시인들이었지만 화기애애하게 개회식을 마쳤다. 시조시인이시면서 전 광주문화원 남재호 원장께서 참석하여 축사를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사모님이 편찮아서 참석을 못하시어

안타까웠지만 그 외에는 예정대로 진행하였다.

개회식을 마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로 갈대숲을 지나 언덕 위의 패총 전시관을 둘러 오이도 유적 탐방에 나섰다. 두 팀으로 나누었는데, 한 팀은 패총 전시관에서 황새바위를 거쳐 빨강등대로 가고, 다른 한 팀은 오이도 선상공원을 거쳐 빨강등대를 향하였다. 대부분의 시인은 도보로 황새바위 코스로 갔고, 거동이 불편한 몇 시인만이 승용차를 타고 선상공원으로 향했다. 시인들은 신석기 수렵문화의 현장을 직접 보고 해설사에게 오이도의 역사와 문화를 들으며 탐방을 하였다. 목적지는 빨강등대였다. 12시가 되자 빨강등대 앞 여수횃집에서 점심을 하였다. 시흥시를 찾아준 시인에게 주최 측이 준비한 것은 점심 식사 대접뿐이어서, 충분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답사를 하고 메뉴에 신경 썼다. 모두들 맛있게 식사를 한다. 빨강등대가 바로 코앞에 보이고, 물길 건너 송도 신도시와 대부도가 멀리 보이는 2층의 창 넓은 횃집에서의 식사는 모두의 마음을 탁 트이게 하였다. 몇 시인이 보기 드문 대접을 받았다는 인사를 한다. 시흥시를 방문하여 시를 한 수 써 기증하는데, 작품료도 드리지 못하는 마음이 미안하기 그지없다. 내년에는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보아야겠다. 식사를 마치자 자유시간에 몇몇은 방파제와 선착장으로 넘어갔다. 오이도의 바람이 시인의 마음을 넘나들며 넘실거린다.

자유시간을 마치고, 빨강등대에서 다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으로 돌아왔다. 개회식 했던 그 장소에 우리는 다시 모여 각자 창작한 시를 꺼내어 발표하였다. 사전에 시제(詩題)를 알려 드려서인지, 모두들 출중한 시를 발표한다. 전면

에 프로젝터를 비추고, 창작 시조를 낭송하였다. 필자가 사회를 보았는데, 한 사람 빠짐없이 참가한 소회를 말하면서, 낭낭한 목소리로 시조를 발표하였다. 시를 세 편이나 지어 낸 분도 계시지만 발표는 한 편 씩만 하였다. 발표회 중간에 경기대학교 교수이신 이지엽 한국시조시인협회 회장이 오셨다. 학생 수업을 마치고 오느라, 아침에 오지 못하였다는 인사말씀을 하며 이러한 시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며 격려말씀을 주신다. 경기도 내 시조 시인을 초청하여, 시흥시의 자연 경관과 문화를 나누며, 시를 짓는 것은 귀한 행사라는 격려를 흘러들지 않고, 오래도록 이어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작년과 올해 두 번에 걸친 시회를 통하여 시흥시를 소재로 한 약 30여 편의 시조를 전시회를 통하여 발표할 생각을 하니 가벼운 흥분이인다. 연말에 시흥사랑 글사랑 전시회를 개최하여 시민에게 시회 소식을 알리기로 하였다. 시인에게는 아름다운 시심을 이끌어낼 기회를 제공하고, 시흥시로서는 시(市)를 빛낼 좋은 시편(詩篇)을 기증받는 것은 서로에게 기쁜 일이 분명하다. 이제 두 번의 시회를 경험하였으니, 이 아름답고 생산적인 모임을 중단없이 지속 시행, 발전하는 것이 과제다. 내년의 제3회 시회는 갯골 생태공원의 아름다움을 소금창고에서 발표하는 시회를 추진해야겠다. 지역의 전통의 문화를 이어가는 일과 예술 창작을 통하여 지역문화는 날로 발전할 것이다. 아래에 고두석 시인께서 창작한 한시 蓮城吟社懷古(연성음사를 회고함)와 그날 기증받은 시조시를 모두를 실었다. 연성음풍시회가 일제강점기 시절의 연성음사를 잇는 귀한 모임이라는 취지의 축시를 헌정하신 고두석 시인님과, 참여하신 경기도 지역의 시조시인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蓮城吟社懷古 (연성음사를 회고함)

- 柔剛 高斗錫 (유강 고두석)

蓮城創立幾秋陽 (연성창림기추양) 연성시사(안산,시흥)가 창립한지 몇해였던가
 懷古今時歲月長 (회고금시세월장) 지금에 회고해보니 (92년이라는) 세월이 길구나
 聽鳥揮毫簾外屋 (청조휘호렴외옥) 발 드린 글방에서 새소리 들으며 붓을 휘두르고
 看魚覓句水邊塘 (간어먹구수변당) 연못가에서 물고기 보며 시귀를 찾았었네
 一回應募揚名聲 (일회응모양명성) 단 1회의 전국단위 한시를 응모했지만 명성은 드날렸고
 二次刊行振盛昌 (이차간행진성창) 2차에 걸친 시집 간행으로 왕성한 활동을 했었네
 李老豐功誰不仰 (이노풍공수불양) 이(李雲根)선생의 큰 공을 누군들 우러르지 않오랴
 自祝吾儕樂吟觴 (자축오제락음상) 우리들도 읊고 마시며 즐겁게 자축하리



제2회 연성음풍 시회를 창작 시조

오이도, 패총이여

- 유순덕 -

들소를 어깨에 두른 활 잘 쓰는 힘 센 아비
 화덕 위 조개들을 노릇노릇 익혀 가며
 어머니 손 흔드는 곳, 아 그리운 패총이여!



갯벌, 오이도

- 김토배 -

그립다 까만 밤이 등대 불 짧은 사랑
 갈매기 흰 날갯짓 감미로운 파도 소리
 아득한 시간의 들녘 빗살무늬 지는 노을.



오이도 패총

- 이경렬 -

조가비 하나하나 세월이 쌓여 있듯
 그 시절 많은 사연 여전히 품고 있어
 지금도 들리는 노래 천년 담은 이야기

태초의 순수함을 깊숙이 간직한 채
 속으로 익고 익혀 오늘에 이르러서
 피었다 천년의 순수 사람 사는 이야기

오이도

- 박일엽 -

뒷살막 올라서서 빨강 등대 내려다보니켜켜
 이 조개 무덤 옛이야기 두런두런
 붉은 해 사부작사부작 노을 뒤로 숨는다



황새 바위

- 조홍원 -

개펄에 발이 빠져 바위가 된 새 한 마리
 세월이 밀물되어 그리움을 다독이면
 무시로 날개를 펴서 비상하는 꿈을 꾸다.



붉은 등대

- 최도선 -

나 험난한 어느 파도 어느 별에 있을지라도
 그대 붉은 가슴께로 선 하나 그어 놓으면
 오작교 건너 건너가듯 은빛 물결 타고 가리

그대의 눈 침침하고 안개 막아 설지라도
 당신의 따스 가슴 깊은 눈길 하나라면
 폭풍우 맞아가면서도 노 저으며 가리다

빨강 등대 「오이도」

- 한미자 -

먼 기척에도 놀라
떠나고 싶다, 이곳에서는
타지 않고 깨지지 않는
네가 되고 내가 되고
먼 훗날 화석이 되어 여기 있고 싶다

머물고 싶다, 이곳에서는
늪지 않고 죽지 않고
단단한 고통에도 한 세월 곱게 버티
오히려 붉은 가슴 열어 등대로 선 너, 있기에

.....

빨강 등대

- 송유나 -

천길인지 만길인지
바닷속 길을 여는

엄니는 널 그리며 긴 여백을 남겼었지
올것만 올것만 같아
달 하나를 품었지
화장 한 번 못해보고
갯바람에 훌쳐내던

깊어진 주름새로
골골살살 밀물 드는
자넨가, 말 끝내기 전 꼭 안아주는 빨강등대

.....

가을, 오이도의 노을에 잠기다

- 가온이미숙 -

채색한 한낮이 해거름을 거두어
떨물 같은 시간들이 겹겹이 부서지고
하현달 절로 붉어져 눈썹 끝에 매달린다

화폭 속을 들어서듯 바다 새의 춤사위
휘감긴 석양 빛에 화르르 떨어지고
면발치 일렁거리는 가을 빛 완연하다

빨강 등대

- 정원철 -

파도 질러 배치기소리
금빛하늘 석양이 진다

어살에 밀물 들면
수평선은 遠浦歸帆

뒷살막
등불 밝혀라
만형같은 빨강등대

.....

오이도

- 만농심성보 -

모지랑이 가슴에 앉서는 이 내 심사
나 무슨 재주 있어 幾千古를 노래하리
아서라 先史에 歷史에 세울 筆이 없어라

한 瞬에 지나갔다 저 빨은 그저 민낯
烽燧도 말발굽도 잠깐 새 지난 흔적
아서라 세월 무상이로다 그런 말도 아서라

반추할 겨를없이 역사는 춤추는데
하늬에 잎새는 사위어 바스락
빈 하늘 걸린 낫달인가 패총으로 남은 섬

.....

빨강 등대

- 정대훈 -

눈보라 비바람에 불철주야 뜬 눈으로
시흥이 잘 되기를 오매불망 기도하네
바다가 창공을 품듯 멀리 널리 펼치라네

.....

오이도

- 조홍원 -

수만 년 선사의 집 다시 닦는 패총 너머
오늘 하루 잘 살았다 장엄한 저녁노을
어머니, 당신의 삶을 여기 와서 봅니다.



오이도 갈대 숲

- 김영민 -

무엇을 말하려고 애치른 몸부림에
오이도 억겁 시간 바람으로 이어지고
그 때의 시간 속으로 함방하는 나그네



빨강 등대

- 고두석 -

언제쯤 다시 한번 등대에 불을 켜까
추억만 덕지덕지 박제된 몸뚱이로
절망에 불을 지핀다 시뻘겋게 타누나



오이도 낙조

- 이재곤 -

낙조는 은빛 바다
황홀하게 물들이고

해변의 사랑노래
정염으로 타는데

나그네 그리운 정은
노을 속에 잠긴다.



오이도의 아침

- 고두석 -

매립한 서쪽 해안 통증을 못 견디고
등짐 진 농계 한 쌍 갯벌을 떠돌더니
썰물에 몸을 맡긴 채 어디론가 떠나네

오이도 패총

- 박남식 -

생각없이 밟고 선 이 무덤이 명줄이었네
검은 개펄 품으며 먹먹히 참회하느니
가슴속 빗살무늬 토기에 담기는 까마귀의 귀



황새바위

- 고두석 -

명상에 반쯤 잠긴 옥귀산 등허리에
황새는 날개 접고 누구를 기다리나
햇살에 미끄러져 내린 수평선만 바라보네



오이도 패총

- 송귀영 -

석인이 흔적 남긴 다양한 유물유구
배다리 조개 무덤 해양 생태 비밀 안고
패총이 전하는 말씀 고대문화 들려준다.

뒷살막 조개더미 신석기가 누워있고
생금집 덕물도의 황계금우 전설 담긴
까마귀 귀를 닮은 곳 구덩 주저 엿보았다.

태양의 생태계를 풍성히 갖춘 섬에
유일한 해변 유적 접지하여 조화 이룬
신석기 다치어골문 퇴적층이 속삭인다.



빨강 등대

- 장병선 -

해님 옷 차려 입고 오는 손 길 밝히며
바다 손 손짓하며 갯벌을 살피운다
연인도 불러 들이는 오이도의 아이콘

〈시흥사랑 글사랑 전시회〉를 함께 하고

| 박일엽 |



11월 28일, 겨울 문턱에 올라서던 날, 오후 5시에 〈시흥사랑 글사랑 전시회(11월 28~12월 4일)〉 개관식이라며 식전공연 요청이 들어왔다. 문화 봉사 공연이라 잘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제자 3명과 두 번의 연습을 하고, 개관식에 갔다. 돈 받는 공연 역시 성심껏 해야 하지만, 봉사 공연은 꼭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기에 더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마른 가지를 적시는 가을비가 한 해의 묵은 때를 씻어준 말끔한 오후에 시흥농업기술센터 1층의 연꽃 갤러리에 들어서니, 건물 입구와 1층 로비에 늘어선 노오란 국화꽃이 화들짝 반긴다. 가랑비와 왈츠를 추는 듯 꽃 향이 부산하다. 동

글동글 아기 불처럼 사랑스럽다.

〈시흥사랑 글사랑 전시회〉 이미지에 맞는 곡을 찾았다. 광해군의 장인 류자신이 지은 시조창 한 곡조와 산염불, 자진염불, 민요를 불렀다. 예쁘게 단장하고, 화답의 박수소리를 장단삼아 실수 없이 공연을 하였다.

함께 봉사에 참여한 제자 세 명에게 감사하다. 제1회 전시회고, 홍보 기간도 짧았지만 개관식에는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다. 식전 공연을 마치고, 원장 인사말에 이어 이형수 고문의 인사와 작가 소개가 있었다. 시흥의 서예가 윤금심 선생과, 한국 화가이면서 캘리그래피 작가인 윤원진 선생이 함께 하였다.



시조작품과 편지글을 서예로 써서 족자로 만들어 연꽃갤러리 하얀 전시공간에 게시하니 품위 있고 아름답다.

갤러리 입구에서 오른 편으로 지난 5월 문화원에서 공모한 사랑의 편지글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 7점이 걸려 있고, 시조작가를 초청하여 창작한 시조 작품을 서예로 쓴 족자가 26점이 걸려 있다. 모두 반절지 크기로 통일하였다. 족자는 깨끗하게 보이도록 투명핀을 꽂아 걸어 놓았다. 갤러리 입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에는 '시흥문화비전선언문'을 서예로 쓴 8폭 병풍이 놓여 있다. 그 중엔 원장님과 나의 작품도 함께 걸렸다. 감사하다.

원장님은 이번 전시회에 큰 의미를 두는 듯하였다. 전시회 기간 중에 매일 전시장으로 출근하였다. 아침 9시에 출근하여 저녁 6시까지 가끔 적으면, 자리를 비우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그러다보니 나 역시 자연스럽게 함께 하였다.

주말에는 대학교 기숙사에 가있는 막내아들

의범이도 함께 했다.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연신 내렸다. 관람객이 많이 드나들어야 전시회의 의미가 깊어지지만, 겨울 문턱의 연꽃갤러리에는 관람객이 그리 많지 않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꽤 되었다. 글을 쓴 작가들과 고운 화선지로 읊긴 서예가의 영혼과, 문밖의 가랑비와 국화향기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었다. 전시장을 드나드는 이들의 상기된 얼굴이 또 다른 작품이 되어 찻잔에 녹아들었다.

편지글 족자 앞에 서면, 편지글의 등장인물이 꽃잎이 바람에 사르르 낙화하는 듯 보였다. 어떤 작품은 선비가 정좌하고 반듯하게 써 내려간 서체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작품은 먼 옛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여 반포한 시절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듯 하였으며 연갈색, 갈색, 황색, 황토색, 녹색으로 된 비단 족자가 하얀 벽으로 스며들어 국화향기보다 더 깊은 단맛이 느껴지는 듯한, 뜻 깊은 전시회였다.

원장님에게 전시회 준비 과정을 이야기 들었

다. 시흥문화원에서는 2018년을 ‘글 쓰는 시흥 시’로 천명하고, <글 쓰는 시흥시 운동>을 전개하여, 먼저 금년 1월에, 시흥의 각급 단체장을 초빙하여 <새해맞이 시낭송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봄 들어 5월 가정의 달에는 <사랑의 편지글> 공모전을 시행하여 8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는, 여름의 연성문화제에서 글짓기 백일장을 개최하였고,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30일의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으로 경기도내 시조시인을 초청하여 시회를 개최하고, 오이도를 소재로 한 시작품을 기증받았다. 그리고 겨울 초입에 <시흥사랑 글사랑 전시회>를 열어 ‘글 쓰는 시흥시 운동’을 마무리 짓는 것이라고 한다.

연초에는 전시회 계획이 없었으나, 글쓰기 운동을 가시화하여 시민에게 보여드리는 전시회가 빠지면 안된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개관하여, 관계자들이 힘들었다고 미안해한다. 서예 작품을 만드는 데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전남훈 서예가와 심봉진 예총 사무국장의 협조를 고마워한다. 또한 윤금심 서예가와, 화성의 김미례 서예가, 시흥의 한국화가인 윤원진 선생의 협조를 받았으며, 안양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서예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원장님이 시조시인 문우인 이일숙 선생에게도 부탁하여 나의 작품과 남편 작품을 받았다고 한다.

시흥을 사랑하는 여러 지인과 시흥문화원과 뜻을 같이하는 이들의 협조 덕에 전시회를 할 수 있었다며 감사해 한다. 윤금심 선생은 한시 서예 한 작품과 한글 서예 두 작품을 쓰는데 화선지를 무려 100장이나 사용하였다고 한다. 예술가들의 예술 혼과 그 노력 덕에 기품 있고 아

름다운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때맞추어 책을 발간하였다. 원장님은 전시회에 맞추어 <시인이 말하는 시쓰기> 책을 발간하려고 애 썼다. 낮에 출근하여 전시회를 준비하고, 밤이면 원고 편집을 하였다. 어떻게든 전시회 기간 중에 시민에게 책을 나누어주고 싶다고 하였다. <시인이 말하는 시쓰기> 책은 2018년도 시흥문화원 인문학 산책 자료집이다. <글 쓰는 시흥시 운동>에 맞추어 국내의 저명한 시인을 초청한 강연과 원장님이 수년간 시흥문화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강연한 시 창작 이론을 정리한 글을 함께 실었다. 원장님이 시인 지망생에게 시를 가르치기 시작한지 어느새 15년이 되었다. 강의록 자료는 계속 쌓여만 가는데, 언제 책을 내는가 걱정했는데, 시흥문화원 이름으로, 비매품으로 발행하여 자신이 평생 축적한 지식을 아낌없이 나눈다. 나 역시 원장님에게 글쓰기를 배워, 시조시인이 되어 글 쓰는 기쁨을 누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면 더욱 좋은 일일 게다.

대중이 바라보고 정신적 감흥을 느낄 수 있는 작품 탄생을 위해, 시조시를 쓴 작가와 화선지에 옮겨서 영혼을 불어 넣어준 서예가, 비단을 받쳐 아름다운 족자로 탄생시켜준 장인의 손길을 떠올린다. 시흥사랑 글사랑 전시회를 기획하고 이끈 원장님과 사무국 직원도 떠올린다. 누군가의 땀과 노력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지면을 통해 진심어린 감사를 드린다.

대의원 워크숍 (상반기)



- 답사지: 안동 도산서원, 유교문화 박물관, 영주 소수서원
- 작성자: 이종순

내일이 문화원의 대의원 워크숍 가는 날인데 비가 너무 많이 세차게 내린다. 걱정스럽게 밤새 내린 비는 아침에야 살짝 그쳤다. 그러다 오전 8시에 답사지로 출발 즈음 다시 짙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세찬 비를 뒤로 하고 첫 번째 코스인 안동으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국장님의 사회로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다.

시흥문화원 임원진과 대의원, 그리고 서예와 서각 동아리 팀들이 같이해서 30여 명이 동행했다. 다행히 날씨는 시흥시를 벗어나면서 비가 그쳤다.

첫 번째 답사지인 안동 도산서원에 11시 30분 쯤에 도착했다. 예약한 해설사는 미리 나와 계셨다. 우리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예정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해서인지, 해설사의 맘이 급해서인지 서둘러 안으로 향했다.

버스에서 늦게 내린 분들에 대한 기다림의 배려도 없이 우리는 그저 따라갔고 나무그늘을 피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곳에서 해설사는 해설을 시작하려 했다. 그때 인사도 없이 급하게 진행되는 해설사를 보고 원장님께서 잠깐 해설사

를 소개해드리고, 힘찬 박수와 함께 해설을 들었다.

지금의 도산서원은 사적 제170호로 퇴계 이황 선생이 머물면서 학문연구와 후진 양성을 위해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으로 명종 16년(1561년)에 세워졌다. 이때 유생들의 기숙사 역할을 한 농운정사와 부전교당속시설인 하고직사(下庫直舍)도 함께 지어졌다. 사후 4년(선조 7년)에 문인과 유림이 서원을 세웠으며 선조 임금은 한석봉 친필인 “도산서원”의 현판을 하사함으로써 영남유

학의 총본산이 되었다.

도산서원 앞에 있는 시사단은 1792년 3월에 정조임금이 이조판서 이만수에게 이황의 학덕과 유업을 기리는 뜻에서 도산별과를 신설하여 이 지방의 인재를 선발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시행하고 기념하던 장소가 바로 시사단이다. 2명을 뽑는 문과별시에 7천 명이 넘는 선비가 몰려 도산서원 마당에서 별시를 볼 수 없어서 낙동강가에서 별시를 봤다한다.

지금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 33호인 시사단은 1975년에 안동댐으로 수몰되기 전보다 원 위치에 10cm 높이의 돌축대를 쌓아올린 뒤 원형대로 옮겨지어졌다.



다음은 시간에 쫓겨 12시 20분에 식당으로 향했다. 점심메뉴는 역시 안동의 대표 먹거리인 안동찜닭과 간고등어였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안동소주라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소주공장이 화재로 운영을 못한다한다. 안동소주를 못마신다는 것보다 화재라는 단어가 맘에 걸린다.

배불리 맛있게 먹고 서둘러 **유교문화박물관**으로 향했다. 버스에서 내린 후 입구를 못 찾아 조

금 해매다 들어갔다. 이곳도 예약한 해설사가 우리를 맞아주었고 차분히 해설해 주었다. 유교문화박물관은 2006년에 세워진 국내 유일의 유교 전문박물관이다.

최근에는 자랑스럽게 세계 유네스코기록유산 중 KBS 특별방송 ‘이산가족 찾기’기록물과 ‘유교 책판’이 2015년에 등재되었다. 해설을 들으며 우리의 전통 유교문화를 돌아보게 되고 삶의 뿌리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박물관내 현판 전시실에서는 서예와 서각 동아리 팀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곳이라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다음으로 마지막 답사지인 **소수서원**으로 향했다. 도착해 바로 해설사를 만나 백운동(白雲洞)과 경(敬)자 바위에 대해서 해설을 들었다.

세조 3년(1457년)에 단종 복위 거사 실패로 금성대군이 유배 온 곳인 영주는 순흥 사람들이 참화를 당한 곳으로 그 억울한 영혼을 달래려 주세붕 선생이 직접 써 새긴 것이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죽계를 따라 10여리 흘러가



뗏은 곳을 지금도 “피끝마을”이라고 부른다.

소수서원은 종종 때 주세붕 선생이 회헌 안향



선생을 기리고자 창건한 서원이다. 당시 서원의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으나 퇴계 이황 선생이 상소를 올려 명종 때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하사받았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사액서원의 효시로도 유명하다.

퇴계 이황선생의 제자 대부분을 포함하여 약 4천여 명의 유생들을 길러낸 곳이다. 특히나 맘에 드는 곳은 소수서원에 들어서는 길에 3백년에서 천년에 이르는 적송들이 가득한데 이 소나무 숲이 학자수이다. 겨울을 이겨내는 소나무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참 선비라는 의미라는데 참 든든하다.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시흥으로 돌아간다. 다시 버스에서 국장님의 사회로 시흥문화원의 올해 사업을 듣고 각자의 소감을 듣는다. 내 차례가 돌아와 떨리지만 조심스레 건넸다.

안동과 영주는 무엇보다 문화, 관광, 생태적으로 자원이 상당히 훌륭한데 개인적으로 오늘 들은 해설로 그 좋은 자원의 이미지가 많이 망가

졌다는 것이다.

해설사는 관광객의 욕구를 파악해야하는데 자기 얘기만 하고, 집중할 수 없는 너무나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고, 우리민족을 북어에 빗대는 듯 거칠게 비하하는 표현은 듣기에 거부했다. 그냥 자원만 훌륭했다.

우리 시흥을 돌이키며 작은 자원이라도 해설사로 인해 더욱 빛나게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긴다. 그리고 성리학의 본토에서 아직도 양명학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그로인해 문화원이 갈 길이 멀다라는 원장님의 말씀에서 힘듦과 사명감이 같이 느껴진다. 나부터 문화원을 중심으로 더 많은 공부와 활동과 실천의 각오가 생긴다.

시흥에 가까워지니 화창했던 날씨가 비가 오기 시작한다. 오후 7시 20분쯤 시흥에 도착했다. 종일 비가오던 시흥을 피해 화창한 날씨 속에서 다녀온 대의원 워크숍이 꿈을 꾸듯 지나갔다.

대의원 워크숍 (하반기)



윤봉길의사기념관

- 답사지 : 윤봉길 의사 기념관, 추사 김정희 고택
- 작성자 : 박일엽

아침 일기예보를 보니 미세먼지가 극성이라 한다. 창문을 여니 아침 공기도 맑지 않은 듯하다. 집을 나서 문화원에 도착하니, 벌써 대의원, 임원, 문화원 직원들이 나와 있고, 문화원 워크숍을 격려차 함진규 국회의원 성경진 사모와 성훈창 시의원이 배웅을 나왔다.

퇴원하고 한 달여 지난 시점이라 아직 나들이가 익숙하지 않다. 갑작스런 병마가 찾아와 3년간 입원하여 퇴원하고 나니 모든 것이 새롭다. 아주 오랜만에 문화원 대의원으로서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이 가슴 설렌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었다. 병원 생활 내내 보살펴준 남편이 함께 하는 여행인지라 남편만 믿고 따라 나섰다. 가을 햇살이 빨갭게 영글어 대

지를 알록달록 단풍들이고, 내 얼굴마저 따사롭게 달구어 주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가을 들녘과 단풍이 한껏 자태를 뽐내고 있다. 굽이굽이 밟그레한 낮으로 손 흔드는 나뭇잎과, 농부의 여름 땀방울이 녹아든 논, 처녀의 설레는 얼굴과도 같은 밟그레한 과수원의 능금이 가을빛에 윙크를 추듯 흔들린다. 나는 그만 홀리고 말았다. 어릴 적 대구 사과의 빨간 홍옥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던 기억이 있었는데, 여기 예산 사과는 암전한 색을 지녔다. 연분홍에 연보라 옷을 입은 예산 능금 빛이 맴돈다. 내 앞에 수없이 많은 능금이 매달려 있다. 행복했다. 문화원 측에서 준비해 준 생수와 떡을 먹으며 차창 밖을 번갈아 보다보니 벌써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총의사: 윤봉길 의사 영정을 모신 곳

처음 도착한 곳은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였다. 순정한 영혼을 가진 윤봉길 의사 앞에 고개 숙여 감사함을 표했다.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가슴 아팠다.

25년 짧은 생을 조국과 민족을 사랑한 윤의사는 “장부출가불생환(丈夫出家不生還)”이라는 말을 남기고 조국을 떠나 상해에서 거사를 단행하였다. 윤봉길 의사는 야학과 농민운동으로 예산 지역민의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농촌 부흥운동을 하며, 배고픔에서 백성들이 깨어서 힘을 비축하여 외세에 일어설 수 있도록, 교육과 계몽운동을 하다가 고국을 떠나 중국임시정부로 김구 선생을 찾아가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으며, 한인에국단에 들어가서 흥커우 공원에서 의거를 결행했다.

윤의사는 일본 가나자와 육군 공병작업장에서 순국했다, 유해 발굴은 실패했으나 효창공원에 이봉창 의사와 함께 묻혀 있다.

기념관에서 윤의사의 생전 기록물을 보면서, 한 없는 눈물이 났다. 서울 효창 공원에 안장되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시신조차 타국에서 거두지 못하여 아깝고 안타까웠다. 그리고 한 사람의 애국의 향기가 이렇게 긴 세월 멀리 전달되고 있음이 경이롭기까지 하다.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나와서 점심식사 장소로 이동하였다. 문화원에서 맛집을 점심식사로 예약





추사 김정희 고택에서

해놓아서 함께 한 대의원들의 입이 귀에 걸렸다. 이형수 고문님과 문화원장, 이사님과 대의원들 모두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였다. 워크숍 참가비는 1만원인데, 관광버스를 대절하고, 풍족한 점심식사와 먹거리 제공을 한다. 문화가족으로 문화원 일에 참여하니 문화탐방이 풍족하고 보람 있다.

점심식사 후에 추사 김정희 고택으로 이동하였다. 고택에 먼저 들리고 추사 선생 유택에 묵념 드리고 기념관을 구경하였다. 6세부터 신동으로 인근에 널리 이름을 알리고, 71세에 별세하셨는데, 추사 선생의 학문과 예술은 몇 백 년이 흐른 현세에도 추앙을 한다. 추사 생애 최고의 걸작품인 세한도(歲寒圖)나 불이선란(不二禪蘭)이라는 난초 그림, 죽로지실(竹爐之室)이라는 예서체의 작품을, 문화해설사의 해박한 해설을 들으면서 감상하는 호사를 누렸다.

하반기 대의원 워크숍을 통해서 예산을 다녀온 일은 내가 퇴원을 해서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해준 귀한 여행이 되었다. 시흥문화원은 세심한 준비로 인문학 지식을 충족시켜주면서도,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고, 함께 하는 회원, 임원들이 문화원을 통해서 인문학적인 소양을 함양하여 지역 사회에서 배려와 나눔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문화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수고도 감사를 드리는 바다.

3.1 독립정신의 계승

- 시흥지역의 민족해방운동 -

| 안준상 |

2019년은 일제의 강점에 항거하여,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평화의 시위를 전개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숭고한 정신인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위대했던 우리의 역사와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정신을 생각하게 한다.

시흥문화원은 다가오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3.1 독립정신의 계승을 생각하고자 제 27회 연성문화제에서 3.1 독립정신의 계승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하였다. 시흥 지역 3.1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만세운동, 오늘에 시행하고 있는 선양사업을 돌아보는 자리로서, 선조들이 당한 고통과 흘린 피를 기억하며, 목청껏 소리 높여 부르던 3.1운동과 그 정신을 오늘에 기리고자 한다. 이에 그 날에 기록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시흥시는 2018년 7월 20일, 시흥의 독립운동가 선양사업으로 죽을동 김천복 지사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다. 독립운동가의 기념비 제작 및 선양 사업은 선조들이 지키고자 한 이 강토와 독립정신을 지키고 계승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와 발맞추어 제 27회 연성문화제를 주최하는 시흥문화원이 3.1 독립정신의 계승이라는 주제로

〈제 8차 시흥지역문화 세미나〉를 문화제와 함께 개최하였다. 시흥지역 민족해방운동의 역할과 의미를 살피고 시민들이 민족정신과 역사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는 의미이다.

기조 강연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에서 근무할 당시, 일본이 가로챈 재산을 권리보전 조치하여 서울 면적의 3배에 달하는 면적을 국유화하는데 애쓴 결과로 1998년 8월 15일, 대통령 표창을 받은 윤태용 선생을 모셔 〈일본인 등 명의 재산의 권리보전 조치〉라는 주제로 일본인이 가로챈 우리의 강토와 재산을 대한민국 재산으로 권리보전 조치한 과정과 결과를 발표하였다. 소래초등학교 출신이어서 가깝게 느껴진다.

우리나라는 근대적인 토지소유제도가 확립되기 전에 일본의 식민통치 및 토지수탈정책으로 대부분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였으며, 남북분단 및 6.25전쟁으로 등기부등본·토지대장 등 재산관련 공부가 멸실되고, 일본인 등 명의의 귀속재산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거치는 동안 많은 수의 국유재산이 무단으로 점유되는 등 국유재산관리가 어려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조치를 추진하여 소유권 분쟁의 문제점은 다소 있었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킴으로서 3.1운동의 헌법정신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어서 젊은 시절에 시흥군의 3.1 독립운동을 소재로 석사논문을 발표한 김형목 독립기념관 사적팀장의 <시흥시 3.1운동의 역사적 배경>을 대한제국기 국권회복운동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시흥지역은 3.1운동의 배경, 전개양상, 역사적 성격 등 항일운동의 계승적인 발전이라는 사실이 밀접한 연관성을 지녔다는 것이다. 시흥지

역은 그 당시 사회변동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였다. 그 사례가 근대교육운동의 확대와 국채보상운동의 참여 등이다.

시흥지역 근대교육은 안산공립소학교가 설립된 1899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시흥시 계몽운동은 을사늑약 직후 근대교육 시행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또한 나랏빛 청산이 국권회복의 지름길이라 1907년 1월부터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지리적인 위치 등으로 시흥시는 비교적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최초 언론에 보도된 인물은 초산면 관곡금송계원 장덕진 등과 인화면 염곡주민 김영성 등이다. 관곡금송계원(현 시흥시 하중동)은 20원과 염곡주민(현 수암동 지역) 31명은 6월 80전을 의연하였다. 당시 장덕진의 열성적인 활동은 1907년 3월 28일자 <황성신문>과 4월1일자 <대한매일신보>에서도 주목하였다.

능곡동에서 오랜 세월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는 현재는 시흥효도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규성 선생은 <권희 선생의 생애와 시흥지역 3.1운동 독립만세운동> 발표를 하였다.

우리고장의 자랑, 애국 청년 권희! 시흥지역에서 3.1운동에 참여한 수 천명의 시위자들이 있었으나 일경에 체포되어 방면된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받은 사람들 중에 시흥시 장현동 두일 마을의 권희 선생의 경우는 시위를 계획하다가 발각, 체포되어 어린나이에 다른 현장 시위주동자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받았다. 권희는 안동권씨 가문의 종가집 후손이었다. 경기도 군자면 장현리(안두일) 권준영 씨의 장남으로 1900년 10월 10일(양력 6월18일)에 출생하였다. 권희는 (만20세)



1919년 3월1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침략자 일본제국을 타도하자는 연설을 듣고 그 해 4월 7일 대한독립운동을 거국적으로 구시장에서 전개하기로 하였으나 전 날 체포되었다.

이제 우리시흥지역에 잊혀져가는 권희 선생의 생애를 발굴함에 따라, 재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흥향토사학자 심우일 선생의 (시흥지역 3.1운동 선양사업 살펴보기)을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3.1운동에서 일제는 총칼을 앞세워 무력으로 진압을 하였는데 그 아픈 상흔이 이곳 시흥 땅에도 남아있다. 생명의 위협과 잔혹한 고문속에서도 오로지 대한의 독립을 위해 백절불굴의 용기를 불살랐던 주요 애국지사를 정리해 보았다. 운동옥(1891. 9. 1.~1968. 10. 2.), 윤병소(1893~1919), 김천복(1897. 2. 1.~1968. 8. 5.), 권희(1900. 6. 18.~1955. 12. 23.), 장수산(1900. 8. 7.~1981. 5. 15.) 시흥시의 3.1운동과 주요 애국지사 5명에 관한 선양사업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다. 그나마 2010년 3월 1일 운동옥 선생의 기념비 제막에 이어 2018년 7월 20일 애국지사 김천복 기념비 제막식이 있었다. 이런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수 있었던 것은 시민, 사회단체, 시흥시의 수준 높은 역사의식과 상호 협력이었다.

이제 시흥문화원은 시흥시민과 함께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3.1 독립정신을 지속 계승하여 지역 정체성 확보와 인문

학적 문화입국에 더욱더 노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백범 김구 선생님의 글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나는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 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 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 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 나라에서, 우리 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문화초점

시흥정책 플러스 - 편집부

감동적인 순간, 행복한 2018학술심포지엄 - 류홍숙



2018 시흥문화원 정책플러스

| 편집부 |

1. 들어가기

이 글은 시흥문화원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시흥시와 시흥문화원이 함께 추진한 '시흥문화원 정책플러스' 최종 결과 보고를 정리한 것이다. 기간은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시흥문화원과 시흥시청 문화예술과 관계자 및 관련 문화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시흥문화원 임직원과 시흥시 공무원, 시민 등의 발표, 토의 내용, 그리고 학습 모임 기간 시흥문화원과 시흥시 관계자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논의 하고, 청년 활동가와 지역문화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글은 2018년 3월 20일 6차 학습 모임에서 「시흥문화원 방전 방향을, 4월 3일 8차에서 최종 마무리하여 7차 학습모임에서 발표된 두 편의 보고서와 한국전통문화대 강진갑 외래교수¹⁾의 보고서가 포함된 「2018 시흥문화원 정책플러스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2. 시흥문화원 정책 플러스 학습모임 개요

시흥문화원 정책 플러스는 시민, 시흥문화원 임직원 및 회원, 시흥시청 문화예술과 공무원, 전문가가 함께 시흥문화원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해 학습하고 연구하여, 시흥문화원 활성화 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 기 간 : 2018년 2월 12일 ~ 4월 3일
- 장 소 : 시흥문화원
- 운영방식 : 주 1회, 총 8회 진행(현지 사례 조사 1회 포함)
- 참 여 자 : 23명

1) 김치성, 「시흥문화원 정책 플러스 학습모임 최종보고서」, 2018(3.27), 7차 학습모임 발표.
이병권, 「시흥문화원 정책 플러스 종합보고」, 2018(3.27), 7차 학습모임 발표.
강진갑, 「시흥문화원 활성화 방안」, 2018(4.3) 8차 학습모임 발표.

구 분	참여자	세부 내용
시흥시민	6명	- 문화유산 해설사(4명) - 문화 자원봉사자(2명)
시흥문화원	정원철 원장 외 9명	- 원장(모임 서포터) - 직원(4명) - 임원, 회원(5명)
시흥시 문화예술과	우종설 과장 외 5명	- 과장(모임 서포터) - 지역문화팀장 - 지역문화팀원(2명) - 향토사료실(2명)
외부 전문가	강진갑 교수 외 2명	- 좌장(1명) - 전문가 발표(2명)

- 학습 모임 진행(좌장 : 강진갑 경기대 교수)

일정	주요내용	참여자
1차 2.12(월) 16시	오리엔테이션 - 학습모임 취지 공유. 학습모임 주제, 일정 확정 등	시흥문화원장, 시흥시 문화예술과장 외 20명
2차 2.20(화) 15시	학습 모임 참가자 주제 토론	시흥문화원장, 시흥시 문화예술과장 외 19명
3차 2.27(화) 15시	전문가 초청 발제 및 토론 - 문화기획가 조정국 「시흥문화원의 청소년, 청년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한국외국어대 한동현 교수 「전통문화의 향유 방안」	시흥문화원장 외 19명
4차 3.6(화) 15시	청년층 초청 토론 - 시흥시내 청년 이기창, 이유경씨로 부터 '시흥문화원을 바라보는 청년의 시선, 시흥문화원 사업'에 대한 의견 청취	시흥문화원장, 시흥시 문화예술과장 외 19명
5차 3.13(화) 9시	춘천문화원 현장 견학 학습 모임 참여자 1차 발표 및 토론 - 시흥시 인재봉 주무관 「시흥문화원 활성화 방안」 - 시흥문화원 이병권 사무국장 「시흥문화원 정책 플러스 종합 의견」 - 시흥문화원 사무국 최경애 과장 「시흥문화원 정책플러스 학습 모임」 - 시흥시청 향토사료실 김치성 상임위원 「시흥문화원 정책플러스 학습모임 보고서」	시흥문화원장, 시흥시 문화예술과장 외 관심 있는 시민 추가 참여 25명
6차 3.20(화) 15시	좌장 발표 및 토론 - 경기대 강진갑 교수 「시흥문화원 발전 방향」	시흥문화원장, 문화예술과장 외 19명

7차 3.27(화) 15시	최종보고서 작성팀 발표 및 토론 - 김치성, 「시흥문화원 정책 플러스 학습모임 최종보고서」 - 시흥문화원 이병권 사무국장 「시흥문화원 정책 플러스 종합보고」	강진갑 교수 외 5명
8차 4.3(화) 15시	최종보고서 발표 및 채택 - 경기대 강진갑 교수 「최종보고서 시흥문화원 활성화 방안」	시흥문화원장, 문화예술과장 외 20명

3. 문화원을 바라보는 시선

1) '시흥문화원 정책플러스 학습모임' 에 나타난 문화원에 대한 시선

학습모임 참가자 대상 시흥문화원에 대한 인식(이미지)을 퍼실리테이터²⁾ 방식을 통해서 1차 학습모임 참가자 대상으로 시흥문화원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1차 학습모임 참가자 대상 시흥문화원에 대한 인식(이미지) 조사 결과

- 문화원의 현재 모습**
 - 전통적 이미지(전통문화 · 정체성 · 구심점) : 8명
 - 경직되어 있고, 올드(old)함 : 9명
 -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임 : 4명
- 문화원의 비전**
 - 전통문화의 계승과 구심점 역할 : 10명
 - 융 · 복합적 문화 공간 : 3명
 - 모두에게 열린 공간 : 6명
 - 독립원사 필요 : 1명
- 문화원의 참여대상**
 - 청년층으로 확대되어야 : 8명
 -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 13명
 - 중장년층의 참여가 중심이 되어야 : 1명

참석자 중 9명이 문화원의 현재 모습을 '경직되고 올드하다'는 반응이 제일 많았고 자치단체와 시민, 청년들의 시선은 문화원은 변화하는 문화 환경에 맞추어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우선하였으며, 문화원 내부에서의 인식은 문화원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편 학습모임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문화원이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사업과, 문화원의 홍보 수단 변화와 미래 세대를 수용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 제기하였다.

2) 인카운터 집단의 지도자를 이르는 말. 공감적 이해와 수용적 태도를 기본으로 솔직함과 신뢰 풍토를 조성해 성원들의 감정과 사고의 자유스러운 표현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2) 문화 환경의 변화

문화원을 둘러싼 문화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를 새로 제정된 문화 관련법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문화원진흥법(1994년 제정, 2011년 개정)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 | | |
|---------------------------|-----------------------------------|
| 1.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활용 | 2. 지역문화(향토자료 포함)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
| 3. 지역문화 국내외 교류 |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 |
|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 |
| 6.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 7. 다문화가족 문화 활동 지원 |

지역문화진흥법(2014년 제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7조(생활문화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
- ②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
-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문화기본법(2013년 제정, 2016년 일부 개정)

제1조(목적)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

제2조(기본이념) 문화가 삶의 질 향상...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

위와 같이 문화관련 법의 변화를 통해서 문화 환경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 문화진흥 주체의 다변화이다. 지역에서 문화는 문화원 외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 기업, 개인 등으로 지역 문화 주체가 넓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문화' 중심 개념의 변화이다. 지역 문화 활용 중심 개념이 '지역문화(향토자료 포함)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이었으나, 지역의 고유자원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나 삶,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원이 앞에서 살펴본 문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문화 환경을 만드는데 중심적 역할을 기대한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정 이후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에 반영된 문화 환경 및 지역 문화중심 개념의 변화상을 문화원 운영과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시흥문화원 정책플러스 학습모임' 주요 토의 내용과 정책 제언

1차 학습 모임에서 향후 토론 주제를 첫째, 젊은 층이 문화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둘째 시흥문화원 전통문화 사업 발전 방안. 셋째 시흥문화원 건물을 독립된 건물로 할 것인가? 복합 문화 공간 속에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 세 가지로 정하였다. 이어 학습 모임 진행과정에서 조직, 예산 문제도 함께 논의하였다.

1) 시흥문화원, 시흥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번 학습 모임의 쟁점은 '문화원의 현대화', '젊은 층을 포함하여 보다 많은 이들을 위한 문화원 프로그램 시스템 개편', '문화원의 이미지 개선'이었다. 문화 주체들이 다양하게 성장하고 활동하고 있기에 문화원이 모든 문화 수요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사업을 펼칠 필요는 없다. 문화원은 지금까지 잘해왔던 분야, 즉 전통문화, 향토문화, 지역축제 등의 사업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화원은 문화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변신이 필요하다. 젊은 층을 포함하여 새로운 문화 수요자를 문화원이 적극 수용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원 조직과 예산의 확충과 그리고 현재의 전통문화 사업 역시 문화 환경 변화에 맞게 변화하여야 한다. 문화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문화원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문화원이 변하지 않으면 시흥지역 문화에서 문화원의 역할과 위상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홍보 전략을 통한 이미지 변신이 필요하다. 이미지는 기획하고 만들어야 한다.

시흥시와 시흥문화원의 새로운 파트너십 필요

시흥문화원 사업 및 운영 자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법과 조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 사업은 공적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다. 현실적으로 문화원 예산이 자치단체 보조금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문화원의 독립성이 갈수록 약화된다. 그 결과 문화원의 독자성과 기획력은 약화되고 창의성 발휘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문화원과 자치단체 관계는 자치단체가 우월한 입장에서 문화원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전국 지방문화원의 보편적인 모습이다. 현재 자치단체와 문화원은 내적으로 긴장 관계이다. 따라서 시흥시와 시흥문화원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시흥문화원 정책플러스 학습모임'이 하나의 사례이다. 문화원의 독립성, 독자적 기획력이 살아야 문화원과 지역문화가 활성화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원을 바라보는 시선과 문화원 지원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흥시와 문화원의 보다 많은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원칙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치단체 사업을 문화원이 위탁받았을 시에는 자치단체와 문화원이 긴밀한 협의와 협력 하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이 양자의 조화를 이루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문화원 사업에서 문화원 자체 기획 사업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

시흥문화원과 지역문화단체와의 파트너십

지역문화 플랫폼으로서의 문화원의 역할이 주목된다. 문화원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현재에 문화원 사업 체계를 플랫폼 중심으로 점진적 전환 ⇒ 지역 문화를 견인하는 다양한 문화주체들과 전통문화 기반의 '콜라보', 공동사업 추진 확대 등이 필요하다. 이처럼 시흥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우산이 되어줄 수 있는 문화원의 역할과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전통문화의 허브로서의 문화원이 필요하다. 관내 전통문화 관련 기관, 단체, 소규모 조직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들 기관, 단체, 조직 간 네트워크를 동등한 입장에서 파트너십 실현(MOU 등)으로 전통문화 관련 동아리 모집 및 육성,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2) 문화원의 새로운 비전 및 사업

시흥시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철학하는 도시 시흥' 만들기

시흥시, 시흥문화원의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철학하는 도시 시흥'만들기를 제안한다.

'철학하는 도시' 만들기

1. 기본 방향

- '나, 너, 우리의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 '철학하는 도시'는 어려운 철학을 공부하자는 것이 아닌 철학을 통해 새로운 삶의 자세,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
- 양명학의 '사민평등', '민이 지지하는 철학', '백성과 함께하는 철학'을 21세기 우리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시흥사회, 나아가 한국 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만드는 운동인 ‘철학하는 도시’의 출발은 ‘철학하는 문화원’으로 구현

2. 사업 내용(예시)

1) 추곡서원과 향토문화연구소 활성화

가. 추곡서원: 양명학으로 ‘나 너 우리의 새로운(행복한) 삶’을 실천하는 운동 전개

나. 향토문화연구소: 양명학 연구 중심

2) 인문(철학) 동아리 결성 및 활동 지원

3) 양명학 대중서 발간

가. 21세기에 양명학 다시 읽기

21세기 키워드로 연구하는 양명학: 문명의 전환, 정치적 리더십, 나눔과 베품, 예술, 환경, 경제 등을 주제로 양명학 다시 읽기

나. 쉽게 읽는 양명학

양명학을 고등학생 졸업 생 학력 수준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쉽게 발간

다. 정제두 자서전 발간 - 정제두의 생애와 사상을 시흥 생활(옛 안산군) 중심으로 정리

4) 양명학 학술회의 및 양명학 연구 총서 발간

5) 시흥 ‘철학자의 길’ 조성 - 일본 교토의 ‘철학자의 길’,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철학자의 길’을 벤치 마킹하여 ‘정제두의 길’ 또는 ‘철학자의 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길을 산책하며 양명학, 철학, 인문학을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함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철학자의 길’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州)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유명한 산책로이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헤겔, 야스퍼스, 하이데거 등 여러 철학자들이 이곳을 산책하며 명상에 잠기고 영감을 얻었다는 것에 유래된 곳이다. 하이델베르크 대학교를 중심으로 활약하던 철학자들이 즐겨 찾기도 했지만, 아름다운 이곳을 걸어서 산책하다 보면 철학에는 문외한인 사람이라도 철학이 못지않은 사색에 잠긴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전철이 위로 다니고 있는 테오도르 호이스 다리 쪽에서부터 시작하여 카를 테오도르 다리가 있는 곳까지 산 중턱으로 걸어서 산책할 수 있으며, 중간에는 철학자의 뜰이 있어서 잠시 쉴 수도 있다. 철학자의 거리에는 많은 종류의 식물이 자라고 있고, 또 온난한 기후 때문에 일찍 꽃이 핀다고 한다. 이 산책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하이델베르크 성과 네카어강(Necker River) 및 구시가지가 한눈에 보인다.(두산백과)

일본 교토의 ‘철학자의 길’

일본 교토 시내의 동쪽을 완만하게 감고 도는 길. 가끔 휘어지고 꺾이는 길 양쪽엔 수목이 빈틈없이 장벽을 만들고 있었다. 이 길의 주인공은 교토대학 철학과 교수 니시다 기타로(西田 幾多郎, 1870-1945)다. 칸트처럼 어김없이 하루 한번 걸으면서 명상을 즐겼다. 이를 본 동료교수와 후학들이 붙여준 이름이다.

3. 철학하는 도시의 모습

철학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를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찾고, 너를 이해하고 너와의 관계를 경쟁이 아닌 함께 사는 공동체로 이해하고 실천하여 내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행복을 찾는 ‘나, 너, 우리의 새로운 삶’을 찾는 도시로 ‘나눔과 베품’ 실천함

시흥문화원 내 '생활문화센터' 설립

최근 가장 주목되는 시민친화적 사업이 생활문화이다. 따라서 시흥문화원이 시흥시와 협력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설립, 시흥 지역의 생활 문화 사업을 문화원 중심 사업의 하나로 확장이 필요하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규정한 문화원의 새로운 사업 영역, 즉 다문화, 예술교육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충하는 것이다.

3) 시흥문화원 인프라

시흥문화원 원사

문화원사는 독립원사와 시청 복안인 복합문화공간(장현동) 내에 포함시키는 두 가지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다. 2018년 현재 경기도내 31개 문화원 공간은 독립 원사가 18개이다. 독립원사는 문화원의 상징성과 문화원의 사업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시청 근처 복합문화공간 내에 문화원이 위치할 경우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타 문화 기관과의 협력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동 시행령은 지방문화원이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주민에게 시설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취지는 문화원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 공간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향후 시흥문화원 공간 확보에서 이러한 법률적 근거로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복합문화 단지 내에 별관을 신축하여 문화원 독립 원사로 제공하면 독립 원사 확보와 복합 공간 내 위치하는데 따른 장점 모두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6조(시설)

-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제5조(시설 제공)

- 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용신청절차, 이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시흥문화원 재원의 다변화

재정자립도 신장을 위한 노력 필요하다. 시흥시는 문화원 예산 지원 확대를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원 사업 지원 예산과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시흥문화원은 재원의 다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문화원 수입은 자치단체 보조금, 회원 회비, 사업 수익, 찬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문화 사업에 있어 공공자금 투입은 필요하고 확대도 되어야 하는데 문화원의 새로운 재원 확보책으로 공모사업 적극 유치, 기부금 유치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과 정밀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조직 구성의 변화

문화원 조직에 청년층과 여성층의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활동성이 보장되는 청년이사회 도입을 제안한다. 아울러 향토문화연구소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문화원의 사업 추진에서 외부 문화단체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흥문화원이 지역문화네트워크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의 문화원 사무국 직원 처우가 열악하다. 사무국 직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비교적 처우개선이 잘되어 있는 경기도의 파주문화원과 군포문화원, 부천문화원 사무국 직원 보수규정을 참고 바란다. 아울러 사무국 직원의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역량 강화를 하는 한편, 대외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

5. 나가며

이번 2018 시흥문화원 정책플러스는 시흥시민, 시흥문화원, 시흥시, 전문가 등 4자가 참여하여 시흥문화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2018년 4월 3일 최종 8차 학습모임에서 시흥시와 시흥문화원 모두 학습 모임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의 실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8차 학습 모임에 참여한 시민과 문화원 회원들이 이 학습 모임을 통해 시흥시의 문화와 시흥문화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과 이는 시흥시의 문화와 시흥문화원 중심층을 두텁게 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번 학습모임은 시흥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문제제기 및 논의의 출발점이다. 향후 시흥시와 시흥문화원은 이번에 논의된 내용의 실천을 위해 ‘시흥문화원 활성화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외부 연구 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고 문화원 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문화원 내에 연구 TFT를 구성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아울러 ‘철학하는 도시 시흥’의 구현을 위한 기본 계획이 필요하다. 매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를 통해 실시하는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문화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문화 현안을 컨설팅하고 연구하는 사업이다.

경기향토문화연구소 2018 학술심포지엄

감동적인 순간, 행복한 학술심포지엄

| 류홍숙 |

2018년 12월 7일 (금) 오후 1시 30분에 시흥시청 글로벌센터(4층)에서 경기향토문화연구소 2018 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열린 종합토론이 마지막까지 진행되었다. 이 학술심포지엄은 경기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경기향토문화연구소와 시흥문화원이 주관하였다. 1분과는 <경기 유학과 양명학>, 2분과는 <경기지역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화 방안 모색> 두 분과로 나누어 학술심포지엄이 실시되었다.

이 학술심포지엄의 목적은 경기 1000년을 맞아 경기 유학의 사상적 발자취를 고찰하고 한국양명학의 사상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경기지역 3·1운동의 현황을 공유하고 항일운동을 통한 민족자주성의 사상적 가치에 대한 고찰을 통해 3·1운동 정신의 현재성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 학술심포지엄이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드높이는 자리이며 지역 정체성 확보와 계승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정월철 시흥문화원장은 이번 학술대회의 지향점과 구상을 밝혔다. 학회가 아닌 학술대회를 시와 학회가 연합하여 시흥시에서 진행되었다는 것 또한 대단하게 느껴졌다. 진정 시흥시가 철학하는 도시임을 표명한 일이다. 그것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런 학술 심포지엄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 또한 감사했다.

필자는 최근에 유학자인 성호 이익의 독서법을 연구한 사람으로 제일 먼저 유학과 양명학에 대해 관심이 컸다. 성호 이익이 양명학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1분과에서 열리는 <경기유학과 양명학>분과에 더욱 눈길이 갔다. 그곳으로 발길을 자연스레 옮길 수밖에 없었다. 시대를 거슬러 그때의 강학회의 모습이 내 눈 앞에 펼쳐지는 듯 했다. 학자들이 모여 강론을 펼치는 현재의 모습은 조선시대 그 당시에도 늘 있었던 모습이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시점이 필자에게는 참으로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심포지엄을 참관하면서 그 감동적인 잔상이 내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못했다.

누구나 잘 알듯이 정제두 선생이 계시던 시흥시는 20여 년간 양명학을 연구하고 저술한 곳으로 지행합일의 실천적 학문을 지향하던 곳이다. 이러한 시흥시에서 심포지엄을 한다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 이처럼 현실을 크게 학문에 반영하고 미래를 지향했던 학문의 사상과 철학은 시대와 장소

를 불문하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추구해야할 부분이다. 그러기에 심포지엄을 듣는 내내 벽찬 마음이 쉽 없이 북적거렸다. 오랜 시간 동안 눈을 떼지 못하고 흥미롭게 학술심포지엄 속으로 쏘옥 빠져들었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교수가 연구한 발제가 끝나면 사회자가 알기 쉽게 발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었다. 그것이 끝나면 그 발제에 대한 교수의 논평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종합토론 시간에 발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 명료한 답변을 하며 열띤 토론을 하는 방식이었다. 김용재(성신여대) 교수의 기초발표, 함영대(성균관대)교수의 성호학파의 양명학 연구 발표, 전성진(안동대)교수의 정제두와 정약용의 학문을 비교한 발표, 김선희(이화여대)교수의 양명학과 서학 발표 또한 모두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신선한 발표였다. 그리고 각 발제에 따른 논평에는 김민재(충북대)교수, 이영호(성균관대)교수, 박성호(원광대)교수가 맡았다. 날카로운 의문 제기에 흥미진진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학문을 깊이 파고들게 만들었다.

학자가 연구한 각각 학문 클라우드는 큰 학문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이 아닐까? 학문은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다. 학문 클라우드는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그것이 통합적인 학문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학문이 탄생하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본다. 지금도 상충되는 말일 것이다. 그러기에 성리학, 양명학, 실학, 서학 등 그것을 따로 보아 학문에 대해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도 있지만 유기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학문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늘 변화는 계속 되었기 때문이다. 시대변화에 따라서 학자들은 영향을 어떻게 받지 않았을까? 예나 지금이나 학자들은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강론을 통해 문제점을 밝히고 새로운 것을 적용하며 학문을 발전해 나갔을 것이다. 그러면서 학문 또한 많은 변화를 가졌다고 본다.

조선시대 학문을 추구했던 학자들도 그 당시의 시각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접목하며 보고자 하지 않았을까? 2018 학술심포지엄 김선희(이화여대) 교수(자료집 64~65쪽)에서도 성호학파의 강학회 모습이 나온다. 필자 또한 학술심포지엄을 보면서 당시 한 학파의 강학회의 모습을 나타낸 정약용의 글 부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부분을 잠시 수록해 본다. 지금의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지금보다 어찌면 학문에 대한 열정이 더 열띤 토론 모습이었을 것이다.

다산의 문집(서학 강학기)¹⁾에는 성호의 제자 그룹이 1795년 10월 24일 10일간 온양의 봉곡사에 모였던 강회였다 라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다.

1) 정약용의 『서유당 전서』 『사문집』 제21권 <서암강학>
2) 목재는 성호 이익의 손자별 이삼환이다. 이 당시 강학의 좌장이었다.
3) 류홍숙(2018), 『성호이익 독서법의 교육적 의의』, p58-59 재인용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시냇가에 나가서 얼음을 깨고 샘물을 떠서 세수하고 양치질을 하였으며, 저녁에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산언덕에 올라가 소요하면서 풍경을 바라보았는데 연기와 구름이 섞여서 산기(山氣)가 더욱 아름다웠다. 낮에는 여러 친구들과 '질서(疾書)'를 정서하였는데, 목재²⁾가 직접 교정을 하셨다. 밤에는 여러 친구들과 학문과 도리를 강론하였는데 때로는 목재께서 질문하고 여러 사람들이 대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사람들이 질문하고 목재께서 변론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하기를 10일이나 하였으니, 매우 즐거운 일이었다.

학파의 자유로운 강론 방식인 학문 토론의 한 장면이다. 다산 정약용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이 강학에 참가했던 학자들은 주로 안산 내포지역의 유생이었다고 한다. 이런 강론 모습은 무릇 가까운 시흥에도 있음직한 강론의 모습일 것이다. 학문은 읽고 생각한 것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렇듯 강한 열기를 품고 토론을 즐겼을 것이다. 이 글을 통해 선현들의 활발한 토론방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정에서는 새로운 대책으로 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강설과 강론의 대안을 내놓고 있다. 되풀이하여 훈계하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만들어 강론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공론화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강설은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강설을 위해서는 질의문답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하고 고등사고를 증진시켜 사람을 변화할 수 있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궁구강론이라는 것은 토론을 통해 끊임없이 사고하게 만드는 방법인 것이다.³⁾

당시 학자들의 분위기처럼 학문을 강론하면서 항상 쓸데없는 찬사나 겸손으로 하루해를 보내는 것은 몸과 마음의 실질적인 공부가 될 수 없으며 그런 천박한 소견을 가졌다면 차라리 집에서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까지 경계했다. 이러하듯 시대를 뛰어넘어 이런 토론의 형태는 현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2018 학술심포지엄에서도 학문적 문제의식과 입장의 공유에 대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재미있었다. 경기향토문화연구소 학술심포지엄은 양명학에 조예가 깊은 학자들과 시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학문의 장이었다. 이를 지켜보면서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발제에 대한 시각도 새로웠고 발제에 대해 의심을 가졌던 교수님들의 논평 또한 흥미로웠다. 그 의문을 같이 생각하고 궁금했던 것을 공유하며 새롭게 아는 과정이 있었다. 이런 게 학문을 진정 발전시키는 모습이 아닐까? 이와 같이 학문에 대한 열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취지대로 새로운 지역문화콘텐츠로 자리를 잡는데 충분히 일조를 했을 것이다. 시흥은 사실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도시 브랜드화 되는 품격 있는 미래를 열어가는 시흥, '새롭게 혁신하는 시흥'을 표방하고 있다. 더불어 생각하는 시흥, 철학하는 시흥은 시흥의 새로운 모습이다. 이 심포지엄은 아마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추구하는 것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필자에게 삶과 학문의 힘을 돋우는 행복한 학술심포지엄이었다. 아직도 설레는 마음이 남아있다. 이러한 마음은 시흥에서 학문에 대해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시흥에 자부심을 가지고 부푼 기대를 하게 만든다.

시흥의 문화유산

양명학자 정제두 '잠든 300년을 깨우다'

- 추연순



양명학자 정제두 '잠든 300년을 깨우다'

| 추연순 |

시흥문화원은 지난해 건립한 추곡 정제두 선생 유허비에서 추곡선생의 행적과 업적을 기리고자 10월 19일 첫 추모제향을 봉행했다. 필자가 지역언론에 몸을 담고서 시흥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문화원 행사에 특별한 주의를 쏟고 있던 차에 지역내 역사적 인물의 추모제향 행사 취재는 다른 일정을 미루게 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향사(享祀)를 봉행하기 알맞게 아담한 공간에서 전면에 세워진 유허비 뒤로 정제두 선생의 호가 추곡(楸谷)인 것도 마을 이름이 한자 뜻에 따라 '가래울'인것도 틀림이 없다는 듯 예전에는 이 대동우물 주변으로 가래나무 울로 둘러져 있어 그가 살았을 추곡을 증명하고 있었다고 한다.

사실 추곡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정작 필자가 유허비에 새겨진 '한국 양명학의 발상지' 글귀를 보는 순간 어느 시대든 비주류로 살아간 사람들의 애환서린 삶의 화인처럼 양명학(陽明學)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도드라지면서 잠든 300년의 역사를 순식간에 깨워 눈앞에 소환했다.

유허비를 보는 순간의 숙연함은 '리(理)'의 원리로 세상이 지배되던 시대의 이단아로 '심(心)'의 논리를 연구해야 했던 고집스러운 사람의 강직함 내지는 고독함 같은 내면의 감정들을 같은 시대를 살지 않았음에도 몇 세대를 거슬러 그 앞에 선 느낌이 유허비 바위의 무게만큼 묵직하게 다가왔다.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릴 수도 있었을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가 그토록 많은 벼슬을 제의받아도 사의를 표하고 학문의 길에 정진했음은 시대를 살아내기 위한 처세였으리라는 주관적 생각이 스쳐가는 동안 향사는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윤여빈 전 성균관 의례부장의 자문하여 서원향사 흥기를 모범으로 진행된 제례를 보면서 저 알 수 없는 향사의 절차와 격식만큼이나 이기론(理氣論)이든 양지체용도(良知體用圖)든 어렵게 느낄 후손들이 뭣도 모르고 헌작을 구경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야릇한 마음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모의식이 격을 갖추어 진행되는 것에는 강력한 정신문화 흡착의 빨림 현상처럼 가늠하기 어려운 깊이의 감동에 빠져들었다.

이 땅에 양명학이 뿌리를 내렸든 내리지 못했든 우리 선조들의 정신적 사상의 뿌리인 유학으로부터 엄연히 그 사상적 학파를 형성해 숭배 받을만한 사상가가 사후 300년이 훨씬 지나 문중종친들의 제사가 아닌 지역주민을 중심(추곡서원, 시흥양명학연구회)으로 엄숙하게 주도하는 추모제향 향사를 봉행 받고 있었다. 한때 조선의 정신문화를 지배했던 성리학의 사단칠정 논쟁으로부터 주리설(主理說)과 주기설(主氣說)에 대해서는 당파와 정쟁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일화들과 맞물려 그토록 가깝게 여겨졌으면서도 양명학의 심즉리(心卽理), 치양지(致良知), 지행합일(知行合一)은 이론 그 자체로 심

리적 거리감을 느꼈던 학문이었건만 향사를 취재하는 동안만큼은 엄청난 사상가의 한사람으로 가까이서 필자를 압도하고 있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올 무렵에는 시흥문화원에서 지역문화창달에 이바지하고자 첫 향사를 봉행했다지만, 머지않아 행사에 그치지 않고 언젠가는 주자학 관련 흐름의 사상적 측면을 일신하고 21세기 시민평등의 기조인 양명학이 사상을 주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품게 하면서 필자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추모제향 홀기

시흥문화원 주최 추곡서원 주관으로 2018년 10월 19일(금) 오후 2시 시흥시 화정동 661번지 소재 '추곡 정제두 선생 유허비'에서 추곡 정제두(鄭齊斗, 1649~1736) 선생을 기리는 '추곡서원 향사(享祀)'를 처음으로 봉행했다. 향사 후에는 2018 문화의 날 기념식 및 제5회 시흥문화지킴이 시상식도 개최됐다.

행사의 시작은 시립전통예술단의 피리연주 '연정', 해금연주 'Always In A Heart'를 연주해 유려한 선율의 식전공연이 제향(祭享)의 분위기를 고양시킨 가운데 엄숙한 향사 봉행에 들어갔다. 추곡서원 향사는 의례전문가인 윤여빈 전 성균관 의례부장의 자문으로 격식을 갖추어 봉행하고, 제향의 절차는 서원의 향사 홀기를 모범으로 진행됐다. 향을 사르고 신위전에 폐백을 올리는 전폐(奠幣)를 시작으로 축문을 태워 의식을 마무리하는 망예(望瘞)를 끝으로 향사를 마무리 했다.

이날 추모제향에는 시흥시의회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 안돈의 시의원, 경기문화재단 이지훈 경기학연구센터장,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박도희 시흥시지회장 국회의원 함진규 성경진 사모 등이 내빈으로 참석하였다. 시흥시 가래울마을(추곡[楸谷])은 정제두 선생이 20년간 거주하면서 신유학인 명대 양명학을 받아들여 '학번(學辯)'과 '존언(存言)'을 저술하고, '양지체용도(良知體用圖)'를 그리면서 성학(聖學)으로서 위기지학(爲己之學)하여 후학을 양성한 정제두 추모제향은 경기문화재단의 '경기지역학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시흥시와 시흥시의회가 후원하였다.

추곡서원 추곡 정제두 추모제향 천망표

초헌관	정원철	시흥문화원장
아헌관	이신영	시흥시 경제국장
종헌관	정한일	영일정씨 시흥 문중
집례	전남훈	추곡서원장
해설집례	김영례	시흥양명학연구회원
대축	유한형	시흥향토문화연구소장
봉향	정교승	영일정씨 시흥 문중
봉로	이재만	챔버오케스트라단장
봉작	김정식	시흥문화원 대의원
전작	김영기	시흥문화원 부원장
사준	정현국	시흥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알자	윤여빈	전 성균관 의례부장

문화진단 서

양명학적 인성교육 - 정준교

제2회 하곡학 국제학술대회 인터뷰 - 편집부



인성교육, 양명학에 길을 묻다

| 다음세대살림연구소장 정준교 |

01 들어가며

전 세계 사람들 중,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망(羨望)하는 국제적인 상이 있다. 노벨상이다. 그중 대표는 단연 <노벨문학상>이다. 2016년 10월 13일 스웨덴 한림원은 깜짝 발표를 하였다. 이제까지의 관례와 달리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미국 포크가수 밥 딜런(Bob Dylan)이었기 때문이다. “귀를 위한 시”라며, 인류 역사 5,000년의 역사상 호머와 사포에 비견된다고 하였다.¹⁾

그러나 밥 딜런은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가타부타 말을 4개월이나 하지 않았다. 한림원의 속을 새까맣게 만들다가, 12월 시상식에는 '선약'을 이유로 불참하였다. 그는 2017년 4월 1일 스톡홀름 공연을 앞두고, 공연장 인근 호텔에서 비공개로 노벨문학상 증서와 메달을 받았지만, 공연을 하는 동안에도 노벨상에 대해서는 입도 뺏기지 않았다.²⁾

밥 딜런은 대표적 반전곡인 그의 대표곡 <바람만이 아는 대답 Blowin in the wind>에서 많은 질문을 한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람만이 안다고 한다.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봐야

진정한 인생을 깨닫게 될까?

흰 비둘기는 얼마나 많은 바다 위를 날아보아야

백사장에서 편히 쉴 수 있을까?

전쟁의 포화가 얼마나 많이 휩쓸고 나서야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Yes, 'n' how many seas must a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Yes,'n'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 balls fly

1) 이지영, 김준영, <‘Blowin’ in the wind’ 밥 딜런 노벨상 시인 되다>, 《중앙일보》, 2016.10.14.

2) 인현우, <밥 딜런, 4개월 만에 비공개로 노벨상문학상 받았다>, 《한국일보》, 2017.4.2.

영원한 평화가 찾아오게 될까?
친구여, 그건 바람만이 알고 있다네
바람만이 그 답을 알고 있다네.

Before they're forever bann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 in the wind.

산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야
씻겨서 바다로 갈까?
사람은 얼마나 긴 세월이 흘러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까?
언제까지 고개를 돌리고
모르는 척 할 수 있을까?
친구여, 그건 바람만이 알고 있다네.
바람만이 그 답을 알고 있다네.

How many years must a mountain exist
Before it is washed to the sea?
Yes,'n' how many years can some people exist
Before they're allowed to be free?
Yes,'n' how many times can a man turn his head
And pretend that he just don't see?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 in the wind.

얼마나 많이 올려다 보아야
진짜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겪어야
타인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을 알게 될까?
친구여, 그건 바람만이 알고 있다네.
바람만이 그 답을 알고 있다네.
친구여, 그건 바람만이 알고 있다네.
바람만이 그 답을 알고 있다네.

How many times must a man look up
Before he can see the sky?
Yes,'n' how many years must one man have
Before he can here people cry?
Yes,'n' how many deaths will it take till he knows
That too many people have di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 in the win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 in the wind.

밥 딜런이 던진 질문들에 대해 초등학교생들은 무어라 답을 할까? 인생에 대한 답, 전쟁과 평화에 대한 답 등의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답을 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생은 인생과 전쟁과 평화 등에 대해서는 몰라도, 산이 평지가 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적 지식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밥 딜런은 왜 답을 모를까? 그가 미네소타 대학을 중간에 그만두었기 때문인가?

2015년 1월 20일 한국 국회는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다.³⁾ 일명 '이준석'방지법으

3)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2015.01.20 [법률 제13004호, 시행 2015.07.21.]

로 불린 이 법은 세월호 참사에서 승객들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친 선장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필요성을 절감해서 만들어졌다.⁴⁾ 그러나 인성교육진흥법은 갑자기 나온 법이 아니고, 1995년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의 연장선에서 나왔다.⁵⁾

그 상징이 인성교육진흥법 제1조(목적)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데에 드러나 있다.⁶⁾ 곧, 청소년들이 인성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은,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들이 도출된다.

청소년들이 인성을 갖추는 것이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 국가사회의 발전이란 무엇인가? 청소년들이 인성을 갖추고 국가사회가 발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인가? 국가가 발전하면 개인도 함께 발전하는 것인가? 발전이란 무엇인가? 더 근본적으로 인성이란 무엇인가? 등이다. 달리 표현하면, 자녀들이 인성을 갖추는 것이 가정의 발전을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 가정의 발전이란 무엇인가? 청소년들이 인성을 갖추고 가정이 발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인가? 가정이 발전하면 자녀 개인도 함께 발전하는 것인가? 발전이란 무엇인가? 더 근본적으로 인성이란 무엇인가? 등이다.

이 질문들 중, 온 나라를 혼돈에 빠뜨렸던 국정교과서 사태에서 보듯이, 국가사회의 발전에 대한 답조차 쉬운 질문이 아니다. 다른 답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밥 딜런이 받은 노벨상이 국가사회 발전의 심볼(symbol)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수상을 위안으로 삼으면서도, 이웃인 일본의 노벨과학상 20명을 포함하여, 문학, 생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25명의 수상자들과 비교한다.

한국사회는 일본의 노벨상 수상들을 바라보며, 왜 우리는 받지 못하는가를 논의해왔다. 일본의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 UC샌타바버라 교수는 “한국도 기초과학에서 (노벨상 수상 같은) 성과를 내려면 씨를 뿌린다는 마음으로 오랜 기간 지원해야 한다”고 고언(苦言)했다.⁷⁾ 곧 사람들이 가능성이 없다고 무시했던 프로젝트에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기에 배 아파하면서도, 같은 교육현실 속에서 헤매고 있다. 그런데 밥 딜런은 모두가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 노벨상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노벨상에 대해 ‘남들과 다른’ 의미를 두었다. 아마도 그것이 밥 딜런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많은 과학자들처럼 노벨상 수상을 위해 평생토록 노력하거나, 밥 딜런처럼 노벨상 수상에 대해 ‘남들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 중, 어느 쪽이 과연 우리

4) 서머리, 〈인성 교육하면 제2의 이준석이 안 나올까요?〉, 《프레시안》, 2015.07.31.

5)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新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II), 제3차 대통령보고서》, 1996, p.38.

6) 인성교육진흥법, 제1조(목적).

7) 이심기, 〈“한국 노벨상 수상? 10년, 20년 걸릴지도 몰라”〉, 《한국경제》, 2015.10.19.

나라 청소년들이, 나의 자녀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목표인가? 둘 다 아니라면, 과연 어떤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러한 고민들은 조상들도 했던 고민들이다. 유가 철학자들은 인간과 그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도덕과 당위를 지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천적인 문제로도 이해하였다. 그들이 목표로 삼았던 성인(聖人)은 어떤 의미였을까? 이 글에서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되는 인성교육에 대한 논의를 유학자, 특히 왕양명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02

인성교육에
대한 고민

미군정 이후 민주적 학교교육이 실시되면서, 모든 교과에서 도덕교육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모든 교과에서도 도덕교육을 하지 못하였다. 이후 제1차교육과정(1954-1963)의 반공도덕교육, 제2차교육과정(1964-1973)의 반공도덕생활교육, 제3차교육과정(1973-1981)의 인지적 원리 중심의 도덕교육, 제4차교육과정(1981-1987)의 통합교과로서의 도덕적 원리교육, 제5차교육과정(1987-1992)의 도덕적판단능력 강조, 제6차교육과정(1992-1997)의 인지적 도덕교육과 전통적 덕목교육의 병행과 5.31 교육개혁안, 제7차교육과정(1997-)의 체험위주의 인성교육⁸⁾ 등이 지역 사회나 학교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성공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⁹⁾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된 후, 박근혜 정부는 인성교육종합계획수립(2015년), 인성교육종합 계획 실천(2016년), 인성교육 평가 활용 및 확대(2017년)의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다.¹⁰⁾ 인성교육진흥법에서 말하는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목표로 한다.¹¹⁾ 그리고 인성교육의 전제는 국가가 정의한 인성의 핵심가치들을 청소년들이 갖추게 되면, 청소년들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¹²⁾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한다. 첫째, 청년들의 학교폭력, 자살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단순히 청소년들의 인성부족 때문에 일어나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일반적으로는 청소년 인성교육의 효과는 교육계의 노력이 실제로 담보되어야 나타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¹³⁾ 현실적으로, 청소년

8) 황매향, <미래학교의 인성교육 역량강화 방안 연구>,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정책연구과제 2007-4》, 2007, pp.22-24.

9) 임지연 외,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5-R04》, 2015, p.3.

10) 박규열 외, <인성교육 진흥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RR 2015-16》, 59, 2015.

11)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12) 김범수, <교육칙어, 국민교육헌장, 인성교육진흥법>, 《한국일보》, 2015.08.06.

13) 손경원, <인성교육의 연구 동향과 과제>, 《윤리교육연구》 39, 2016, p.103.

들의 학교폭력은 인성교육이 부재할수록, 교실문화가 폭력적일수록, 권력관계에서 권력형가해자에 대한 적응의 정도가 강할수록, 심하게 나타난다.¹⁴⁾ 곧, 인성의 부재가 청소년들의 폭력에 영향을 미치지 만, 다른 요소들의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영철과 같은 연쇄살인범의 어린 시절은 다른 연쇄살인범의 어린 시절의 경험처럼, 부모의 이혼, 아동피학대경험, 부모로부터 무관심과 버림받음, 양육환경의 열악과 잘못된 양육, 불우한 가정환경 등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¹⁵⁾ 곧, 청소년들의 인성이 나빠진 환경에 의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고려하여, 환경의 변화를 읽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다.¹⁶⁾

따라서 입시위주의 교육이나 사회구조 여건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청소년 관련 사회문제들은 해결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많다.¹⁷⁾ 청소년 관련 문제의 상당부분의 원인인 입시 경쟁교육을 그대로 둔다면, 청소년 문제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다. 여기서 인성을 평가하여 입시 등에 반영하겠다는 정보를 듣고, 사교육업체들이 새로운 시장의 탄생으로 이해하고 환호성을 질렀다는 이야기에 주목 해야 한다. 잘못하면, 청소년들의 인성 수준 향상과 상관없이, 인성등급 잘 받기 경쟁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경쟁의 영역 추가로 그칠 수도 있다.

청소년들은 세월호 참사로 큰 충격을 받고,¹⁸⁾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¹⁹⁾ 간접 외상증상(indirect trauma syndrom)을 경험한 청소년들도 있다.²⁰⁾ 일부 청소년들은 구조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청와 대에 항의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²¹⁾ 의자놀이²²⁾ 사회, 세월호 사회에서 불안하고 불행하게 살아온 청소년들이 SNS 등에서 의견을 나누거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명발표 등의 자율적인 행동을 했다.²³⁾ 또 다른 청소년들은 “과연 우리 사회는 어디로 향하고, 무엇이 가능한가?”를 물으며, 진정한 민주주의 가능성을 고민하였다.²⁴⁾

14) 강소영, <학교폭력에 대한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접근-폭력적 교실문화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8:2, 2012, p.20.

15) 김상균, <연쇄살인범의 범죄심리학적 특성분석-유영철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1, 2005, p.29.

16) 손경원, 위 글, p.107.

17) 손경원, 같은 곳.

18) 매우 큰 충격받음 39.4%(413명), 비교적 큰 충격받음 47.9%(502명), 별로 크지 않은 충격받음 10.0%(105명), 전혀 큰 충격안받음 2.6%(27명).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참교육연구소, 《세월호참사에 대한 고2학생 의식조사 통계표》, 2014.7.30.

19) 매우 큰 절망느낌 27.1%(278명), 약간 큰 절망느낌 39.6%(407명), 별로 안느낌 24.8%(255명), 전혀 안느낌 8.5%(87명).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참교육연구소, 위 글.

20) 손승희, <사회적 사건에 의한 청소년의 간접외상 및 관련요인 연구: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10, 2014, p.269.

21) 이윤정, <지금 대통령께서는 헌법을 위반하셨습니다.>, 《청와대 계시판》, 2014.4.27.

22) 공지영의 소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도록 몰아붙이는 각자도생(各自圖生), 강자독생(强者獨生)인 삶의 잔인함과 폭력성을 드러냈다.

23) 정경일, <애도, 기억, 저항-세월호 ‘안’의 민중신학>, 《기독교사상》, 2014, p.184.

24) 이해진, <세월호 참사, 우리는 기억의 의무를 기꺼이 져야 한다>. 인디고서원(역음),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부산: 인디고서원, 2014, pp.31-33.

그들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진흥법은, 잘못하면, ① 사교육 시장에는 새시장을 제공하고, ② 인성교육의 이름으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었던 ‘가만히 있으라’의 교육을 ‘법’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²⁵⁾ 따라서 인성교육진흥법이 과연 입시경쟁교육의 폐해를 넘어설 수 있으지와, 학생과 교사의 내면을 보수적 가치로 채우고 사회의 방향을 우향우 시키려는 철저한 기획 속에서 그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²⁶⁾

둘째, 인성교육 개념과 목표에 대한 혼선이다. 정치권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을 이준석 방지법이라 부르는 것은, 이준석 같은 사람이 인성교육의 실패로 나타났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 때와 수습과정에서 빛이 났던 많은 의인들과, 생업을 뒤로 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²⁷⁾ 위험을 목적에 두고 서로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주던 청소년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현재까지 인성교육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인성이나 인성교육의 개념을 연구자마다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인성은 성격, 인격, 인간의 성품 등과 같은 의미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아직도 인성교육은 확정되기를 바라는 개념이다.²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가치교육은 ‘인성교육’보다, ‘시민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들은 세월호 참사의 재발 방지에는, 이준석 선장과 같은 사람의 출현을 막는 것보다, 그런 사람이 선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이 더 낫고,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다.²⁹⁾

그 이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다양성 안에서는 다양한 사람들, 곧 더 이기적인 사람, 더 무책임한 사람, 반대로 더 이타적인 사람, 더 책임있는 사람이 뒤섞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그러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한에서, 합의 가능한 공적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³⁰⁾

따라서 다수의 도덕적 가치관이나 윤리적 확신이 언제나 옳다고 하는 이른바 ‘의제(擬製)된 진실’이 강요되어서는 안 되는데, 인성교육진흥법에서의 ‘핵심가치’들이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은 것임에 비추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더구나 헌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인성교육진흥법」 및 하위법령에서 국민이 반드시 따라야만 할 ‘핵심가치’로 규정하고, 이를 교육과정에서 강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청

25) 김진, 〈인성교육진흥법의 다른 이름 ‘가만히 있으라’ 법, ‘가만히 있지 말라’〉, 《전교조 보도자료: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2015.7.9.

26) 김진, 같은 글.

27) 정원규, 〈논평: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위기의 한국 교육 탈출구는 어디에?: 경기도교육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4.09.30, pp.23-29.

28) 손경원, 위 글, p.108.

29) 정원규, 위 글, pp.23-29.

30) 정원규, 같은 곳.

소년들의 개성 및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고, 교육기본법 9조(학교교육)와 13조(보호자)에 인성교육의 규정되어 있는 교육의 최우선적 가치라는 점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³¹⁾

셋째, 인성교육진흥법에서 말하는 인성과 핵심가치들이 세월호 참사를 가져온 경제 우선주의적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이다. 5·31 교육개혁에서는 ‘기업에게 쓸모없는 교육을 쓸모있는 교육으로 바꾼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³²⁾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5·31 교육개혁이 신자유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³³⁾

그런데 범사회적인 인성교육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속에 기업이 위치한다. 여기에는 인성을 반영한 기업인재 채용이 있다.³⁴⁾ 그리고 이것은 기업에서 선호하는 인재상을 반영한 인성교육이 될 가능성이 크다.³⁵⁾ 곧 산업체의 요구가 반영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수요요건을 반영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다.³⁶⁾

그리고 다수의 기업이 인재 채용방식에서 지원자의 인성에 비중을 두기 시작함에 따라, 이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한 예가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업의 인재수요 트렌드를 반영한 인성평가에 대한 관심이다.³⁷⁾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에는 NCS 활용 우수기업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³⁸⁾

넷째, 인성교육진흥법에서 말하는 인성과 핵심가치들이 제4차 산업혁명 이후의 변화된 환경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역사적으로 보편적인 개념일 것인가?이다.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은 인류 역사에서 가치를 인정받아온 개념들이다.

그러나 농경사회와 정보사회의 예(禮), 동양사회와 서양사회의 예(禮)가 같은 예(禮)일까? 농경사회 대가족 혹은 확대가족사회와 정보사회 1인가구의 효(孝), 동양사회와 서양사회의 효(孝)가 같은 예(禮)일까? 고려시대의 노비와 조선시대의 천민들, 많은 사회에서의 노예들에게는 위와 같은 가치들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글로벌사회에서 다양한 민족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할 청소년

3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도자료: 전교조 등 일부 교육단체의 인성교육진흥법 폐기 주장에 대한 교총 및 인실련 입장》. 2015.07.23.
 32)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新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II). 제3차 대통령보고서》. 1996, p.6.
 33) 김천기. 〈한국교육의 신자유주의화 과정과 그 성격: 학교의 입시학원화와 ‘자율적 통치성’ 강화〉. 《교육종합연구》. 10:1. 2012, pp.119-149.; 김용일(2006). 5.31 교육개혁의 현황과 전망. 교육문제연구. 24. p.128. pp.127-145.
 34) 손경원. 위 글. p.121.
 35) 박성배, 조수선, 김정희(2013). 〈여성 취업과 직장 내 성공 요인에 대한 공대학생, 교수 및 기업체 대표 간의 인식 분석〉. 《공학교육연구》. 6:6. 2013, pp.58-64.
 36) 정미숙.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과 창의성교육 방안: 비서과 학생 인식조사 및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28:5. 2014, 69-93. pp.74-75.; 전용철, 황용익, 서인석. 〈e-비즈니스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교육 필요성 분석:제천시역을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26:3. 2012, 1-20. p.1.
 37) 차봉준. 〈대학 인성교육의 방향 설정과 활성화화를 위한 시론-S대학 인성교과목 개설을 중심으로〉. 《대동철학회》. 72. 2015, p.25, p.41. 23-45.
 38) 라이쿰, 모두투어, DCI 열처리, Tee Cloud, 영림원, 광명전기, 불스원, 건강사랑. http://www.ncs.go.kr/ncs/page.do?sk=P3A4_PG35_009&mk=MU00000219&uk=MU00000070#pageNo=1.〈검색일: 2017.4.10.〉p.41. 23-45.

들에게 위와 같은 가치덕목이 필요하고도 충분한 것들일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03

왕양명에게
묻다

한국에서 인성교육은 미군정 이전까지, 단군신화, 불교, 유교를 배경으로 하는 덕목 교육으로 실시되어 왔다.³⁹⁾ 과거에는 태교부터 시작하는 인성교육에서 지식 습득과 함께, 공부의 목적도 중요하게 생각했다.⁴⁰⁾ 그리고 인성교육을 유가적 전통에서는 “타고난 본성을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천리(天理)에 합당하도록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는 격물치지(格物致知)와 성의정심(誠意正心)의 수기(修己)로서, 격물치지는 인식론, 성의정심은 수양론에 속한다.⁴¹⁾

구체적으로 퇴계 이황은 존심성양(存心性養) 처방에 내재의 리(理)를 실천의 선(善)에 접목하는 거경궁리(居敬窮理) 과제로, 탁한 기운(氣運)을 정화하려고 하였다. 다산 정약용은 상제(上帝)섬김의 사천(事天)을 요체로, 천명지성을 수용하는 권형(權衡)과 선택적 결단을 실천하는 행사(行事)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이해하였다.⁴²⁾ 하국 정제두는 ‘참된 마음(實心)에 바탕을 둔 참된 인간상의 확립’을 목표로, 생리설(生理說)과 양지체용론(良知體用論)을 주장하였다.⁴³⁾

유학 중 주자학이 도덕성 함양을 통한 사회 정의 확립을 지향함에도, 조선시대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계기로 사회가 직면한 현실문제 해결에 한계를 드러낼 때 등장한 것이 실학과 양명학이다. 특히 조선 양명학은 하국 정제두(鄭齊斗, 1649-1736)의 내실(內實)사상을 근간으로 하였다.⁴⁴⁾ 이후, 천주교의 전래와 함께, 그리고 개화사상의 수용과 함께 양명학이 수용되었다.⁴⁵⁾

현재의 청소년 인성교육에서 전통적 가르침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 볼 수 있는 것들이 4가지이다. 첫째, 학교에서 배운 인성교육과 현실 세계와의 괴리이다. 학교에서 배운 도덕이나 정직함이 실제 삶 속에서 ‘정직하면 손해보고, 교통신호를 지키면 바보되는’ 경험으로 나타나고 있다.⁴⁶⁾ 주자학이 선지후행(先知後行)을 강조함에 비해, 양명학은 지행합일(知行合一)을 강조한다.⁴⁷⁾

둘째, 청소년들의 창의성 계발 필요성이다. 창의성 계발은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질문에서부터 출발한다. 주자학이 정답을 요구함에 비해, 양명학은 독창적

39) 황매향, 위 글, pp.22-24.

40) 민성욱, <인성교육, 우리 역사 속에 답이 있다>, 《코리아스피릿》, 2015.2.13.

41) 박의수, <유가적 전통에서의 인성교육>, 《교육문제연구》, 28, 2007, pp.1-22.

42) 김용환, <조선의 인성교육 범례연구>, 《윤리교육연구》, 37, 2015, pp.139-150.

43) 송석준, <한국 양명학의 형성과 하국 정제두>, 《양명학》, 6, 2001, p.6

44) 송석준, <한국 양명학의 역사적 성과와 발전 방향>, 《한국양명학회》, 30, 2011-2012, pp.136-140

45) 송석준, <한국 양명학의 형성과 하국 정제두>, pp.5-33

46) 송석준, <인성교육의 연구 동향과 과제>, 《윤리교육연구》 39, 2016, p.127.

47) 문성환, <전습록, 얇은 삶이다>, 북드라망, 2012, pp.11-12.

인 질문을 더 중시한다.⁴⁸⁾ 셋째, ‘알파고’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이다. 주자학은 움직이는 현실을 일단 정지시켜놓고 설명하려는 정태적 성격이 강하고, 양명학은 현실 자체를 받아들여 설명하려는 동태적 성격이 강하다.⁴⁹⁾

넷째,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치항목들의 다양함이다. 다양한 가치항목들의 변별성과, 명확성이 정리되지 않은 혼란과 무질서 상태에 직면한 청소년들의 당혹감은 적지 않다.⁵⁰⁾ 주자학에서는 각 사물의 이치를 고려하자, 양명학에서는 주체적 입장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양명학이 주자학보다 현재의 청소년 인성교육에 더 상황 적합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왕양명은 다음과 같은 경험과 제안을 들려준다. 양명 왕수인은 청소년시기인 18세에 만난 주자학자 누일재(婁一齋)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대나무를 바라보며 성인(聖人)에 이르는 이치를 깨닫고자 하였다. 양명은 새벽에 대나무와 대화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대나무와 관련된 모든 지식들을 찾아 읽고 내용을 정리하였다. 온통 대나무 생각뿐이었고, 대나무 꿈도 꾸었다. 양명은 결국 1주일만에 포기하였다. 그가 부딪힌 최초의 패배였다. 대나무 격물의 실패는 양명에게 큰 좌절감을 주었다.⁵¹⁾

이후 양명은 35세에 황제에게 환관 유근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장형 40대의 형벌을 받고, 변방인 용장의 역승(驛丞)으로 좌천되었다. 낯선 땅의 물과 기후, 짐승들과,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묘족(苗族) 원주민들에 둘러싸여 생존을 걱정했다. 이때 양명은 스스로에게 질문하였다. 지금의 나와 같은 상황에서 성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어느날 밤 어느 때처럼 석관(石棺)에 누워 잠을 청하다가, 갑자기 깨달음에 눈을 떴다. 자신의 삶의 길을 다른 데서 찾는 성인은 없었던 것이다. 삶의 길이 다른 성인에게 있지 않고, 지금 내게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양명은 흥분하여 소리쳤다. “성인의 도(道)는 나에게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사물에서 이치(理致)를 구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성인이 있고, 성인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성인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성인이라는 것이다. 이의 깨달음을 용장대오(龍場大悟)라 한다. 용장대오는 깨달음이란 결국 무엇인가로부터 다른 무엇인가로 자각되는 것임을 알려준다. 깨달음을 얻으려면, 자신과 가까운 곳에서 출발한 질문을 해야 한다. 절실하고 진실된 질문이 있는 곳에 딱 그만큼의 절실하고 진실된 답이 있다. 이 과정이 학문의 과정이자, 깨달음의 과정인 것이다.⁵²⁾

48) 정인재, 《양명학의 정신》, 한국문화원연합회, 시흥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추곡서원: 정제두와 양명학》, 2016, pp.24-28.

49) 정인재, 《양명학의 정신》, p.24.; 유한형, 《주자학과 양명학의 비교》, 한국문화원연합회, 시흥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추곡서원: 정제두와 양명학》, 2016, p.128. pp.125-129.

50) 박효중, 《윤리도덕의 위기와 인성교육의 방법》, 《사대논총》 63, 2001, p.144.

51) 문성환, 위 글, pp.37-42.

52) 문성환, 위 글, pp.43-50.

왕양명의 제자 서애가 스승에게 물었다. “예컨대 부모를 섬기는 효도(孝道), 임금을 섬기는 충성(忠誠), 벗과 사귀는 믿음, 백성을 다스리는 어짊 등, 그 사이에는 수많은 이치가 있으니, 또한 살피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양명) 선생께서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그러한 학설의 폐단이 오래되었으니, 어찌 한마디 말로 깨우칠 수 있겠는가. 우선 (그대가) 질문한 것에 나아가 말해보자. 가령 부모를 섬기는 경우, 부모에게서 효도의 이치를 구할 수는 없고, 임금을 섬기는 경우 임금에게서 충성의 이치를 구할 수는 없으며, 벗과 사귀고 백성을 다스리는 경우도 벗과 백성에게서 믿음과 어짊의 이치를 구할 수는 없다. 모두가 다만 이 마음에 있을 뿐이니, 마음이 곧 리(理)다. 이 마음이 사욕(私慾)에 가려지지 않은 것이 바로 천리(天理)이니, 밖에서 조금이라도 보탬 필요가 없다. 이 순수한 천리의 마음을 부모를 섬기는 데 드러낸 것이 바로 효도고, 임금을 드러낸 것이 충성이며, 벗과 사귀고 백성을 다스리는데 드러낸 것이 바로 믿음과 어짊이다. 다만 이 마음에서 인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하는데 힘쓰기만 하면 된다.”⁵³⁾

인성교육이란 청소년들이 갖추지 못했지만, 사회가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특정한 가치덕목을 가르치는 행위이다. 그런데 왕양명은 청소년들에게서 성인들이 바라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그들의 마음이 사욕(私慾)에 가려졌기 때문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이리저리한 가치덕목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욕을 제어할 수 있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곧, 청소년들이 천리, 곧 양지(良知)를 온전히 회복하면, 각기 상황에서 이리저리한 가치덕목들이 발현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떤 가치덕목들이 더 중요한지, 지금처럼 어떤 가치항목이 더 타당한지를 놓고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성인(聖人)이나 보통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은 양지가 있다. 성인은 그 양지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고, 보통사람은 그럴 수 없는 사람인 것뿐이다.⁵⁴⁾ 따라서 오히려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청소년들이 바른 마음, 곧 양지(良知)를 꾸준히 추구하는 치양지(致良知)의 노력을 하여 성인(聖人)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왕양명에게 제자 서애가 물었다. “예컨대 이제 부모에게는 마땅히 효도를 하고, 형에게는 마땅히 공손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도리어 효도하지 못하고 공손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앎과 행위가 분명한 두가지 일임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양명은 “가령 아무개가 효도를 알고 아무개가 공손함을 안다고 말할 경우도, 반드시 그 사람이 이미 효도를 행하고 공손함을 행해야만 비로소 그가 효도를 알고 공손함을 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효도와 공손함에 대해 말할 줄 안다고 해서, 효도와 공손함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아픔을 안다고 할 경우, 반드시 자기가 이미 아픔을 겪어야만 비로소 아픔을 안다고 할 수 있으며, 추위를 안다는 것도 반드시 자기가 이미 추위를 겪었어야 하며, 배고픔을 안다는 것도 반드시 자기가 이미 배고픔을 겪었어야 하는 법이니, 지행(知=行)을 어

53) 문성환, 위 글, pp.87-88.

54) 문성환, 위 글, p.107.

떻게 분리시킬 수 있겠는가?”⁵⁵⁾

곧 인성교육에서 청소년들에게 효(孝)를 이야기할 때, 그(녀)가 효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로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효(孝)를 배운다는 말도 이상하지만, 효란 이리저리한 무엇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천(孝行)으로서만, 그의 효를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효(孝)란 통계나 수치로 매뉴얼화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실천을 통해서만, 어떤 행위의 효과로서만 등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현상을 통해 효의 존재를 긍정할 수 있다.⁵⁶⁾

이는 마치 미국의 급진적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의 주장을 보는 것과 같다. 스키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들의 학습에 대해 그 개념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그 개념의 학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수 있는 드러나는(overt) 행위로 경험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개념의 학습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⁷⁾

효를 행해야 한다고 아는 사람이 효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왕양명은 앎과 행위가 불일치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효를 행해야 한다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은 효를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왕양명의 주장은 인성교육에 있어서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곧, 지금까지와 같은 지식위주의 인성교육은 의미가 없고, 지행합일(知行合一) 방식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왕양명은 여행 중에 한 친구에게 <바위 사이에 핀 꽃>에 대한 일화를 들려주었다. “선생께서는) 천하에 마음 밖의 사물은 없다고 했는데, 깊은 산속에 저절로 피었다 지는 이 꽃나무와 같은 것이 내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이 꽃을 보지 못했을 때, 이 꽃과 그대의 마음은 함께 적막 속으로 돌아간다. 그대가 이 꽃을 보았을 때는 이 꽃의 색깔이 일시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이 꽃은 그대의 마음 밖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⁵⁸⁾

곧, 지금 누군가 어떤 꽃을 보기 전까지 그 꽃은 아마도 수년간 혹은 그 이상 그곳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꽃을 보기 전에는 그에게 그 꽃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가 꽃을 보는 순간, 비로소 그 꽃은 ‘격물(格物)하는’ 물(物)이 되었다. 이는 마치 시인 김춘수가 꽃이란 시(詩)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부른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청소년들이 향후 어떤 진로의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마치 거울이 무엇을 비출 것인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음과 같다. ‘비춤이라는 이치가 거울에 있

55) 문성환, 위 글, pp.119-120.

56) 문성환, 위 글, pp.120-121.

57) 스키너, 이장호(옮김), 《월든 2》, 현대문화, 2005, p.465

58) 문성환, 위 글, p.95.

지 않기 때문이다.⁵⁹⁾ 지금 이곳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환경에서 의미있는 일을 생각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가치덕목을 배우고 익히면 되는 것이다. 향후 불확실하게 다가오는 미래의 상황에서는 그때에 대응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청소년들이 향후 어떤 진로의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곳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환경에서 의미있는 일을 생각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면 되는 것이다.

04
나가며

1983년 4월 대구 향촌동 디스코클럽 화재와 1984년 2월 서울 석관동 맥주홀 화재로 10대 청소년들이 대량으로 몰사한 사건은 학생들의 탈선과 일탈행위가 오래 전부터 만연하였음을 보여준다.⁶⁰⁾ 통계청이 조사한 2012년 현재의 폭력피해 경험정도는 아래의 <표 1>에서와 같이, 5.6%였다.⁶¹⁾

<표 1> 청소년(중·고등학생) 폭력 피해 경험률 및 이유

구 분	폭력 피해 경험률	폭력 피해를 당한 이유							
		계	특별한 이유없다	몸이 작거나 힘이 약해서	내가 잘못해서	외모나 장애 때문	성격 때문	금품요구에 응하지않아	기타
2012	5.6	100	51.8	9.5	9.6	3.7	12.4	2.4	10.5
중 학생	7.6	100	51.1	10.0	9.7	2.2	12.1	2.1	12.7
고등학생	3.7	100	52.7	9.0	9.5	5.5	12.7	2.8	7.8

그런데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조사에서는, 2011년 18.3%, 2012년 12.0%, 2013년 6.3%, 2014년 3.8%였다. 곧, 점차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있다.⁶²⁾ 아마도 이것은 인성교육의 결과일 수 있다. 왜냐하면, 2012년에 이명박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 인성교육 활성화를 선택하고, 청소년 인성실태와 인성교육 실패 원인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결과, 인성교육 시범기관의 88%에서 유아의 건강한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덕체를 고루 갖춘 미래의 건강한 민주시민 양성 목표의 달성정도가 높았기 때문이다.⁶³⁾

그런데 전체 폭력의 횟수는 감소하였으나, 형태는 다양해지고, 폭력으로 인한 고통의 정도는 여전히

59) 문성환, 위 글, p.78.

60) 한상철, <청소년정책의 성격과 국가행정 부처 변경을 위한 제언>, 《청소년행동연구》, 18, 2013, 5. 5-27. p.6.

61) 통계청, 《보도자료: 2014 청소년 통계》, 2014.7.10., p.37.

62)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4년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결과》, <http://blog.naver.com/bakbht/220367002005> <검색일: 2017.4.11.>

63) 문무경 외, “인성교육 우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범사업(2012-2015년) 성과분석”,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5-18. 2015, p.5.

히 높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스러웠다’거나 ‘매우 고통스러웠다’는 학생의 비율은 2012년 49.3%, 2013년 56.1%, 2014년 50.0%였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후에 자살을 생각한 학생비율은 2013년 42.1%, 2014년 42.9%였다. 피해 후 ‘복수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학생비율은 2013년 75.4%, 2014년 77.0%였다.⁶⁴⁾

인성교육이 국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예방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17년 인천의 한 공원에서 8세 여자 어린이를 유인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16세의 여자 청소년과, 사체 일부를 유기한 또 다른 18세의 여자 청소년이 공범으로 체포되었다. 살해 피의자는 거의 모든 과목이 9등급으로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학교에 다니기 싫다며 하루 종일 잠만 자던 학생이었다. 학교를 다닐 때는 돌봄의 필요가 있었으나, 폭력성이나 잔혹성은 보이지 않았다.⁶⁵⁾ 그리고 공범과 피의자는 사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영화나 드라마 등의 인터넷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라고 알려졌다.⁶⁶⁾

이들 여학생들도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받았을 것인데, 왜 이런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을까? 학업 성적이 낮은 것을 보면, 학업능력에 장애가 있거나,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낮았을 것이다. 아마도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감도 낮았을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 접했던 반사회적 영상물에서 반인륜적 행위를 학습했을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들에게 인성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알파고(AlphaGo)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미래사회에서는 전생애적 계획을 세우지 못한 청소년들의 부적응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⁶⁷⁾ 이에 대해 왕양명은 어떤 조언을 해줄까?

2017년 3월 인도에서 원숭이와 함께 살던 한 소녀가 숲 속에서 발견되었다. 네팔과 인도 국경의 야생동물보호구역 주민들의 목격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된 소녀는 발견 당시 원숭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다. 경찰이 그 소녀를 데려가려고 하자, 원숭이 무리 중 거의 절반이 경찰을 공격하여 소녀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의사들은 구출된 소녀가 사람들과 전혀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마치 원숭이 같은 행동을 보였다고 하였다.⁶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인 모나리자는 존 코드라는 귀족이 부탁한 아내의 초상화였다. 그런데 1개월 안에 그려달라고 하였으나, 다빈치는 거절하고, 완성기간을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하였었다. 그리

64)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4년 전국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결과》, <http://blog.naver.com/bakbht/220367002005> <검색일: 2017.4.11.>

65) 신동윤·박주영, <인천8세 여아 유기살인> “학교 다니기 싫다며 잠만 자던 학생”, 자퇴 전 담임이 기억하는 18세 살인 피의자, 《헤럴드경제》, 2017.3.31.

66) 김준구, <엽기적 살인우정... 초등생 시신 건넬받은 또다른 10대 체포>, 《경기일보》, 2017.4.11.

67) 황매향, 위 글, p.6.

68) YTN, <원숭이와 함께 살던 ‘현대판 모글리’ 소녀 발견돼>, 《YTN》, 2017.4.9.

고 4년을 그렸으나, 완성하지 못한 그림이다. 위의 정글에서 발견된 인도소녀를 포함한 청소년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인성교육도 지금처럼 조금씩 서두르는 방식으로는 효과를 얻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가까운 시일 안에 밥 딜런과 같은 생각을 가진 청소년, 알파고 디자이너와 같은 청소년의 양성은 쉽지 않다. 성인(聖人)을 목표로 하되, 안되면 현인(賢人), 그것도 안되면 군자(君子)를 목표로 자아를 완성해나가는 것⁶⁹⁾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양명에 의하면, 양지는 우리의 본래 마음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으며, 성인(聖人)의 양지나 범부(凡夫)의 양지나 모두 동일하다. 인도의 정글에서 발견된 소녀나, 인천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소녀나 모두, 성인과 같은 양지를 갖고 있다. 다만, 성인과 달리, 그들에게는 본래의 마음인 양지에 따라 공심(公心)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뿐이다.⁷⁰⁾

왕양명의 유배지였던 귀주성을 양명학의 성지로 단장하고, 지행합일 정신을 숭양하는⁷¹⁾ 중국의 국가원수 시진핑(習近平)은 아버지 시중선(習仲勳) 전 부총리의 교육을 받고 성장했다. 시중선은 15세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후, 용맹하고 혁혁한 전공으로 어린 나이에 '서북의 왕'으로 불렸다.周恩래의 총애로 국무원 비서장까지 이르렀으나 정쟁으로 실각한 후, 문화혁명 후 복권될 때까지 16년간 농촌생활을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시중선은 항상 자존심을 지키되 근검 절약 정신을 교육하였는데 자녀 중 시진핑이 가장 아버지의 기대를 이어 나갔다.⁷²⁾ 시중선이 시진핑에게 자주 했던 말이 '급인방편 자기방편(給人方便 自己方便·남을 편하게 대해주면 자신도 편하게 된다)'라는 말이었다. 곧, "모든 것을 자기중심에서 생각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관점에서 행동하라"였다. 시진핑은 중국의 1인자로 올라서기까지 적을 만들지 않는 신중한 언행을 하였다.⁷³⁾ 시진핑의 사례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교적 가치덕목의 교육이 유효함을 보여준다.

69) 정인재, <시흥과 양명학>, 한국문화원연합회, 시흥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추곡서원: 정제두와 양명학》, 2016, p.15.

70) 문성환, 위 글, p.107.

71) <http://blog.daum.net/kccf0827/11>

72) 유주열, <http://cafe.daum.net/Chinesemeeting/NPU/306>, 《시중선(習仲勳)·시진핑(習近平)父子 이야기》, 2009.12.16.

73) 박영서, <시진핑 가훈은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 《헤럴드경제》, 2012.11.15.



<그림 1>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지행합일 편액⁷⁴⁾

현재 한국의 인성교육은 유학의 전통과 비교하면, 인식론과 수양론을 구분하여, 수양론에 치우치고 있다.⁷⁵⁾ 유학에서는 인성지식을 바탕으로 인격형성을 위해 기울이는 수양을 공부(工夫)라고 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성교육이란 수양공부를 처방으로 삼아 실천과제를 의무화하는 교육이다.⁷⁶⁾

인성교육의 방향은, 청소년들이 성적과 성적의 결과물인 진학 등으로 이어지는 서열에 의해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잘못된 정신세계에서 벗어나, 각자 능력껏 성의를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살아가는 것이 가치있는 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될 필요가 있다.⁷⁷⁾

그러나 인성교육에서조차 앎과 행함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600여년 전에 이 문제로 씨름을 하고, 치양지(致良知)와 지행합일(知行合一)을 나름대로의 답으로 제시하였던 왕양명의 조언은 의미가 있다. 왕양명은 한국 청소년 인성교육의 사태에 직면하여서도, 치양지(致良知)와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인성교육을 다시 조언할 것이다. 여기서 치양지(致良知)를 이루는 방법으로서의 양지체용도(良知體用圖)를 제시한 하국 정제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⁷⁸⁾

74) <http://blog.daum.net/kccf0827/11>

75) 박의수, <유가적 전통에서의 인성교육>, 《교육문제연구》, 28, 2007, pp.1-22.

76) 김용환, <조선의 인성교육 범례연구>, 《윤리교육연구》, 37, 2015, 1p.154.

77) 정원철, <추곡 정제두와 한국양명학>, 한국문화원연합회, 시흥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추곡서원: 정제두와 양명학》, 2016, p.119.

78) 정원철, 위 글, p.117.

시흥 인문철학의 뿌리

제2회 하곡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 편집부 |

시흥문화원(원장 정원철)은 2018년 6월 27일(수요일) 10시부터 시흥시청 별관 글로벌센터에서 제2회 하곡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하곡학 국제학술대회는 ‘철학하는 지역사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란 주제로 한국과 중국의 연구자들이 참여를 하였다. 발제는 세 개의 분과로 나누어 보다 체계적으로 학술발표를 진행하며, 모든 발제가 끝나면 발제 및 토론자를 중심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정인재(서강대) 교수의 “양명학의 현대적 의미”와 김교빈(호서대)교수의 “참 마음으로 사는 인문도시 시흥을 꿈꾸며”라는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황종원(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1분과 ‘유학과 현대사회’라는 주제 발제를 하였다. 김세정(충남대)교수가 “4차 산업혁명과 유학, 그리고 양명학”, 최재목(영남대)교수가 “디지털시대의 인성교육: 신독(慎獨)이라는 관점의 재음미”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온 육영승(귀양학원과 양명학 검학연구원) 부원장이 “양명학과 지역사회”, 손취우(한동성 사회과학원 유학연구소)소장이 “산동성의 유학생활화 사례”를 각각 발제하였다. 토론은 이동욱(건국대), 노규현(황노학회 고문), 정순우(한국학중앙연구원), 김세서리아(이화여대), 정종모(서강대), 고재석(성균관대)교수가 맡았다.

2분과는 ‘추곡 정제두의 지행합일’이라는 주제로 김용재(성신여대) 교수의 사회로 조지선(충남대)박사가 “하곡 정제두 공부론의 인성교육적 고찰”을 진성수(전북대)교수가 “하곡 정제두의 자녀교육”을 발표하고, 고취(귀양학원과 양명학 검학연구원)교수가 “귀주의 양명학 전파사례”를 발제하였다. 토론은 정연수(성균관대), 천병돈(대진대), 이남옥(한국학중앙연구원), 이경룡(하곡학연구원)원장이 맡았는데 부득이 하게 참석을 못하고 서면으로 대신하였다.

3분과의 추곡논단에서는 시흥시민들이 참여하는 분과로 강진갑(경기대) 교수의 사회로 심우일(명문고등학교)교감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엮어가는 나의 꿈”을, 정준교(다음세대살림연구소)소장이 “더 좋은 시흥을 위한 철학적 제언: 양명학을 중심으로”, 백도근(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이 “하곡

학이 이옥의 문화정신에 끼치는 영향”을 각각 발제하였다. 이에 대한 논평은 전문연구자인 양선진(충남대), 김형석(경상대), 윤여빈(실학박물관) 팀장과 김성일, 김치성(향토사료실), 김선옥(월곶문화회) 등 시민들의 참여로 열린 토론이 진행되었다.

각 분과별 발제와 토론이 모두 끝나고 김덕균(대전효문화진흥원) 효문화연구사업단장이 좌장을 맡아 제 1,2,3분과 논의를 종합하여 각 분과 사회자들과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중 양국의 양명학을 대표하는 연구자가 모여 발제와 토론을 통해 양명학이 현대인의 삶과 일상에 갖는 가치와 지역사회에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이러한 국제학술대회의 개최는 시흥시가 정제두 선생이 20년간 거주하면서 한국양명학의 기틀을 세운 곳, 즉 한국양명학의 발상지로서 철학인문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01 참관기

| 정준교 |

▣ 학술대회에 대한 의미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이란 주제를 내걸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철학하는 도시, 시흥”을 지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더욱이 시흥시장이 시장직무를 새롭게 시작하는 분이므로, 시작을 함께 할 수 있는 단초도 마련되었다고 본다.

▣ 발전방향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이란 주제를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에 맞는 발제는 많지 않았다. 그리고 발제자들의 수준도 천차만별(千差萬別)이었다. 철학하는 도시를 지향하려면, 철학의 대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양명학은 특히 ‘어렵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음을 고려할 때, 대중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중화하는 쪽지가 별도로 마련될 수 있다면 좋겠다. 제3회는 전문가 쪽지와, 일반시민 쪽지로 나누어 전개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것 같다.

향후에는 제4회 또는 제5회부터는 일반시민 쪽지를 성인과 청소년으로 나누어 진행하면,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다. 철학하는 도시는 일반시민들이 철학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문가 몇 명이 철학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강화학파의 경우, 가학(家學)으로 이어져, 대중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시흥양명학은 강화도와 달리, 양명학의 처음 지향처럼, 대중과 함께 하는 지향으로 나가면 차별성도 있고, 도시 수준도 향상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6회 대회 이후에는 시청, 시의회의 참여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시민이 깨어있어도, 행정 부분이 꼼짝을 안하면

시의 균형있는 발전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 시흥시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대회가 마련됨으로써, 시민들에게 이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한다.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시흥시청에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시민에게 그만큼 더 다가갈 수 있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철학하는”과 같은 주제가 한국 사회에서 쉽지 않은 주제임을 고려할 때, 처음 시도로서는 의미 있는 결과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시민의 참여가 증가하면, 더 많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02 참관기

| 김영기 |

■ 학술대회에 대한 의미

시흥시가 한국양명학의 발상지로서의 의미를 대내외에 알리는 데 가장 중요한 행사이다. 더욱이 양명학이라는 학문이 한국만이 아닌 한중일 국가들은 물론 유학사에서 성리학 이후 태동한 사민평등을 내용으로 현대 민주주의 원리와 결부되는 유의미한 학문으로 이러한 양명학의 독자화와 한국적 심학으로 발전시키는데 시흥시가 중심이었다는 데 큰 의미와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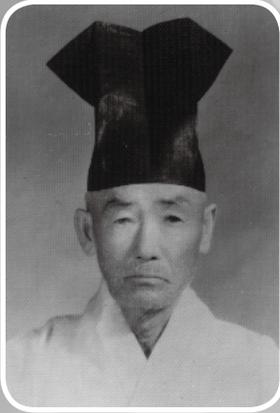
■ 발전방향

양명학 사상은 개인의 주체성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 미래의 청소년들이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공부에만 시달리며 살아감이 아쉽다.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정제두 선생의 실심실학 정신이 차세대 미래 교육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 시흥시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양명학의 발상지의 시흥은 정제두 선생의 사상과 교훈을 시흥정신문화를 안착시키고 미래 문화발전에 토대로 삼을 수 있는 시흥의 미래 비전이다.

“시흥의 인물”



애국지사 윤동욱(1891~1968)

산현리 출생. 본관은 파평(坡平), 호는 학은(鶴隱). 1919년 3월 30일, 시흥군 수암면 비석거리의 3·1 만세 운동에 참여하여 시위를 주도. 일제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8개월의 징역형을 언도받았으며, 결국 태형 90도에 처해짐. 독립 유공 대통령 표창 수여(1996)



시흥 교육의 선구자 최경렬(1901~1960)

서울 종로 출생. 본관은 경주(慶州). 경성제일고보 3학년 때 3.1운동에 참여하여 퇴학당했고, 1921년 시흥군 군자면에 군자학원을 설립, 1938년부터 안양일동학원, 1940년 논곡학원(논곡강습소)을 개설하는 등 지역 교육에 본격적으로 투신. 1950년 2월, 군자고등공민학교를 월곡리에 개설하였고, 2년 후, 유지들의 도움으로 거모리에 다시 학교 부지를 마련하게 되었지만, 교사(校舍) 건축비용 마련이 어렵게 되자 전 재산을 투자하여 4개의 교실로 군자고등공민학교를 건립 군자고등공민학교가 정부의 인가를 받아, 시흥시 지역 유일의 중등교육기관으로 자리잡은 학교를 정부에 기증.



빈민운동가 제정구(1944~1999)

경남 고성 출생. 본관은 칠원(漆原). 1966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 71년 교련 반대시위로 제적, 73년부터 청계천 판자촌에 살면서 '배달학당'에서 야학 활동. 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되어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형 집행 정지로 출소, 75년부터 양평동 판자촌에서 정일우 신부와 함께 살면서 빈민운동에 앞장. 이후 77년 양평동 철거민들과 함께 시흥군 신천리로 집단 이주하여 '복음자리' 마을을 건설하였으며, 79년에는 시흥동, 당산동 일대 철거민들의 집단 이주를 통해 '한독마을', 85년에는 목동 철거민의 집단 이주를 도와 '목화마을'을 정착 시킴. 복음자리 공동체 안에 '복음신협', '복음장학회' 등을 설립, '빈민운동의 대부'라 불렸으며, 86년 정일우 신부와 함께 막사이사이상을 수상. 이후 정치계에 몸을 담아 14대(92년), 15대(96년) 국회의원을 역임,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1999).

※시흥의 인물 선양사업은 시흥문화원이 주관이 되어 2009년 처음 애국지사 윤동욱 선생을 2011년부터 시흥시가 후원하는 사업으로 시흥시를 위해 헌신한 숨은 위인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 시흥문화원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

| 접수기간 | 매월 마지막주
| 접수문의 | ☎ 317-0827, 0821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수강료는 1개월분입니다. (재료비, 교재비 별도)

번호	강좌명	요일 및 시간	강사명	수강료(월)
1	서예, 한문	월 14:00~16:00	전남훈	15,000원
2	문인화	월 13:00~15:00	김영호	15,000원
3	해 금	월 10:00~12:00	차영수	15,000원
4	민 화	화 14:00~16:00	장우환	15,000원
5	경기민요	화 14:30~16:00	문운자	15,000원
6	시(시조)창작	화 14:00~15:00	정원철	무료
7	서각교실	목 13:00~15:00	박기선	15,000원
8	한복만들기	목 10:00~12:00	박은화	15,000원
9	한국화	금 10:00~12:00	정혜자	15,000원
10	한지공예	금 10:00~12:00	신은경	10,000원
11	시조창	토 11:00~12:30	박일엽	10,000원
12	기타교실	수 10:00~12:00	김상욱	30,000원

“ 회원가입 안내 ”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 시흥의 문화 지킴이와 알림이로서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모십니다.

우리문화와 시흥의 역사를 사랑하고 관심 있는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시흥문화원의 새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 회원이 되시려면

자 격 |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시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면 누구나 가능

일반회원 | 시흥시 거주자

특별회원 | 타지역 거주자

회 비 | 회원(일반, 특별) 월 5,000원

※ 일시납 가능(60,000원)

✓ 회원이 되시면

시흥문화원 소식지 「시흥문화」를 비롯한

각종 간행물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시흥문화원에서 실시하는 공연, 전시, 행사, 교육 등을 안내·초청합니다.

✓ 시흥문화원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shculture 또는 페이스북에서

시흥문화원을 검색하시고 👍를 눌러 주세요.

시흥시의 문화 행사와

문화원소식을 간단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립니다.



시흥문화원
Siheung Culture Center

시흥시 연성로13번길 3(조은프라자 4층)

문의 031. 317.0821, 317.0827 www.shculture.or.kr

www.facebook.com/shculture

시흥문화원 회원 가입원서

접수번호 :					(사진)			
이름	(한글)		(한문)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								
휴대전화				E-mail				
직업			직장			전화번호		
관심분야								
주요경력								
계좌번호								
주민등록 앞 6자리								
이체금액	<input type="checkbox"/> 회원 : 월 5,000원							
<p>본인은 시흥문화원 정관 제7조 2항에 의거 회원으로 입회할 것을 신청하며 그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2019년	월	일	
이름 :					서명			
					계	사무국장	원장	
시흥문화원장 귀하								
					추천인			



발행일 | 2018년 12월 31일
발행인 | 정원철
발행처 | 시흥문화원 T.031.317.0827
 경기도 시흥시 연성로13번길 3(조은프라자 4층)
편집위원장 | 안준상
편집위원 | 김영례, 류홍숙, 박일엽, 우성숙, 한봉선
편집디자인 | 공감창미디어 T.031.435.0012

※ 이 책은 시흥시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시흥문화원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